

제16차 통일학·평화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엄

남북한 통합과 네트워크

{ 2013. **2.7**(목) 10:00~17:30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16차 통일학·평화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엄

남북한 통합과 네트워크

{ 2013.2.7(목) 10:00~17:30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제1회의>> 영화, 사이버민족주의와 수학

- 분단영화를 통해 본 남북문제에 대한 감정구조 연구 ————— 3
강남준 (서울대 사회과학대)
-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비교 연구 ————— 25
서이종 (서울대 사회과학대)
- 북한의 수학현황 분석 ————— 51
김도한 (서울대 수리과학부)
- 지정토론
이명자 (동국대), 류석진 (서강대), 민경찬 (연세대)

제2회의>> 통일학 · 평화학과 네트워크 분석

- 네트워크로 보는 동아시아 속의 북한 ————— 71
김상배 (서울대 사회과학대)
- 막힌 길 돌아서 가기: 네트워크 분석과 통일학 가능성 탐색 ——— 97
한신갑 (서울대 사회과학대)
- 지정토론
황지환 (서울시립대), 강정한 (연세대)

제3회의>> 북한의 행정, 보건과 남북 학술 공동연구

- 북한의 행정과 관료 성향에 관한 연구 ————— 123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현황조사 및 균형적 질 평가 ————— 151
박상민 (서울대 의과대학)
- 야생동물 계통분류 남북공동연구 ————— 161
이 향 (서울대 수의과대학)
- 지정토론
손기웅 (통일연구원), 이금순 (통일연구원), 이우신 (서울대)



{ 제1회의 영화, 사이버민족주의와 수학

- 분단영화를 통해 본 남북문제에 대한 감정구조 연구
강남준 (서울대 사회과학대)
-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비교 연구
서이종 (서울대 사회과학대)
- 북한의 수학현황 분석
김도한 (서울대 수리과학부)

분단영화를 통해 본 남북문제에 대한 감정구조 연구

연구책임자 : 강남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박명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곽현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위원)

이범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선정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

1. 문제제기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온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의식 조사 연구들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감정이 '양면적이고 모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적'과 '동포'라는 상호모순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투여되는 과정은 대중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 애증, 공포심과 동정심이 병존하는 이중감정을 구조화했다(전효관, 1997; 박명규, 2012). 적대국이자 민족공동체라는 북한의 이미지는 92년의 기본합의서 체결,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적/동포의 이중성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좀 더 복잡한 것이 되었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심경 또한 복잡해진 것으로 보인다. 동족이자 적으로서의 북한과의 이중적 관계는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사건 같은 군사적 긴장이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되는) 경제적 협력과 지원 같은 다양한 층위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으로 투입된다.

본 연구는 의식조사가 아닌 대중영화 텍스트와 그 수용을 통해 북한과 분단과 통리에 대한 정서구조(의 변화)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분단 60년 동안 격동의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서구조는 변화를 겪어왔다. 대중영화는 한 사회의 정서구조에 접근하는 데 특권적인 텍스트이다. 특히 1999년 이후 한국 영화의 최고 흥행작의 다수가 분단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사실은 그 영화를 통해 분단에 대한 정서에 접근하는 것이 유효한 작업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90년대 탈냉전의 시대를 거치며 등장한 이 영화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비도덕성과 잔학성을 강조하며 반공의식을 고취했던 냉전시대의 반공영화나 리얼리즘-휴머니즘적인 접근을 취했던 90년대 초중반의 분단영화와 구별되는 주제와 드라마적 관습, 상상계를 보여주었다.

2. 윌리엄스의 ‘정서구조(structure of feeling)’

정서구조는 ‘특정 장소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감각’으로 정의된다.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한 윌리엄즈에 따르면 그것은 특정 집단(계층, 세대 등)이 지닌 공식적인 관념, 가치, 생각 뿐 아니라, 그러한 관념, 가치, 생각이 적용되지 않는 지점들과 그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체험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면에서 정서구조는 지배 이데올로기나 신화 등과 차별화되며, 공식화되거나 명확히 정리된 ‘의식’ 과도 구분된다. 따라서 정서구조 개념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정책 담론 연구는 물론 기존의 통일의식조사 연구와도 차별성을 갖는다. 남북문제에 대한 ‘정서구조’는 정부나 정치권, 사회운동단체의 명문화된 통일/대북정책 프로그램이나 정치적 프로젝트, 언론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밀접한 관련을 갖지만 그런 정형화된 논리로 포착되지 않고 명료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감각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단영화의 정서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분단영화 텍스트를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영화에 대한 네티즌 평을 대상으로 코퍼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텍스트 분석은 1999년 〈쉬리〉에서 2012년 〈간첩〉에 이르는 31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는 관객수 1,000만을 넘긴 영화와 수백 명의 관객밖에 동원하지 못한 영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영화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영화의 흥행 성적이나 완성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대중 영화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물 유형 및 서사관습, 테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북문제와 통일에 대한 정서구조를 밝혀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분단영화는 첩보전을 다룬 간첩영화, 한국전쟁 및 군사적 대치상황을 다룬 분단전쟁영화, 한국전쟁 및 분단 체제로 발생하는 이산의 문제를 다룬 이산영화의 세 가지 하위 장르로 나누어 이들 각 장르가 북한과 분단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테마를 분석하고, 그러한 테마들이 환기하는 정서구조를 분석하였다.

코퍼스 분석에서는 2002~2012년 사이에 나온 분단영화 34편에 대한 20,925개의 영화평(총 단어수 8,640,748) 코퍼스를 대상으로 네티즌이 사용한 정서어휘의 출현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분단영화에 대한 네티즌의 정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4. 분단영화 텍스트와 정서구조

1) 간첩영화

2000년대의 간첩영화는 <쉬리>, <간첩 리철진>, <이중간첩>, <그녀를 모르면 간첩>, <의형제>, <스파이 파파>, <간첩>으로, 이들은 첩보액션 영화와 간첩 코미디 영화로 나뉘며, <쉬리>(1999)와 <간첩 리철진>(1999)이 각각 그 원형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간첩영화의 테마는 **감정과 자유의지를 존재로서의 간첩, 액션영웅으로서의 간첩, 직업으로서의 간첩, 일상과 가족중심주의, 적대의 약화와 남북공조의 판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액션영웅으로서의 간첩은 첩보액션영화에서, 직업으로서의 간첩은 코미디 영화에서 전형적인 인물형이다. 코미디의 간첩에서 간첩의 액션은 첩보액션 영화에서보다 더 과장되게 그려진다. 가족중심주의의 테마는 첩보 액션 영화에서는 가족구성의 실패를 통해, 그리고 코미디에서는 가족의 일상을 통해 드러난다.

반공영화에서 간첩은 ‘비인간성, 패륜성, 잔학성, 법과 질서에 대한 위협’ 을 표상했고, 반공영화의 내러티브는 이들을 제거하거나(일망타진) 우리 체제 내로 포섭함으로써(자수), 불안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도감을 제공하며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설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2000년대 간첩영화에서 간첩은 ‘괴뢰’ 의 이미지를 벗고 ‘감정을 지닌 존재’ 이자 자신의 운명을 ‘선택’ 하는 모습을 보인다. 간첩은 첩보액션영화에서는 ‘액션 영웅’ 으로, 간첩 코미디 영화에서는 ‘직업인’ 이자 ‘서민’ 으로 재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두 하위 장르 모두에서 ‘일상-가족 중심주의’ 의 테마가 두드러지며, 남북의 비밀요원 간의 ‘적대적’ 대립이 아닌 ‘남북공조의 판타지’ 가 펼쳐지기도 한다.

간첩영화의 정서구조는 냉전의 흔적으로서의 **두려움과 불안**, 간첩에 대한 **감탄과 연민**의 공존, 남북한 **양쪽 체제에 대한 비판적 정서**로 요약해볼 수 있다. 간첩 분단영화에 주변적인 인물들 속에 여전히 출현하는 냉혈한 간첩의 관습은 냉전의 흔적으로서 ‘두려움과 불안’ 을 여전히 표현하고 있지만, 뛰어난 액션 영웅인 주인공 간첩들은 관객의 감탄을 불러일으키며, 그럼에도 남과 북 양쪽에서 버림받는 분단체제의 희생자로 묘사됨으로써 연민과 비감 또한 자아낸다. 한편 간첩영화는 첩보액션과 코미디물 공히 북한의 경제난을 배경으로 삼으며, 지도체제의 약화를 암시한다. 이렇듯 무능한 북한체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 대립항으로 제시되는 남한 체제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밥벌이로서 간첩질을 업으로 삼는 생활형 간첩에 대한 풍자는 종종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한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연결된다.

2) 분단전쟁영화

2000년대의 분단전쟁영화는 크게 분단의 군사적 대치를 소재로 하는 분단대치영화(〈공동경비구역, JSA〉, 〈실미도〉, 〈DMZ, 비무장지대〉, 〈천군〉), 전투 장면이 서사의 중심인 전쟁액션영화(〈태극기 휘날리며〉, 〈포화속으로〉, 〈고지전〉), 민간인과 군인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는 민간인 전쟁영화(〈웰컴투 동막골〉, 〈작은연못〉, 〈적과의 동침〉)의 세 하위 장르로 나누어진다.

2000년 〈JSA 공동경비구역〉 이후 분단전쟁영화는 ‘**인간적 이지만 귀순하지 않는 북한군, 남 북한 병사들의 만남과 교류, 전쟁체제의 부당함, 규율을 위반하는 청년병사, 전쟁에 의한 민간인의 희생** 등을 주요 테마로 다룬다.

북한 병사를 사악하고 비열한 존재가 아니라 도덕성을 갖거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재현하는 것은 그들을 죄책감 없이 처단할 수 있는 ‘적’ 이라고 설득하던 반공영화에서는 금기시되었던 드라마적 관습이다. 이러한 관습의 정착은 북한군에 **대한 적대 감정의 와해와 반-반공정서**를 드러내준다.

남북 병사들의 만남과 교류 테마는 비록 분단체제의 엄혹함에 대한 현실 감각을 담고 있지만 억압적 분단체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영화적 상상력을 통해 드러낸다. 영화는 개인적 수준의 친교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류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묘사하는 반면 정부차원의 교류는 거리감이나 불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남북한 병사들 간에 교류의 매개가 되는 것은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이국적이거나 ‘현대적’인 물건이나 대중문화이다. 이는 과거 공동체의 복원보다 분단 이후 세대 간의 새로운 남북교류를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냉전시대 반공영화에서 북한군의 만행이 두드러지게 표상된 반면, 1990년대 분단영화에서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군 지휘부의 비합리성과 잔혹함, 이로 인한 민간인과 병사의 희생이 부각된다. 특히 2000년대 분단전쟁영화에서는 전쟁체제에 대한 병사들의 저항과 자율성이 눈에 띄게 강조되는데 이는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과 탈피 욕구**를 드러내 준다.

심층적인 수준에서 분단체제에 대한 저항은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 일상적인 삶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시대적 정서를 반영한다. 영화는 가족과 동료를 이념과 안보보다 우선시하며 적과 교류하거나 명령 불복종, 상관 살해 등을 중대한 군율 위반을 시행하는 주인공들을 배치하는데, 그들의 행위는 가족, 동료와 함께 하는 일상적인 삶을 아름답고 따뜻한 것으로 낭만화함으로써 정당화된다.

3) 이산영화

한국전쟁 직후 이산 멜로드라마가 전쟁으로 헤어진 연인과 가족의 기구한 운명을 그려내며 통한의 정서를 강조한 반면, 1980년대 중반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와 <길소뜸>은 이산가족의 ‘행복한’ 재결합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000년대 이산영화는 이산 코미디영화(<간 큰 가족>, <비단구두>, <만남의 광장>)와 탈북자 영화(<태풍>, <국경의 남쪽>, <크로싱>, <무적자>, <무산일기>, <풍산개>)로 나뉜다.

(1) 이산 코미디 영화

이산 코미디 영화는 코미디 영화의 장르관습을 차용한다는 점에서 이산 멜로드라마와 구분된다. 이산 코미디의 주요 테마로는 **이산가족의 한과 고통, 효, 미디어를 통한 현실 조작, 한국전쟁의 상흔, 레드콤플렉스, 적이자 혈육으로서 북한** 등이 있다.

이 유형의 영화는 이산 1세대의 **망향정서과 치유**에 초점을 맞춘다. 이산 1세대의 상실감과 죄책감은 전후세대의 통일사기극이나 북한 친지들의 위장 귀순을 통해 해소되지만, 해피엔딩의 안도감과 해방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전후 세대의 **유교적인 감수성**, 즉 ‘효’와 ‘가족 정서’ 역시 이 유형의 영화에서 지배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전후 세대가 전쟁세대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기제이자, 북한의 친인척들을 가족의 테두리 안에 끌어안도록 만드는 끈으로 작용한다. **레드 콤플렉스**에 대한 조롱에서 드러나듯 반공정서는 약화되지만, 두 노인의 기억과 행동에서 **한국전쟁의 상흔은 존속된다**. 또한 공식적인 통일 담론 외에 개인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통일을 배척할 수도 있다는 **통일에 대한 타산적 접근**도 역시 눈에 띈다.

(2) 탈북자 영화

탈북자 영화는 탈북액션영화(〈태풍〉, 〈무적자〉, 〈풍산개〉), 탈북멜로드라마(〈국경의 남쪽〉, 〈크로싱〉), 탈북독립영화(〈무산일기〉 등)로 나뉜다. 이 영화들에서는 **이산의 고통, 가족애**와 더불어, **무기력한 사회부적응자**, 혹은 **유능한 범법자**로 정형화되는 탈북자의 표상이 등장한다.

탈북자 영화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재생산되는 이산의 경험과 상실의 고통**이다. 이 영화에서 상실은 가족의 죽음, 연인과의 결별 같은 회복불가능한 성격의 것이고, 주인공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내러티브 구조는 이들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연민을 야기하지만, 동시에 탈북자들과 우리 사이의 행복한 공존을 꿈꿀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상상력 부재를 함축한다고 볼 수도 있다.

탈북자에 대한 이분법적 재현은 **연민과 공포 사이에서** 동요하는 이중적 정서를 야기한다. 탈북멜로드라마나 탈북독립영화에서 탈북자는 종종 빈곤과 실업, 범죄의 위협에 시달리는 실패자로 등장하는데, 이는 관객들에게 연민 뿐 아니라 답답함을 자아낸다. 반면 탈북액션영화는 카리스마와 전투능력으로 무장한 유능한 범법자로서 탈북자를 묘사하고 이는 관객들의 공포를 자극한다. 이 두 상반된 정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정책의 변화로 IMF 이후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사회의 주변부로 편입되는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다.

이들 영화에서 북한은 극악한 경제난과 비인간적인 수용소 생활을 통해 재현되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민과 무능한 북한체제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자본주의 **남한사회의 비정함**도 함께 다루어지므로, 탈북자영화가 반드시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감각을 자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첩영화	분단전쟁영화	이산코미디영화	탈북자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전의 흔적으로서 두려움과 불안 • 연민과 감탄의 공존 • 남북한 양쪽 체제에 대한 비판적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분법적 적대감정의 와해 • 교류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감각 • 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 • 일상 중심의 윤리적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실의 슬픔과 상상적 치유 • 효와 가족의 확장 • 반공정서의 약화와 전쟁의 트라우마 •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타산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의 경험과 비극적 정서 • 연민과 공포 사이에서 동요하기 • 북한 주민에 대한 연민과 북한제에 대한 반감 • 한국사회의 비정함에 대한 감각

5. 분단영화 수용자의 정서 분석

분단영화를 관람한 수용자들의 정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영화평 정서어휘 사전과 정서어휘 체커를 개발하여 네티즌 영화평에 대한 코퍼스 분석을 수행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영화 리뷰 네티즌 영화평 게시판에서 2002년 이후 개봉한 분단영화 34편에 대한 네티즌 리뷰를 수집하여 형태-의미 주석 코퍼스로 변환시켰다. 총 20,925개 영화평에 대해 총 8,640,748 단어의 영화평 코퍼스가 구축되었다.

영화평 코퍼스에 나타난 수용자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정서어휘 목록을 수집하고, 이를 49개 범주로 구분한 뒤, 별도로 개발한 정서표현 체커를 사용해 각 범주가 개별영화, 하위장르별로 어떤 빈도로 등장하는지 조사하고, 이를 분단영화 평균빈도와 비교함으로써 분단영화 하위장르와 전체 분단영화에 대해 표현된 정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1) 하위장르별 정서범주의 특징

영화의 장르적 속성이 영화평의 정서 표현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미디 요소를 포함한 영화들에서는 재미@, 웃음@, 기쁨@의 정서범주가 두드러졌고, 비극적 서사를 다룬 탈북멜로드라마에서는 슬픔@과 아픔@의 정서범주가 지배적임이 나타났다. 또한 첩보액션영화에서는 긴장@, 놀람@, 감탄@의 정서범주가 다른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영화의 내용과 정서범주 출현패턴이 조응하는 양상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잔혹한 간첩 표상이 두드러진 영화와 전쟁의 참상이 그려진 영화의 평에서는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고, 남한 사회에 부적응을 보이고 불행을 겪는 탈북자를 재현한 영화의 평에는 불편@, 연민@, 답답@ 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2) 분단영화 정서어휘 출현 패턴의 특징

첫째, 네티즌 수용자가 분단영화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정서는 슬픔이었다. 슬픔@ 범주는 전체 8,640,748 단어 중에 모두 13,027회 출현하여 49개 정서범주 중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또한 ‘슬픈 상황’ 과 연관성 있는 것으로 분석된 감동@ 범주도 2번째로 많이 등장하였다(10,659회). 이는 여전히 분단영화 속에서 ‘슬픔’ 이 분단을 대하는 대표적인 정서임을 보여준다. 슬픔@ 범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장르는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다룬 영화들이었다(6편의 영화에 대해 6,642회, 전체의 51.0%).

둘째, ‘간첩’, ‘이산가족’, ‘군사적 대처’, ‘민간인 학살’ 과 같은 심각한 소재의 영화에 대해 대중관객들이 재미와 웃음의 틀로 영화에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재미@ 10,655회; 웃음 8,035회). 이는 분단영화가 이러한 소재를 액션이나 코미디의 틀로 다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분단문제에 대한 ‘가벼운’ 태도로 비판될 수도 있지만, 냉전적 사고와 정서의 약화나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잘 형성화된 영화 속 코미디 요소(대표적으로 <웰컴 투 동막골>, <의형제>)는 남북 사람들의 만남을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것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화의 영화평에서는 좋아함@, 행복@, 편안@, 정겨움@ 등의 긍정적인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셋째, **분단영화에 대해 ‘실망’이나 ‘재미없음’, ‘황당함’ 등의 부정적 정서 역시 상대적으로 많이 표명되고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주로 흥행에 실패한 코미디 장르의 영화(코미디 분단대치영화, 이산 코미디영화, 기타 분단코미디영화)와 일부 탈북액션영화에서 등장했다. 이중 코미디 영화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 영화들이 가장 자유롭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분단체제 규범의 위반과 남북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에 대한 상상을 다룬 영화들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분단상황의 엄혹함과 남북교류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예를 들면, <웰컴투 동막골>, <의형제>)이 함께 형상화된 영화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유로운 상상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분단현실의 중요성을 외면한 영화들이 폭넓은 대중적 공감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6. 분단영화의 정서구조와 그 함의

윌리엄즈는 『영화 서문』에서 드라마의 전통과 관련해서 영화를 논하는 가운데, 드라마의 관습이 한 시대의 정서구조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서구조가 변하면 새로운 표현 수단들이 인식되고 실현되며, 낡은 수단들은 공허하고 인위적인 듯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Williams, 1954, p. 22). 정서구조와 드라마 관습 간의 이러한 상동성은, 관습이 생산자와 수용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표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관습의 변화는 우발적이고 사소한, 기술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수용할 만한 정서구조를 지닌 관객들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Williams, 앞의 책). 이런 면에서 2000년대 분단영화의 관습 변화는 이 시기의 정서구조를 고찰하는 출발점이 된다. 여기서는 분단영화에서 시도된 장치들과 요소들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교섭되고 거부되는가를 먼저 검토한 뒤, 분단영화의 정서구조와 그것이 통일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1) 분단영화의 관습 변화와 그 함의

(1) 희극적 코드의 도입

2000년대 분단영화의 중요한 특징은 희극적 코드의 도입이다. 전통적으로 슬픔과 고통, 공포가 강조되던 분단영화에 ‘웃음’이 개입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분단영화와 코미디 장르의 혼종은 60여년의 시간이 흐르고 전쟁세대가 전후세대로 대체되면서 우리 사회가 전쟁과 이산의 트라우마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웃음’은 한국전쟁,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 간첩, 이산가족 등 자칫 지나치게 무겁고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재들에 대한 전후세대의 이념적, 심리적 방어기제를 해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민간인 학살을 다룬 민간인 전쟁영화나 휴전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모티브로 삼는 분단대치영화에서 희극적 장치는 한편으로는 전쟁과 이념대립의 부조리를 부각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병사들 간의 사적인 교류가 갖는 따뜻함과 행복감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웃음’은 분단영화가 드러내는 반-반공정서에 대한 동조와 남북교류에 기대를 함축하고 있다.

한편 간첩코미디의 웃음은 생계형 간첩이라는 희극적 설정에서 유발된다. 이 하위 장르에서는 북한간첩과 남한요원이 모두 ‘돈’ (공작금의 형태로든 월급의 형태로든)에 전전공공하며, 가족 부양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서민 가장으로 묘사된다. 이것이 현재의 남한 사회의 풍토에 대한 풍자의 면모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설정은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는 일상의 경험이 공감과 동일시의 근거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산 코미디는 이산가족 1세대인 아버지를 위해 자식들이 벌이는 통일사기극이나 땅굴로 북한 친지들과 오가는 민통선마을 같은 희극적 설정에 의존한다. 여기서 웃음은 비밀을 지키려는 이들과 외부인 간의 오해 사이에서 발생하며, 관객들에게 가족의 만남을 불법화하는 분단체제의 우스꽝스러움을 전달한다.

희극적 요소가 탈북자 영화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이는 탈북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이산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따라서 여기에 희극적인 장치를 적용시킬 만한 심리적인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한국 대중영화에서 두드러지게 퇴조한 멜로드라마적 요소는 탈북영화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나 <공동경비구역 JSA>(2000) 이후 흥행에 성공한 분단영화들은 희극적 요소를 도입했으며 분단체제의 냉엄함에 대한 현실감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영화들이다. 즉 거기에는 슬픔과 웃음의 균형, 대치와 화해의 긴장이 있다. 이는 희극적 요소에 전적으로 의지한 영화들이 흥행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코퍼스 분석에서도 실망/지겨움/황당함의 반응을 얻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2) 액션과 스펙터클의 강조

2000년대 분단영화의 또 다른 특징으로 액션/스펙터클의 강조를 들 수 있다. 1960~70년대에 국방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제작되었던 대작 국책 반공영화들 역시 당시로서는 스펙터클한 영상과 화려한 액션을 제공했지만, 그 영화들은 이념적이고 멜로적 성격이 강했고 액션 영웅은 항상 우리 국군이나 방첩대 대원이었다. 이와 달리 1999년 <쉬리> 이후 ‘한국형 블록버스터’는 한국전쟁과 분단을 소재로 할리우드식 전쟁영화와 첩보영화, 액션 어드벤처, 홍콩 누아르 등의 관습을 도입해서 흥행에 성공한 오락영화들이었다.

이 영화들은 북한 특수부대요원, 간첩, 탈북자에 액션영웅의 자리를 배정한다는 점에서 반공영화와 구분된다. 이들은 자살이나 망명의 형태로 우리 사회로부터 제거되지만, 종종 국군보다 북한군이, 국정원 요원보다 간첩과 탈북자가 더 노련하고 유능하며 매력적인 인물로 설정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북한군이나 간첩의 액션을 즐길 만큼 이념대립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재현은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2) 분단영화의 정서 범주

2000년대 분단영화에서 드러나는 정서 범주는 ① 탈이념과 체제 비판적 정서, ② 가족과 일상을 중시하는 소시민 정서, ③ 연민과 공포 사이의 동요, ④ 사적 교류에 대한 기대와 공적 협력에 대한 회의로 요약된다.

(1) 탈이념과 체제 비판적 정서

2000년대 분단영화에서는 **반공정서에 대한 반감과 북한에 대한 적대감의 약화**가 전반적으로 드러난다. 반공정서의 약화는 ‘인간적인’ 북한군/간첩의 재현에서 가장 확연히 감지된다. 반공영화에서 북한군의 인간적인 묘사가 용공시비를 낳았던 것과 달리, 분단영화는 인간적인 인민군들, (때로 국정원 요원보다 더) 인간적인 간첩들을 보여준다. 1950~60년대 반공영화에서 북한군과 간첩은 잔인무도한 ‘괴뢰’로 묘사되며(이들은 대개 영화의 부수적 인물이었다) 전멸/일망타진당하거나, 인간적인 북한군/간첩(이들은 대체로 영화의 주인공이다)은 전향/귀순하는 것이 내러티브의 관습적인 결말이었다. 2000년대 분단영화의 중요한 특징은 ‘인간적임’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전의 휴머니즘 계열의 분단영화에서 인간적인 북한군이 이성과 인격, 도덕성을 갖춘 실존주의적 지식인으로 묘사되었다면, 2000년대 분단영화에서 인간적인 북한군/간첩은 감정, 욕망, 결함을 지닌 통속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그 결과 이전 반공영화에서의 **‘귀순/전향’의 테마가 사라진다**. 반공영화와 달리 2000년대 분단영화에서는 인간적이지만 귀순/전향하지 않는 북한군과 간첩이 등장한다. 탈북자만이 한국으로 넘어오지만 이들은 대부분 정치적 망명객이라기보다는 경제난민으로 그려진다. **레드 콤플렉스** 또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유쾌한 비관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분단코미디에서 간첩, 무장공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투철한 반공정신이 아니라 금전적 보상(포상금)이나 실적 쌓기 등 개인적 이익에서 비롯될 뿐이다.

한편 냉전시대 영화가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북한체제의 야만성과 비인간성만을 부각시켰던 것과 달리, 2000년대 분단영화는 **양쪽 체제 모두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취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는 전쟁영화의 재현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져서, **북한군의 양민학살만이 아니라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이나 포로 처형** 등의 잔혹행위가 스크린 위로 불려나온다. 그 결과 어느 한 쪽에 도덕적 우월성을 부여하기 어렵게 되며, 민간인 피해자들은 물론 국군과 북한군, 미군까지도 전쟁과 분단체제의 희생자였음이 드러난다. 간첩 역시 이제 남한 자유 대한의 품으로 안전하게 귀순하지 못하고 종종 남도 북도 아닌 제 3의 세계를 선택한다.

1990년대 이후를 배경으로 삼는 분단영화에서는 현재 **북한체제의 무능함과 남한사회의 비정함**에 대한 비판적 감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체제의 무능함은 주로 북한의 경제난을 통해

표상된다. 분단영화에서 간첩은 북한의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몇 년, 혹은 몇 달째 지급되지 않는 공작금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탈북자 영화에서 북한주민들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없이 극악한 식량난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남한체제의 비정함은 배금주의와 약자에 대한 편견을 통해 재현된다. 간첩 코미디에서 남한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생계형 간첩들은 공작금을 횡령해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고 가짜 비아그라 밀수를 생업으로 삼는 등 돈 앞에서는 도덕관념은 물론 당에 대한 충성심도 미련 없이 내팽개치는데 이는 간첩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재현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배금주의 정서에 대한 풍자이다. 탈북자 영화는 저임금과 편견 속에 고립되고 좌절하는 탈북자들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분단영화에서 드러나는 양쪽 체제에 대한 비판은 종종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과 위반**으로 표출된다. 이는 젊은 세대의 삶의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분단영화가 전쟁과 분단체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데 만족했던 반면, 2000년대 분단영화의 주인공들은 체제 내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쟁영화에서 남북한 병사들은 자신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상부조직에 항명**하며, 군율을 위반하고 교류하기도 한다. 당과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부로부터 소모품 취급되고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폐기’의 운명 앞에 놓인 간첩은 자살을 선택하며, 가장 운이 좋은 경우 망명에 성공하기도 한다. 국정원 요원의 대간첩작전은 종종 국정원의 관료주의의 방해를 받는다. 탈북액션영화에서도 자신이 담당한 탈북자들을 동정해서 그들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는 형사나, 상부 명령에 불복종하고 동료들과 함께 태풍 속으로 돌진하는 해군 장교가 등장한다.

(2) 가족과 일상을 중시하는 소시민 정서

분단영화에서 이념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는 것은 **가족과 일상을 중시하는 소시민 정서**이다. 분단영화에서는 이념과 대의명분보다 가족, 연인, 동료 등 감정적 애착의 대상이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는 전쟁영화에서는 동료의 안위를 위해 상관 살해와 포로학살도 용인하는 남북한 병사의 모습으로, 간첩영화에서는 북한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간첩액션영웅이나 남한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생계형 간첩’의 모습으로 재현된다. 또한 이산 코미디에서는 ‘효’가, 탈북자 영화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주인공들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놓여진다.

또한 돈과 생계가 이념보다 전면에 배치된다. <간첩 리철진> 이후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은 생계형 간첩에게 간첩질은 조국통일을 위한 신성한 임무가 아니라 한낱 ‘밥벌이’가 되며, 그는 가족을 부양할 공작금을 타내기 위해 실적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 간첩의 대립항에 놓여 있는 국정원요원 역시 자유세계의 수호자라기보다는 실적 압박과 구조조정의 위협에 시달리는 샐러리맨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해서 간첩과 국정원요원은 가장으로서의 의무감과 고달픔, 구조조정(버림받음)에 대한 불안을 공유한다. 이산 코미디에서는 통일시범마을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번거롭다며 시큰둥하다가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자 반색을 하는 주민들이 등장한다.

(3) 연민과 두려움 사이의 동요

2000년대의 분단영화의 정서범주는 **연민과 공포(두려움) 사이의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간첩영화와 탈북자영화에서 공통**되게 등장한다.

<쉬리> 이후 북한 간첩은 남한의 비밀요원보다 항상 더 매력적이고, 민첩하고, 유능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들의 카리스마와 전투능력은 관객의 감탄을 자아내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근심을 자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버림’ 받을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남과 북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이 고독한 간첩의 불안과 두려움은 관객의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탈북자영화에서도 양가적인 정서가 발견된다. 목숨을 걸고 온갖 고초 끝에 남한에 도착한 탈북자는 종종 실업과 빈곤에 고통 받는 사회 부적응자로 재현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자로 그려진다. 한국사회에서 느닷없이 하층민으로 편입된 탈북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좌절이 관객에게 안타까움과 연민을 불러일으킨다면, 한국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내몰리면서 범죄의 세계로 편입된 탈북자의 모습은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네티즌 영화평에서도 확인되는데, 탈북자가 사회부적응자로 등장하는 탈북멜로드라마와 탈북독립영화에 대해서는 답답함/연민이, 탈북자가 범법자로 나오는 탈북액션영화에 대해서는 미움/분노/원망과 더불어 불안/연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한다.

(4) 사적 교류에 대한 기대와 공적 협력에 대한 회의

2000년대 분단영화들이 남북교류와 공조에 대한 기대와 회의 사이를 오간다. 이것은 남북 간의 교류에 대한 상상계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분단영화에서 성공적인 남북교류는 대개 개인적인 친교의 수준에서 발생한다. 전쟁영화에서 남북한 병사들 간의 우정이나, 민간인 마을에서 남북한군의 공동생활, 간첩영화에서 간첩과 국정원직원의 사랑/형제애, 이산코미디에서 땅굴을 통한 이산가족 재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교류는 빈번히 좌절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데, 이는 분단체제의 냉엄함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당국자 간에 진행되는 평화와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노력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도 특징적이다.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토 확보를 위한 전투에 내몰리고, 남북한 간의 해빙무드로 간첩은 곤경에 빠진다.

3) 분단영화의 지배적 정서구조

이상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분단영화에서 드러나는 지배적인 정서구조는 **체제에 대한 불신과 일상(생활)중심의 소시민 정서**이다. 반공영화를 가득 채웠던 냉전적 반공정서와 1990년대 분단영화의 중압적인 역사적 소명의식은 2000년대 분단영화에서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 영화는 이념대립에 대한 반감과 기존질서 전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감각을 반영한다. 이념과 체제는 가족과 일상으로 대체된다. 분단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자유주의 이념을 지키는 것도,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남북한 병사든, 간첩이든 주인공은 모두 **일상적 생존과 개인적인 애착의 대상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며, 삶의 풍요로움과 기쁨, 즐거움은 모두 이러한 사적 영역에 귀속된다.

이는 분단영화에 대한 네티즌 영화평 코퍼스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정서 패턴과도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2000년대의 분단영화에서 코미디와 액션의 요소가 지배적인 관습으로 자리 잡으면서, 분단영화에 대한 네티즌 영화평 코퍼스는 ‘재미’와 ‘웃음’이 지배적인 정서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코퍼스 분석은 **분단영화에 대한 지배적인 정서가 여전히 ‘슬픔’**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장 성공적인 분단영화들이 코미디의 요소를 도입했으면서도 비극적으로 끝나는 영화들이라는 데서도 확인된다. 전쟁 중의 남북한 병사들 간의 우정, 간첩과 국정원 요원간의 사랑은 빈번히 좌절되고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 이러한 슬픔은 한국전쟁 및 이념과 체제에 의해 희생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서이다. 반면에 영화의 희극적 요소와 **‘웃음’은 남북 병사들 간의 소소한 교류나,**

국정원요원과 간첩 사이의 가장으로서의 공감대에 기반을 둔 우정에 주로 배치된다. 이는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공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회의를 표시하며 오히려 개인들 간의 사적인 친교에 대해 희망을 표시하는 이중적 정서와도 연결된다. 이는 **공적인 체제에 대한 불신과 사적인 영역을 중시하는 소시민 정서의 교차** 속에서 생성된 것이다. 2000년대 분단영화에서 남한군과 북한군, 군인과 민간인, 간첩과 국정원 요원, 이산가족과 탈북자의 재현은 남북 어느 쪽이든 이념과 체제의 논리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일상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며, 개인의 생명, 가족, 우정, 생업, 놀이와 친교 등의 일상적 가치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함의

윌리엄즈에 따르면 대중예술은 기존의 정서구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정서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의 변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이것이 분단영화가 드러내는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중요한 이유이다.

2000년대 분단영화의 네티즌 영화평에서 나타난 ‘통일’ 단어의 사용방식은 이런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분단영화의 통일관을 언급한 관객의 대다수는 분단영화가 통일을 긍정적으로 다룬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영화를 본 뒤 통일에 부정적인 자신의 태도를 반성했다는 관객도 소수 존재했다.

반면, 통일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듯하다. 여전히 많은 관객들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수긍하지만 그 비율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감소되었다. 또한 관객들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통일에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통일에 무관심하다고 여기는 관객들이 많았다. 게다가 통일에 긍정적인 관객들이 주로 북한 동포에 대한 연민이나 인간적인 교류, 민족으로서의 동질감,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등 정서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일에 부정적인 관객들은 북한의 호전성, 경제적 부담, 남북한 정부의 정책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관객들의 진술은 2000년대 분단영화의 ‘탈분단 정서’와 조응한다. 분단영화는 분단체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욕망과 의식을 특징적으로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지향점은 제시되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1999년 잘 만든 액션 블록버스터로 인식되었던 <쉬리>는 바로 이 탈분단 정서에 토대를 둔 2000년대 분단영화의 효시였다. 지난 10여 년간 분단영화는 이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평온한 일상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주인공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들의 시선과 경험을 통해 한국전쟁과 분단체제의 질곡을 조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영화적 상상계 역시 변형시켰다. 북한 병사와 간첩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아남으려 애쓰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 연인, 부모로 재조명되었고, 이것은 다시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 그들과 우리가 만나고 친구가 되는 것을 꿈꿀 수 있게 만들었다.

수작으로 평가받았던 <공동경비구역, JSA>나, <웰컴 투 동막골>, <의형제>는 모두 분단체제 한복판에 만남과 교류의 소망을 환상적으로 구현한 뒤 그것이 파국적인 결말로 치닫는 과정을 보여준 영화들이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분단체제의 현존을 환기시키면서도 우리의 시대적 정서를 반영함으로써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교류를 개인들 간의 우호적인 만남으로 환원시키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남북한 간의 이념 갈등과 체제 대립 같은 현실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교섭하기보다는 외면하고 회피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이념과 체제의 문제를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나와 가족, 일상에 몰두하는 ‘소시민 정서’가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분단영화의 상상계 속에 만남 이후의 삶에 대한 전망이 부재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문제이다. 여기서 탈북자 영화의 비극성은 매우 시사적이다. 탈북자에 대한 재현과 정서는 통일 이후 한국 사회가 평범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태도와 관점을 보여줄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분단영화에 필요한 것은 공존의 전망을 다루고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영화적 상상력이다.

참고문헌

- Easthope, A. (1900). *What a man's gotta do: the masculine myth in popular culture*. London: Routledge.
- Filmer, P.(2003). Structures of feeling and socio-cultural formations: The Significance of Literature and Experience to Raymond Williams's Sociology of Cultur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2): 199~219.
- Freud, S. (1917/2005). Mourning and melancholia. in Freud, S. Whiteside, S. (trans.) (2005). *On murder, mourning and melancholia*. London, England: Penguin Books.
- Grossberg, L.(2009). Postmodernity and affect: All dressed up with no place to go. *Emotions: A cultural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 Harding, J. & Pribram, E. D. (2002). The power of feeling: Locating emotions in cultur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5(4): 4078~426.
- Harding, J. & Pribram, D.(2004). Losing our cool? Following Williams and Grossberg on emotions. *Cultural Studies*. 18(6): 863~883.
- Jeffords, S. (1994). *Hard bodies: Hollywood masculinity in the Reagan era*.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Koteyko, N.(2010). Mining the internet for linguistic and social data: An analysis of 'carbon compounds' in Web feeds. *Discourse & Society*, 21(6): 655~674.
- Kracauer, S. (1947/2004). From Caligari to Hitler: A Psychological History of the German Film.
- Matthews, S.(2001). Change and theory in Raymond Williams's structure of feeling. *Pretexts: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10(2): 179~194.
- Neale, S.(1991). Aspects of ideology and narrative form in the American war film. *Screen* 32(1): 35~57.
- Neale, S.(2000) *Genre and hollywood*. London: Routledge.
- Pribram, E.D.(2009). Cold comfort: Emotions, television detection dramas, and cold case. *Emotions: A cultural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 Scannell, P. (1996). *Radio, television and modern life: A phenomenological approach*. Oxford: Blackwell.
- Simpson, D. (1992). Feeling for structures, voicing "history". *Social Text* 30: 9~26.
- Taylor, C. (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L.(2009). Melodrama revisited. *Emotions: A cultural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 Williams, R.(1961) *The long revolution*. 성은애 역(2007).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 Williams, R.(1977).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R.(1979). Politics and letters: Interviews with new left review. London: NLB.

- 강미자(2004).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이 된 대중 영화: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5(1): 257~275.
- 강성률(2004). 우리에게 분단영화란 무엇인가. 『리토피아』 15호.
- 강성률(2006). <피아골>과 <남부군>: 빨치산에 대한 극단적인 두 시선. 『내일을 여는 역사』 26호.
- 강성률(2008). 『한국영화, 중독과 해독: 영화평론가 강성률의 1999~2008 한국영화 진단』. 리토피아.
- 강성률(2010). 『영화는 역사다: 한국영화로 탐험하는 근현대사』. 살림터.
- 강웅식(2008). 반공주의와 문학 장의 형성. 『반공주의와 한국 문학의 근대적 동학 1』. 한울아카데미.

- 강유정(2005). 전쟁이라는 소재와 낭만적 이상화. 『동양정치사상사』 5(2): 155~170.
- 강진웅 (2011)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거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45(1): 191~227.
- 고민수 (2000). 감정어휘 평가사전에 기반한 영화평 리뷰 자동 분류 및 등급화 시스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광정래 · 이준웅(2009). 김대중 · 노무현 정부시기 탈북자 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한국언론학보』 53(6): 196~217.
- 광현자(2009). 『조폭영화를 통해 본 민주화 20년 한국 사회 심리의 한 단면: <게임의 법칙>에서 <두사부일체>까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은선(2001). '한국형 블록버스터'에서의 민족주의와 젠더: <쉬리>와 <공동경비구역 JSA>를 중심으로. 『여/성이론』 4: 98~117.
- 권은선(2002). '한국형 블록버스터'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민족주의.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편, 『공동경비구역 JSA』. 삼인.
- 권혁남(1999).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 체계와 정치 사회적 기능. 당대비평, 8: 46~78.
- 김경현(2002). "남자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쉬리>와 <공동경비구역 JSA>의 일탈자, 국가안보, 블록버스터의 미학.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편, 『공동경비구역 JSA』. 삼인
- 김광역(1999). 문화소통과 문화통합: 통일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이정복 외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145~174.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권호(2006). 한국전쟁영화의 발전과 특징: 한국전쟁에서 베트남 전쟁까지. 『지방사와 지방문화』 9(2): 77~108.
- 김귀옥(1999). 『월남인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귀옥(2000). 남북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교류와 통합방안 모색. 『KBS 통일방송 국제 심포지엄: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의 방송의 역할』 발제문.
- 김귀옥(2005). 탈냉전시대 이산가족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해법. 『통일문제연구』 43: 139~166.
- 김귀옥(2009). 글로벌 시대 한국 이산가족의 정체성과 새로운 가능성. 『사회와 역사』 제 81집: 131~168.
- 김동춘(1992/2008). 한국전쟁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 변동』. 풀빛.
- 김동춘(2011).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국가폭력의 행사와 법치의 한계. 『경제와 사회』 89호: 333~366.
- 김동춘(2012). '간첩 만들기'의 전쟁정치: 지배질서로서의 유신체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1: 146~174.
- 김동춘(2012).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일상화된 내전과 냉전, 식민주의의 지속으로서 분단의 폭력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연구단 주최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분단: 이론과 실제』 발표자료집.
- 김득중(2009).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 김미현 편(2006). 『한국 영화사-개화기(改化期)에서 개화기(改花期)까지』.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병로 · 김병조 · 박명규 · 서호철 · 은기수 · 정은미(2007). 『200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 김보경(2007). 한국분단영화에 나타난 분단의 의미변화 연구: 1990년대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국(2012).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간첩 담론의 양가성. 『역사연구』 22: 105~138.
- 김봉석(2003). <이중간첩>-2000년대에 만나는 1980년대 첩보전쟁. 『민족21』 24: 150~151.
- 김상준(2007). 『남북한 방송보도에 관한 비교연구: 언어 표현과 문체적 특성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 김새로미(2007). 『남북 화해협력 시대 분단영화에 관한 연구: <쉬리>, <웰컴투 동막골>, <태풍>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김성곤(2004). 통일에 대한 염원과 잃어버린 정체성 추구. 『영화 속의 문화』. 237~143. 서울대 출판부.
- 김소동(1976). 반공영화의 소재, 표현, 그리고 대중성: 선전강조의 탈피와 제작방향을 위하여. 『영화』 17: 21~25.
- 김수용(2005). 『나의 사랑 씨네마: 김수용 감독의 한국영화 이야기』. 씨네21.

- 김수현(2005). 『한국분단영화의 이데올로기의 변천: <쉬리>이후 한국분단영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진(2006). 『현대 한국영화의 작가적 경향에 대하여: 장르의 변용성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김영하(2006). 『빛의 제국』, 문학동네.
- 김은주(2007). 『<쉬리> 이후 등장한 분단영화의 장르 파생에 대한 산업적 요인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의수(1999). 『한국 분단영화에 관한 연구: 분단영화의 장르적 정의와 진화과정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훈 · 조희윤 (2003). 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반공규율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희윤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 책.
- 김종원(1967). 영상과 반공론: 한국의 반공영화. 『자유공론』 16호: 196~201.
- 김종원(1975/1985). 반공영화론-분단의 소재와 표현의 한계. 『영상시대의 우화: 김종원 영화평론집』, 제3기획.
- 김종원(1986). 1986년 한국영화 결산: 토속 성애영화의 성행과 반공영화에 대한 외면. 『예술과 비평』 가을호.
- 김차호(2002). 『한국 반공영화 연구: 반공 이데올로기의 의미 체계와 사회문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김학성(2000). 분단의 문화 현실과 통일담론의 재구성. 조한혜정 · 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공존을 위한 모색』의 서평. 통일정책연구 9권 1호. 삼인.
- 김형석(2005) 영화 읽기: <간 큰 가족>: '통일 코미디'가 보여주는 분단의 비극, 『민족 21』, 152~153.
- 김화(2003). 『새로 쓴 한국영화전사』, 다인미디어.
- 남동철(1999). 좌충우돌 서울 오디세이 <간첩 리철진>. 『씨네21』, 1999.06.01.
- 남동철(2005). <웰컴 투 동막골>의 시대정신. 『씨네21』, 20005.11.30.
- 남인숙
- 노재승(1987). 반공영화의 현실 좌표와 기대. 『영화』 111: 44~47.
- 문재철(2002). 새로운 방식으로 분단을 상상하기.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편, 『공동경비구역 JSA』, 삼인.
- 문재철(2004). 한국 영화에서 작가(주)의 담론의 역할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 24: 143~165.
- 박명규(2012).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포스트-김정일 시대의 통일평화 구상』, 창작과 비평.
- 박명규 이상신(2011). 현상과 이미지: 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통일과 평화』 3집: 129~167.
- 박명규 · 김병로 · 강원택 · 정은미 · 이상신 · 박정란(2011). 『2011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박명림(1999).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통일』, 세종연구소.
- 박명진(1991). 북한의 영화. 『북한언론의 특성에 관한 내용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 박명진(1994). 『남북한 방송교류를 위한 접근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 박용규(1998). 한국언론의 북한보도 현황과 통일지향성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논문집』 19집: 183~204.
- 박우성(2008). 『선전매체로서의 영화가 반공담론을 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 1970년대 임권택의 반공영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연(2005). 영화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기까지의 영화정책(1961~1984년).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 백문임(2002). '탈이념'의 정치학—<쉬리>, <간첩 리철진>, <공동경비구역 JSA>.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편, 『공동경비구역 JSA』, 삼인.
- 변인식(2003). 정전 50년-불타는 한반도의 탱크와 이데올로기: 한국 전쟁영화론. 『영화평론』 15.
- 변재란(2001). 남한영화에 나타난 북한에 대한 이해: <쉬리> <간첩 리철진> <공동경비구역 JSA>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16: 241~276.
- 변재란(2002). 지뢰밭 위에서의 위험한 놀이—<쉬리>, <간첩 리철진>, <공동경비구역 JSA>.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편, 『공동경비구역 JSA』, 삼인.
- 사카모토 리에(2007). 『<쉬리>이후 한국 분단영화의 장르적 진화에 관한 연구: <공동경비구역 JSA>와 <웰컴 투 동막골>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은애(2000). 내 마음 속의 근가분계선: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창작과 비평』 28(4): 437~440.

- 손은경(2006).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분단영화의 지배적 재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송재복(2010). 2000년대 한국분단영화에 나타난 접경 공간 재현 연구: <공동경비구역 JSA>와 <만남의 광장>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 송현호(2006). 『한국영화 속에 그려진 남북관계 표상의 변화와 그 이념적 차이에 관한 연구: <태백산맥>, <쉬리>, <웰컴투 동막골>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병섭(2006). 『안병섭 영화평론집: 영화적 현실·상상적 현실』. 원민.
- 안승범(2010). 소설 원작 반공영화의 주제의식 영상화 양상 일고찰: 유현목의 <불꽃>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7집, 357~382.
- 안지혜(2007). 『시민사회의 성장과 한국영화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동진(2000). 피플 인터뷰: B무비? 천만에, 웰 메이드 무비다. 『필름 2.0』, 2000.04.17.
- 오동진·이지훈(2001). 피플 인터뷰: 베를린 영화제에서 만남 주연배우 송강호. 『필름 2.0』, 2001.02.20.
- 오수성(1993). 적색공포(red complex)의 본질과 심리적 작용.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발표문.
- 오승욱(2003). 『한국 액션영화』. 살림.
- 오승현(2006). 『대중문화의 판타지적 재현이 역사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오영숙(2009). 1960년대 첩보액션영화와 반공주의. 『대중서사연구』 22: 39~69.
- 오영숙(2012). 탈북의 영화적 표상과 공간 상상. 『영화연구』 51: 185~212.
- 요모타 이누히코(2002). 분단의 분절.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편, 『공동경비구역 JSA』. 삼인.
- 우찬제(2006). [리뷰] 김영하의 <빛의 제국>: 접속시대의 그물과 유령의 존재론. 『ARKO 문화예술』 323: 192~197.
- 유현미(1996). 『태백산맥과 반공이데올로기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석민(2009). 『다매체·다채널 시대 방송 기본이념으로서 '통일'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윤인진(2009). 이산가족 정체성의 세대별 비교와 결정요인 연구. 『아세아연구』 52(1): 178~204.
- 은기수(2011). 통일과 북한에 관한 사회조사의 동향과 실태. 『통일과 평화』 2: 35~75.
- 이경화(1993). 『남북한 전쟁영화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봉래(1976). 반공영화의 시대적 사명: 영화의 반공성은 오직 진실의 공감을 토대로 지향. 『영화』 17: 26~29.
- 이봉범(2009). 1950년대 문화정책과 영화 검열. 『한국문학연구』 37: 409~467.
- 이상길(2005). 1990년대 한국 영화장르의 문화적 정당화 과정 연구: 영화장의 구조변동과 영화 저널리즘의 역할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3(2): 63~116.
- 이성욱(1999). 내 마음의 '간첩': 김수임, 이수근, 리철진, 쉬리 그리고 기타 간첩들. 『문화과학』 19: 296~311.
- 이순진(2003). 50년대 공산주의자의 재현과 냉전의식. 김소연 외 『매혹과 혼돈의 시대: 50년대의 한국영화』, 소도.
- 이신화 (2010). 동북아 주요국가의 탈북자 정책: 재외 탈북자 문제와 대량 탈북 가능성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 53권 3호, 139~168.
- 이영일(1969/2004). 『한국영화전사』. 도서출판 소도.
- 이영일(1984). 분단 비극 40년 영상증언 한 한국영화. 『월간 북한』 15: 106~114.
- 이오현(2002). 북한 핵문제에 대한 보도태도. 『언론과학연구』 2(3): 185~212.
- 이정우(1999). [시사초점] 영화 <쉬리>에 나타난 남북한관계의 인식: 영화 속에서도 끝내 하나되지 못한 남북의 현실. 『통일한국』 4월호: 83~85.
- 이준서(2006). 『'통일 이후 통일과정' 으로서의 독일 통일영화』. 집문당.
- 이준웅(2000). 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북한관련 정보추구와 통일에 대한 해석적 프레임이 통일 정책에 대한 여론에 미치는 영향. 『방송통신연구』 51: 223~253.

- 이준웅(2004a).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여론의 이중성: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 『한국언론정보학보』 26: 291~326.
- 이준웅(2004b). 언론 매체 이용 및 해석적 틀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48(10): 28~56.
- 이준웅 · 송현주 · 나은경 · 김현석(2008). 정서 단어 분류를 통한 정서의 구성차원 및 위계적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1), 85~116.
- 이지훈(2000). 해방된 연출감각은 보이지 않는 춤을 춘다. 『필름 2.0』, 2000.08.31.
- 임영(1976). 한국 반공영화의 허점: 반공영화와 그 표현의 한계성. 『영화』 17: 30~32.
- 임종명(2011). 해방 공간의 스파이 이야기와 정치적 함의. 『역사학연구』 41: 127~160.
- 임종명(2012). 초기 대한민국제(製) 간첩 이야기의 서사와 흥미성: 『한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국제간첩사건』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22: 11~57.
- 전갑생(2012). 한국전쟁기 간첩 담론 연구. 『역사연구』 22: 59~103.
- 전명혁(2012). 1960년대 '동백림 사건' 과 정치·사회적 담론의 변화. 『역사연구』 22: 139~168.
- 전효관(1998a).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접근의 의의와 전망.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8년 10월호 55~65.
- 전효관(1998b).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 언어: 통일담론과 북한학이 재현하는 북한의 이미지. 『통일연구』 2권 2호, 43-71.
- 정기선(1998).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2: 427~448.
- 정성일(1999). <수리> 열풍을 둘러싼 집단 최면. 『월간말』 154: 230~231.
- 정성일(2000). 맹렬하게 통일을 다그치는 이 순진한 전쟁영화 <공동경비구역>. 『월간말』 172: 200~201.
- 정성일(2003). <이중간첩>. 『월간말』 201, 188~191.
- 정영권(2011). 『한국 반공영화의 제도화 연구 : 1949~1968 전쟁영화와의 접합과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태(1992). 일제말 미군정기 반공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비평』 16: 126~138.
- 정종화(2002). 『한국영화 성장기의 토대에 대한 연구—동란기 한국영화 제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태수(2009). 모든 것에 우선한 자본의 패권적 가치와 남북분단에 대한 새로운 인식—1998년에서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영화. 『디지털영상학술지』 6(1): 241~270.
- 조은(2006). 분단사회의 '국민되기'와 가족: 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의 구술 생애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1: 72~101.
- 조은(2008). 전쟁과 분단의 일상화와 기억의 정치: '월남' 가족과 '월북' 가족 자녀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7: 191~229.
- 조준형(2001a). 반공영화 소사. 『영상문화정보』 22: 29~34.
- 조준형(2001b). 한국반공영화의 진화와 그 조건. 차순하 외. 『근대의 풍경: 소품으로 본 한국영화사』, 소도.
- 조혜정(1996a). 북조선과 남한의 동질성과 이질성. 또하나의문화 편,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모습』. 또하나의 문화.
- 조혜정(1996b). 남북통일의 문화적 차원, '북조선'과 '남한'의 문화적 동질성, 이질성 논의와 민족주의·진보주의 담론. 송자·이영선 편, 『통일사회로 가는 길』. 오름.
- 조혜정(1997). 통일공간과 문화: 비판적 재해석. 『통일연구』 창간호, 69~87.
- 주성철(2000). 북한은 남한이 꾸는 꿈. 『키노』, 9월호.
- 최종훈(2012). 『은밀하게 위대하게』 1, 2권. 발해북스.
- 하워드 진(2006). 공산주의와 반공주의. 『오만한 제국』. 당대총서.
- 한홍구(2011). 한국현대사의 그늘: 남파공작과 비전향장기수. 『역사비평』 94호: 200~257.
- 호현찬(2003). 『한국영화 100년』. 문학사상사.
- 홍세화(1995).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창작과비평사.

Comparative Study on Cyber-Nationalism in China and Korea

Yi-Jong Suh (SNU)
Lei Tang (CASS)

목 차

- 1. 들어가는 말: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주의
- 2. 사이버민족주의와 중국과 한국 사례
- 3. 중국과 한국 사이버민족주의 발전과정
- 4.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사례
 - (1) : 영토문제
- 5.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 민족주의 사례
 - (2) : 고구려 역사문제
- 6. 사이버공간에서 소통적 민족주의 발전

1. 들어가는 말: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주의

- 인터넷의 사이버공간에서 공사적 여론은
- - 증가하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의해 현실공간 못지않게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다.
- - 자율적인 시민사회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더불어 발전되었다.
- - 게시판, 커뮤니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통매체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발전되고 다변화되고 있다.

- 인터넷의 사이버공간과 사이버 문화는
- -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서 비판적 이성적이다. (Oeffentlichkeit)
- - 사적인 대화와 감정적인 교감, 루머 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 그 성숙 정도는 해당 국가의 시민사회의 발전에 달려 있다.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
과 사이버 문화는

- 이상적으로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나 접근(참여)할 수 있는 **global public sphere**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언어사용에 의해 칸막이되어 있다. 중국어 사이버 공간, 한국어 사이버공간, 일본어 사이버공간 등 (중국어와 영어 사이버공간이 인터넷에서 가장 크다)

- 사이버공간에서 국제관계?
- - 칸막이된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이 없는 일방적 견해를 유포하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보다 더 악화된다.
- - 그러한 일방적 견해가 더 빠르게 더 대규모로 유포되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보다 더 악화된다.
- **Cyber-Nationalism is more sensitive than Real Nationalism.**

		네트워크 노트		중심성 지수		상호성
		참여자	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신문기사	미일전략	83	45	-	-	매우 낮음
	주교회의 결정	475	768	.003/.003	.005/.006	유의미함
	대주교 발언	349	598	.005/.005	.007/.013	유의미함
	이라크과병 (오)	60	88	.028/.028	.042/.049	유의미함
대문글	S/W기술자 위기	1118	1362	.001/.001	.015/.001	유의미함
	생명윤리중요	445	508	.003/.003	.044/.001	유의미함
주제있는 토론펠	악마게시판	118	1539	.089/.089	.129/.136	유의미함
	이라크과병 (한)	113	112	.009/.009	.019/.009	유의미함
	이공계 위기	326	319	.003/.003	.004/.003	유의미함
	민노당 게시판	210	0	-	-	거의 없음

- 동아시아에서 사이버 민족주의는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 -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 환경에서 많은 인터넷 이 용자로 인하여 더 빠른 속도로 광범하게 유포된다.
- - 한중일의 강한 민족의식과 그 정체성으로 인하 여 훨씬 더 급진화되고 있다.
- Cyber-Nationalism will be one of major problems to be solved for promoting East Asian peace and community in the near-future.

2. 사이버민족주의와 중국과 한국 사례

- 사이버민족주의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로서 2차적, 파생적 민족주의 연구임. 민족주의적 담론과 정체성이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에 의해 전달-유포-재생산되는 기제에 대한 연구임.
- -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주의적 담론과 정체성이 다양한 매체의 발달에 따라 규모와 속도 면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있음.
- - 인터넷의 글로벌 기술기반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사이버공간이 언어적으로 구획되어 일국내에서는 상대방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민족주의 강화현상을 낳고 있음.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주의 재생산 기제 연구

-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주의의 재생산 기제는 확산-논쟁 과정임.
-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유무선의 전투와 지속적인 진지 구축으로 나누어 살펴봄
- 기동전 - 게시판, 블로그
- 트위터(웨이보)
- 진지전 - 커뮤니티, 페이스북(싸이월드) 등

중국 민족주의의 주요 담론 유형

Main discourse types	Advocators and followers	Principle arguments
Official nationalism, Patriotism	government, state-owned intellectuals, communalty on the government's side	calling for the spirit of dedication, believing collective interest higher than individual interest, preaching a peaceful rise of China
Liberal nationalism	liberal intellectuals and their mass followers	calling for democracy on the domestic politics, while support government's hawkish foreign policy in a temperate and rational way
Cultural nationalism	cultural conservatives	belief in the traditional culture's uniqueness and its significance to contemporary society for resisting the invasion of Western culture
Anti-west nationalism / Radical nationalism	New Left intellectuals, reformist-Maoists in intellectuals and their mass followers	emphasizing national humiliation, opposing imperialist hegemony in any form and in any field, encouraging government's hawkish policy to any kind of provocation, often developing into a radical form

문제 중심 접근

- 민족주의 연구는 민족주의가 무엇이나 하는 개념규정에서부터 논쟁적임. 여기서는 문제 중심적 접근을 취함. 민족주의는 안과 밖의 경계짓기가 중요하며 그 경계짓기 작업의 핵심인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봄
- 1) 영토문제는 민족주의의 외연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임. 민족국가의 외연을 경계짓는 기초로서 민족적 정체성의 외연적 범주를 규정함. 민족국가의 성립과정 및 안정화과정에서 핵심적인 경계짓기 작업임.
- 중국과 한국은 민족국가 성립 및 발전의 기초가 되는 영토 문제의 불확정성 안고 있음.

한중 민족주의에서 영토문제 특성

중국의 영토문제

- 중국 영토는 역사적으로 통일국가 시절에도 경계가 다양하였음.
- 근대민족국가는 가장 넓은 통일국가로서 청조의 영토를 지향하고 있음.
- 대만과의 통일 문제, 티베트/신장/내몽고 등 소수민족 문제, 다오위다오/남중국해 등 연해 대륙붕 문제 등

한국의 영토문제

- 한국 영토는 역사적으로 변동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안정적
- 근대민족국가는 500년 역사를 가진 조선의 영토를 지향하고 있음.
- 남북한 통일문제, 간도 등 역사적 영토문제, 독도/남해 등 연해 대륙붕 문제 등

사이버민족주의와 역사문제

- 2) 역사문제는 민족주의의 내연을 경계짓는, 민족국가의 중요한 과제임
- - 민족국가의 외연인 영토문제가 확정되면 그 내연적 경계짓기 작업으로서 역사문제가 대두됨. 자신의 영토 안의 모든 인민들의 역사적 기원(origin)과 변화를 명시하여 민족적 정체성의 안정화를 꾀함.
- - 민족적 정체성은 역사적 틀 속에서 규정되는 문화적 내용을 지님. '국민 만들기' 작업은 다민족국가에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지향함.

한중 민족주의에서 역사문제 특수성

중국의 사례

-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의 지배와, 국가의 부침과 이합집산의 연속이었음.
- 근대민족국가는 천하주의를 포기하고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지향하고 있음.
- 왕조사를 넘어 인민 주체의 역사를 지향하여, 소수민족사를 인정하지만 중국 인민들을 지배한 과거 왕조는 모두 중국의 역사임.

한국의 사례

- 한국은 역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민족구성과 왕조사를 지님. (근대 이전 한민족 형성)
- 근대민족국가는 동아시아의 위계적 사대관계를 넘어 독립된 민족국가를 지향함.
- 한반도의 통일문제 이외에 만주 지역의 한민족의 다양한 역사에 대한 영유권 주장

3. 중국/한국 사이버민족주의 발전과정

-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발전과정은 복합적이다.
- - 중국과 한국의 인터넷 발전사에 기초함. 중국과 한국 모두 정보통신기술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구축하였음. 발전국가적 에토스에 기초
- - 1990년대 초부터 거부감 없이 국가적으로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지역, 계층, 세대별로 정보격차 또한 매우 큼.
- - 한국은 민주화과정에서 사이버공간의 정치/사회적 활동이 증가하여 정치적 동원력을 보인데 반해 중국은 사이버공간에의 정치적 활동을 감시/통제하여 비정치적 활동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음.

- 한국은 1995년 인터넷의 상용서비스 개시, 2000년 다음 카페가 100만개를 넘어 인터넷 열풍, 효순이/미순이 추모열풍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독도문제와 일본교과서, 동북공정, 한미FTA와 광우병 수입최고기 반대 촛불시위 등으로 확장
- 중국은 1994년 인터넷 상용서비스 개시, 인터넷 가입자 1억인 1999년 인도네시아/유고 사태 발생 집단항의 물결과 시위 조직. 2009년 인터넷 가입자 3억8,4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 3억3천만명이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2억3천만명이 검색엔진으로 검색, 2억2천만명이 개인블로그를 개설함.

Table 3 Internet users in China, 199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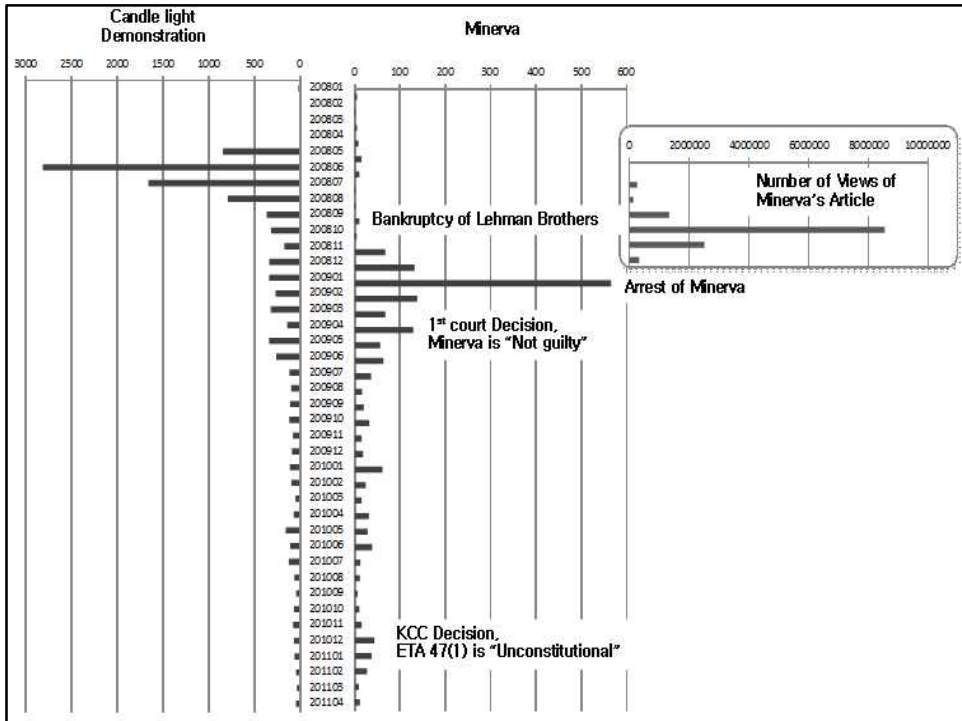
year	Internet users	Penetration rate (%)
1997	670,000	
1998	2,100,000	
1999	8,900,000	
2000	22,500,000	
2001	33,700,000	
2002	59,100,000	4.60
2003	79,500,000	6.20
2004	94,000,000	7.20
2005	111,000,000	8.50
2006	137,000,000	10.50
2007	210,000,000	16
2008	298,000,000	22.60
2009	384,000,000	28.90
2010	457,300,000	34.30

중국과 한국 사이버민족주의 발전사

- 1단계: 1999년 이전
 - 사이버민족주의 발아기
 - 인도네시아/유고 사태
- 2단계: 1999-2003 침묵기
- 3단계: 2003-2008 본격기
 - 신간센기술/난징학살 일본 항의/불매운동으로 사이버 민족주의 본격화
- 4단계: 2008년 이후
 - 티벳 3.14사건, 올림픽 송화 봉송 등 이슈의 다양화와 정치적 활용
- 1단계: 2000년 이전
 - 인터넷의 미발달과 민주적 소통공간의 확장 제약
- 2단계: 2000-2007 본격기
 - 효순이/미순이 사건, 독도 문제와 일본교과서, 인터넷의 정치화
- 3단계: 2008년 이후
 - 한미 FTA 반대 등으로 모바일을 통한 유동적 소통성/동원성 증가와 인터넷의 정치화 통제

중국 사이버민족주의의 5대 주요 사이트

Forum	Site address	Time of foundation	Primary political preferences or tendency
Qiangguo(Strong nation) Forum	http://bbs1.people.com.cn/	May 9, 1999	Leftism, nationalism,
Tiexue Forum	http://bbs.tiexue.net/	2011	Leftism, nationalism
Tianya Froum	http://www.tianya.cn/bbs/	March, 1999年	multiple political orientation, some sub-forums like Guantian chashe are with relatively strong liberalism-orientation
KDNET Club	http://club.kdnet.net/	2000	liberalism
ZhonghuaWanng Club	http://club.china.com/	2000	nationalism



4.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사례 (1) : 영토문제

- 영토문제는 사이버민족주의에서 가장 격렬하고 집단적 응집력이 강함.
- 하지만 한중 비교에서 영토문제는 아직 서로 상대로서 갈등대상이 아님.
- 진지전으로서 커뮤니티 사이트와 블로그를 살펴보고 실제 기동전(전투)가 이루어지는 게시판의 논쟁 구조를 살펴봄

독도와 다오위다오 문제 비교

다오위다오(센카쿠) 문제

-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유산, 대만 침략과 더불어 일본영토로 귀속
- 역사적으로 대만 영토에 속함
- 관련 역사자료 경쟁 있음.
- 2차대전 후 일본에 귀속, 일본의 실효적 지배 (개인 소유)
- 해양 및 천연자원에 대한 이해

독도 문제

-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유산, 일제침략과 더불어 1905년 독도를 일본영토로 귀속
-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에 속함
- 관련 역사자료 경쟁 치열함
- 2차 대전 후 한국에 귀속, 한국의 실효적 지배 (국가 소유)
- 해양 및 천연자원에 대한 이해

다오위다오 문제의 중국 인터넷 노출 변화 Google 검색을 통해본 노출정도 (2004-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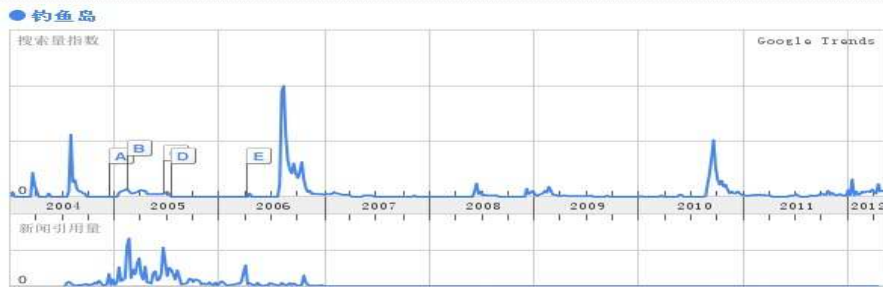


Table 4 Volumes of search results of some specific keywords and their combination

Keywords (in Chinese)	volume of search results in Google.cn	volume of search results in Baidu.com
钓鱼岛 (Diaoyu Island)	40,100,000	40,100,000
钓鱼岛 +战争 (zhanzheng, war)	9,350,000	3,370,000
钓鱼岛 +和平 (heping, peace)	5,110,000	3,050,000
钓鱼岛 +美国 (meiguo, Ameirica)	3,390,000	3,310,000
钓鱼岛 +真相 (zhenxiang, truth)	4,620,000	2,160,000
钓鱼岛 +主权 (zhuquan, sovereignty)	4,520,000	3,620,000
钓鱼岛 +爱国 (aiguo, loving one's country)	2,460,000	2,370,000
钓鱼岛 +中日友好 (zhongri youhao, Sino-Japanese friendship)	185,000	683,000

다오위다오 문제의 중국 인터넷 노출 정도

- 중국 검색사이트인 Baidu 노출 빈도 (2006-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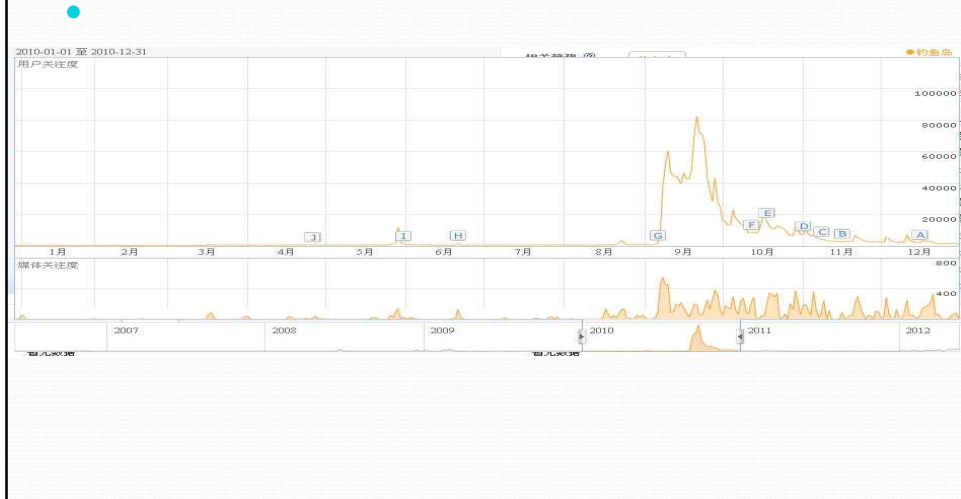


Baidu 200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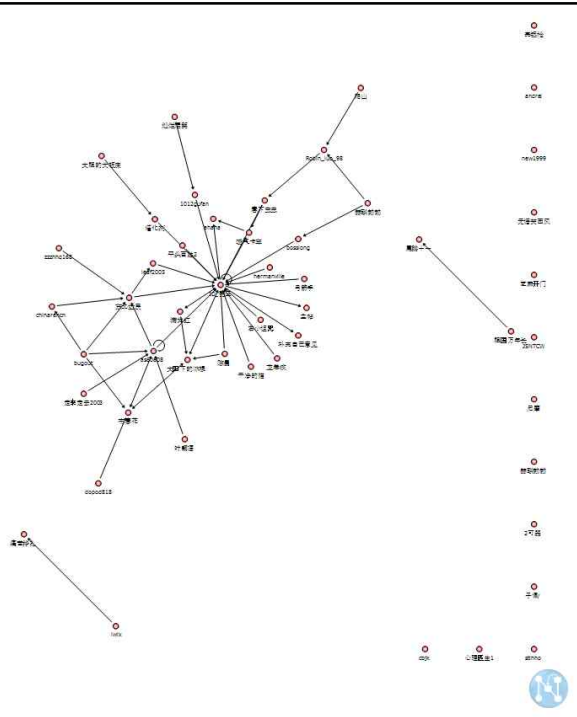


baidu 2010년



다오위다오논쟁

- 다른 이견 제시
- 집중 공격
- 그러나 근거 제시
- 이견 표출



- Territorial Issues are the most popular in cyberspace

2005년 싸이월드의 댓글 주제별 순위 (SK커뮤니케이션즈 2005.12.26) (싸이월드 1600만명이 투표한 분야별 순위에서)

- **1위 3/19일 “독도지킴이 서명동참” (83,527)**
- 2위 4/16일 “당신은 누구? 다섯 자로 답해” (56,568)
- **3위 3/1일 “3.1절 독도 태극기 달기” (19,698)**
- 4위 3/13일 “혈액형으로 보는 성격” (18,755)
- 5위 1/23일 “혼자 무인도에 간다면?” (16,301)

한국 독도문제 커뮤니티 주요사이트

	Member No.	Opening time	Time of the last posted	others
Internet terror union	4,444	2011.8.15	2012.1.25	
K.J.C. Anti-Historical distortion Committee	4,256	2002.8.28	2012.1.22	
2ch/Japan barbarism	3,215	2011.8.11	2012.1.21	
Dongbuka-yeoksa-jikim i	1,838	2007.10.9	2011.12.3	
Dokdo-sasudae	1,477	2000.6.5	2012.1.25	

- Case of the News that old Japanese map which was newly found out proved Dokdo being one of Korean territory.

일본이 새로 나온 고교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가운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뒤집는 일본의 고지도가 28일 국내에서 처음 공개됐다.

재단이 이날 최초 공개한 오노에이노스케(小野英之助)의 '대일본제국지도'(大日本國地圖, 1892년)는 보통학전서 제16편 '만국신지도(萬國新地圖)'에 수록된 일본전도로 일본 본토는 황색으로 채색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채색을 하지 않았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표시다.

또 고토 츠네타로(後藤常太郎)의 '대일본분현지도(大日本分縣地圖, 1895년)'는 시마네현 관내의 위치와 거리 등을 매우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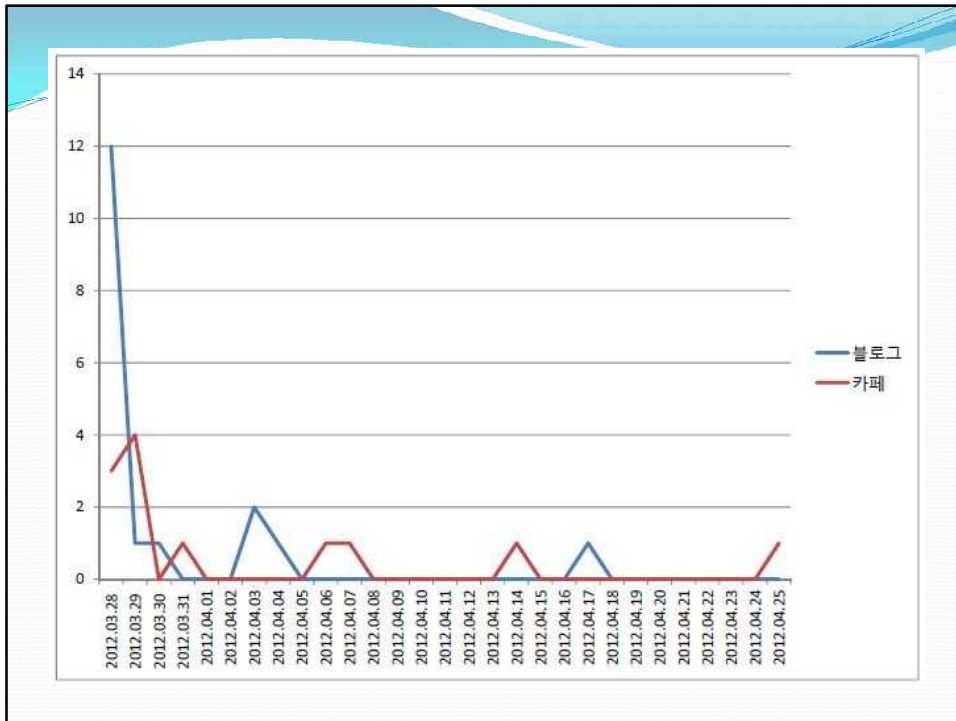
이는 현재 일본에서 발간되는 시마네현 지도나 일부 교과서의 지도에 독도가 포함된 것과 대비된다.

하마모토 이사오(濱本伊三郎)의 '극동일로청한사국대지도(極東日露清韓四國大地圖, 1904년)'는 우측 하단에는 조선신지도(朝鮮新地圖)를 부록으로 제시하여 조선을 더 자세하게 나타냈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와 동일한 연한 보라색으로 채색하였다.

- That news is in high speed disseminated into

네이버 블로그 검색	일본 고지도 관련 기자간담회 및 일본...	2012.03.28	blog.naver.com/correctasia/50137650034
	일본고지도 독도. 이지도를 보고도 일본은...	2012.03.28	cherish77.tistory.com/3566
	일본고지도에도 독도는 없었다...다 서 태어난...	2012.03.28	bookscovey.tistory.com/1990
	[독도24] 아무리 말뚝을 설치해도 일본의...	2012.03.28	blog.naver.com/keh0827/120156150508
	"독도는 한국땅" 日고지도 국내 첫 공개	2012.03.28	blog.daum.net/jh9719/6472
	18세기~20세기초 일본 고지도 -독도 한국 땅...	2012.03.28	blog.naver.com/saskian/40155576623
	독도는 우리땅! 일본 고지도 국내 공개!!!	2012.03.28	blog.naver.com/easy313/30134837720
	일본 고지도에도 표기된 있는 '독도'	2012.03.28	blog.naver.com/fivegomyeong/100154616402
	18세기~20세기초 일본 고지도 -독도 한국 땅...	2012.03.28	blog.naver.com/saskian/40155576623
	독도는 우리땅! 일본 고지도 국내 공개!!!	2012.03.28	blog.naver.com/easy313/30134837720
	일본 고지도에도 표기된 있는 '독도'	2012.03.28	blog.naver.com/fivegomyeong/100154616402
	'독도는 우리땅' 日 폼짝 못할 증거 - 한국...	2012.03.28	blog.daum.net/rain12/2016604
	[자작] 지도 : 독도	2012.03.29	blog.naver.com/kyudlee808/50137725878
	우상을 깨고 신화를 넘어 역사의 진실로...	2012.03.30	blog.naver.com/loveagaci/10135481620

네이버 카페 검색	"독도는 한국땅" 日고지도 공개	2012.03.28	cafe.naver.com/mysibena/859
	B조 김민경 기사 스크랩!!	2012.03.28	cafe.naver.com/songwondp/337
	역사 - 일본을 물어버릴 지도 3장	2012.03.29	cafe.naver.com/wgqumtle/19
	독도 아리랑 한글 지켜주세요.	2012.03.31	cafe.naver.com/welcomesaynara/377519



- Case of the News of opening to the public an old English map that today's Japanese sea was named as Sea of Corea

최근 미국 국무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는 9일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한 18세기 영국지도를 공개했다. 경북도가 계명대학교로부터 기증받은 이 고지도 사본에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한 동해 바다 명칭이 'SEA OF COREA'로 표기돼 있다. 이 지도는 1748년께 영국의 출판업자이면서 지도 제작의 선구자로 일컫는 토머스 제프리스(Thomas Jefferys, 1719~1771)에 의해 제작됐다.

- That news was rapidly disseminated into blogs and community sites.

네이버 블로그 검색	"동해, '한국해'로 표기된 18C...	2011.08.09	blog.naver.com/ceo009/10115531655
	청와장-동해를 한국해(Korean Sea)로	2011.08.10	blog.donga.com/sosickr/archives/376
	동해 표기한 18세기 영국 고지도 사본...	2011.08.10	blog.daum.net/siin0122/8745218
	경북도, '한국해' 표기 18C 아시아지도 최초 공개	2011.08.10	blog.naver.com/thumb_1/150115871389
	동해는 일본해가 아니라 조선해다...	2011.08.11	blog.daum.net/20011742/245
네이버 카페 검색	절대 동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2011.08.10	cafe.naver.com/fishingtour1/91...
다음 카페 검색	인터넷이 준.. 동해..자본주의 4.0. 할로와 아서.정울스...	2011.08.09	cafe.daum.net/jjek77/KdKF/...
	세계지도 1.5%만 '독도는 한국 땅' Q&A	2011.08.10	cafe.daum.net/kh24ok/9qji/4...
	"한국해" 표기된 고지도	2011.08.11	cafe.daum.net/unioncorea/7Q...

5.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사례 (2) : 역사문제

- 사이버민족주의의 발전에 따라 역사문제가 점차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음.
- 한중 비교에서 고구려의 역사문제는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갈등대상임.
- 한중간 사이버민족주의는 역사문제를 넘어 문화유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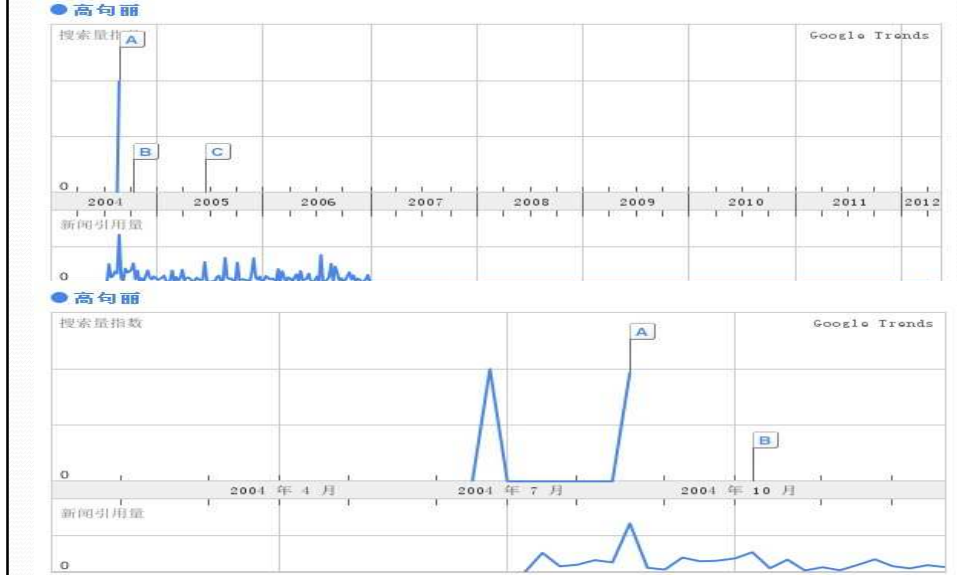
중국의 고구려사 인식

-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일국주의적 시각에서
- 고구려는 중국 내 변방의 지방정권이다.
-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서 중국 내 조선족과 만주족 등 소수민족의 역사다.
- 고구려 역사의 중국화는 북한에 대한 역사적 지배와 관련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영토적 관심과 직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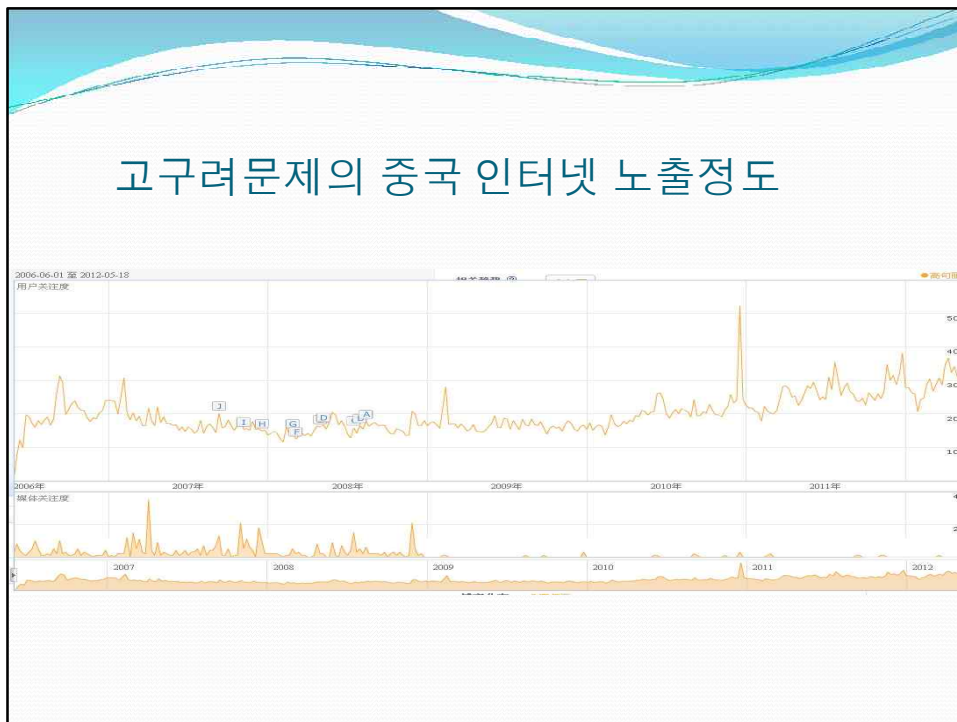
고구려 역사의 한중인식 비교

-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일국주의적 시각에서 중국 내 변방의 지방정권이다.
-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서 중국 내 조선족과 만주족 등 소수민족의 역사다.
- 고구려 역사의 중국화는 북한에 대한 역사적 지배와 관련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영토적 관심과 직결되어 있다.
- 고구려 역사는 한민족의 역사다. 일국주의적 시각에서 한민족을 이루는 3국의 하나다.
- 만주족이 피지배민으로 다수를 이루지만 지배계급으로서 한민족의 역사다.
- 고구려 역사의 정당화는 만주지역에 대한 역사적 지배와 연관되어 만주지역에 대한 영토적 관심과 직결되어 있다.

고구려 문제의 중국 매체 관심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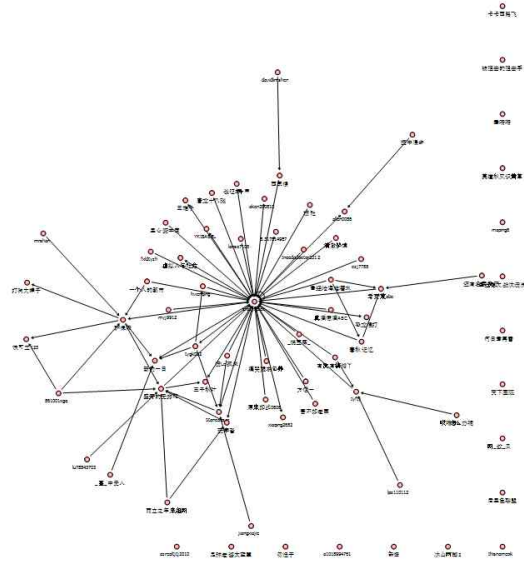
고구려문제의 중국 인터넷 노출정도



- 고구려역사논쟁
게시판 분석

● (Tianya포럼)

- 이견 제시와
- 집중 공격,
- 그러나 서로 근거
- 상이함



- Tianya포럼(www.tianya.cn)에서 ‘안산인’은 고구려의 한국민 정체성을 입증하는 여러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고구려와 발해가 단군과 치우대왕의 후신으로 한족의 역사일 수 없다고 주장. 대한족(大漢族)으로서 중국인은 혈연의식 없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주장을 비판하였다.
- - 이에 대해 강한 반론이 제기하였다.

- ‘crazyspice’는 이성적인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 1) 고구려 역사문제는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민족주의적 역사관념의 결과이다. 2) 현재 국민국가 영토 안에는 역사적으로 전혀 상이한 영토를 가진 많은 정치체제가 있었다. 3) 우리가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면, 현대민족 국가의 영토의 원리에 따라 고구려 역사는 중국과 한국에 모두 귀속된다.
- ‘sabaofu’, ‘tygkoo2’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crazyspice와 논쟁하였다. 역사의 공유는 현실적으로 타국의 내정간섭 문제로 귀결된다는 비판이다.

논쟁

- “crazyspice”: “You can never defeat me! Every word of mine bases on the fact. You just follow the government authorities. That is why we liberalist call you lackeys!”
- “sabaofu”: “ha-ha, you begin labeling yourself as member of Liberal. What is Liberal? You will be too powerful to defeat as you are a member of Liberal.”
- “crazyspice”: “I have ever pointed out that just genuine nationalism but narrow nationalism is the rival of liberalism...Goguryeo history dispute is a touchstone for distinguish the fake patriots and real liberalist. The former advocates anti- Korea or anti-America under pretenses made by false news, and bludgeons the liberalists.”
- “sabaofu”: “Goguryeo history dispute is also a touchstone for distinguish the Pan-Korean nationalist and narrow nationalist. There is somebody who pretends to be a rational man, but once involved into Goguryeo history dispute, his Korean identity features cannot be covered any longer.”

Historical issues are popular in Korean community sites

	Member No.	Opening time	Time of the last posted	Others
Samtaekuk	63,896	2004.2.28	2012.1.26	
Hanminjok-Cham-ye oksa	52,253	2005.1.2	2011.4.1	
K.C.J. Anti-historical distortion committee	4,256	2002.8.28	2012.1.22	
Hangyeore-Cham-ye oksa	1,318	2006.11.6	2012.1.22	
Dongbuka-yeoksa-ji kimi	1,838	2007.10.9	2011.12.3	
Hwandangogi & His tory	1,361	2001.11.15	201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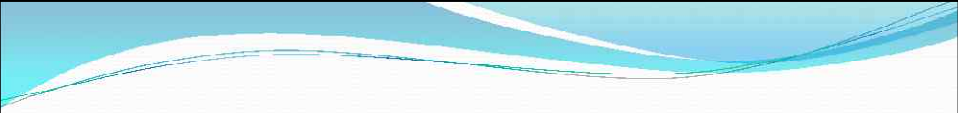
- Case of the News of Chinese drama “Changbaisan”

다큐멘터리 제목은 백두산을 뜻하는 '창바이산'으로 40분짜리 다큐물 6부작입니다. CCTV의 다큐멘터리 채널인 'CCTV 채널9'에서 방송했습니다. 이 다큐에서 CCTV는 발해를 세운 주체를 중국 동북지역에 살던 소수민족인 말갈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당나라 현종이 713년 발해에 사신을 보내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조영이 사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책봉을 받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	~ 中 "발해는 唐 지방정부" 왜곡[094...	2012.01.11	blog.daum.net/sngwh/15965422
	[11일(수) 조간] 전여욱 "박근혜 말에 심오한...	2012.01.11	newstice.tistory.com/1378
	관영방송 cctv 까지 나서 역사왜곡 발해사는...	2012.01.11	www.cyworld.com/lalalalah1/7106159
	발해 역사 왜곡	2012.01.11	dr_blackhole.blog.me/130128602570
	Netizen Photo News' 2012. 1. 12. (목)	2012.01.11	blog.daum.net/yimchoon/13385491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가	2012.01.12	blog.naver.com/20jy/148147541
	2012년 1월13일 Facebook 이야기	2012.01.13	blog.daum.net/eve_jang/10714969
	China set to distort Korean history via...	2012.02.08	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logId=6190
	[포토뉴스 포토캡컷]2012.1.12.	2012.03.08	junesmom.tistory.com/79
	산 높고 골 깊은 한중수교 20주년	2012.03.17	nt_park.blog.me/60158135254
	'동북공정', 그 역사왜곡 현장을 가다!	2012.04.16	if-blog.tistory.com/1697
심각한 국사 교육 실태, 초중생 6.25...	2012.04.26	blog.naver.com/geh9338/40157795115	
네이버 카페 검색	정말 중국은 미워할 수 밖에 없네요..	2012.01.11	cafe.naver.com/sam10/287683
다음 카페 검색	中 "발해는 唐 지방정부" 왜곡	2012.01.11	cafe.daum.net/subdued20club...
	전여욱 "박근혜, 대통령 될 수도 되어서도 안되는 후보"	2012.01.11	cafe.daum.net/Solhyanggi/90...
	포토뉴스	2012.01.12	cafe.daum.net/yongma45/9e0c...
	대한민국에 짐이 될 '중국' !!	2012.01.14	cafe.daum.net/kht3464/3rf9/...
	[한중20년, 중국을 다시 본대](4회)또, 고구려 탐욕...	2012.03.10	cafe.daum.net/togetherhands...
	신현기 동북공정Q&A	2012.04.13	cafe.daum.net/usw-cg/2HNx/9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2012.04.13	cafe.daum.net/usw-cg/2HN8/1...
	중국's 동북공정.	2012.04.13	cafe.daum.net/usw-cg/2HN8/1...
	'동북공정', 그 역사왜곡 현장을 가다!	2012.04.17	cafe.daum.net/antichinmi/1Y...

6. 사이버공간에서 소통적 민족주의의 발전

- - 인터넷의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주의 담론은 현실공간의 민족주의보다 훨씬 더 젊은이들의 언어적이고 감정적인 개입으로 증폭되는 경향이 있음. 동시에 사이버공간에서는 정보교환과 상호소통이 쉽기 때문에 자료와 근거, 관점에 대한 어느 정도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대화와 논의도 가능하다.
- - 현재 논의는 주로 전자적인 감성적인 휘둘림이 지배적이지만, 후자적인 이성적 논의도 보인다.
- - 사이버민족주의는 감성적인 측면 못지않게 민족주의적 폐쇄성을 극복한, 열린 민족주의 혹은 소통적 민족주의 (communicative nationalism)으로 나가갈 수 있다.

- 
- - 인터넷 주이용자층인 한중 젊은 세대들이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소통적 민족주의를 지향한다면, 민족주의적 편견과 갈등을 지향하고 21세기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가능성도 엿보임.
 - - 소통적 민족주의를 위해서는 이중언어 사용자 (bilingual actors)의 역할이 중요함.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사용자들이 한중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보다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북한의 수학 현황 분석

수학, 과학원 통보를 중심으로

김도한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연구 목적

북한의 수학 현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

수학은 **이념에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유로운 지식의 교류를 통한 동질성 추구하고 학술 교류가 가능

앞으로 다가 올 통일에 대비하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

특히 연구 분야와 학술 용어의 남북한 비교

연구 내용

- ▶ 북한의 수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 분야의 남북한 비교
- ▶ 남북한 수학 학술 용어 비교

연구분야

- ▶ 남한에서는 연구 분야가 순수수학에 치중
- ▶ 북한에서는 그 반대로 순수수학 분야의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고 **실생활 위주의 응용수학 분야에 편중**
- ▶ 북한의 연구 분야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한 평가는 북한 수학 연구의 실상을 파악하는 기본 자료로 큰 의의
- ▶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학술논문을 조사하여 남북한 연구분야 비교

학술용어

- ▶ 남한은 특별한 노력 없이 일본식 한자용어와 영어 용어를 그대로 수용해온 경향
- ▶ 북한에서는 한글화 작업에 많은 노력을 쏟아 일부 러시아식 학술용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학 용어들이 한글로 정착**
- ▶ 현재 우리 감각에는 상당히 생소하고 어색한 용어들도 많지만 열린 마음으로 좋은 한글 학술용어는 받아 들일 필요가 있음
- ▶ 2001-2010년 사이의 발표된 모든 북한 논문에 나온 수학 용어를 정리

연구 대상 논문

- ▶ 2001년과 2010년 사이 “**수학**”에 나온 논문과 “**과학원 통보**”에 나온 모든 수학 분야 논문을 대상
- ▶ 논문들은 “북한학술지 통합 데이터베이스” www.kpjournals.co.kr에 다 나와 있음

수학 분야의 남북 교류

- ▶ 1991년 **한민족 국제 과학기술 학술대회**
 - 장소: 연변대학
 - 때: 8월 20일-21일
 - 전체 참석자: 남한 100여명, 북한 45명, 중국 271명 등 1000여명 참석
- ▶ 북한에서는 비닐론을 발명한 이승기 박사의 업적으로 화학 연구에 관하여 자부심
- ▶ 함흥 화학연구소와 재미 동포 화학자 모임이 6.25이후 처음으로 함께 추진

1991년 한민족 국제 과학기술 학술대회

- ▶ 수학 분야 참석자:
 - 남한: 김종식(대한수학회장), 우무하(부회장), 김도한(총무), 기우항(경북대 SRC소장)
 - 미국: 채수봉
 - 북한: 조주경(김일성대학 수학부장), 박태제(김책대학 응용수학부장), 정재부(수학연구소 실장)
- ▶ 조주경: 선형확률 프로그램 조정론과 통계적 추정문제에로의 응용
- ▶ 박태제: 대역적 극값의 우연탐색방법에 관한 한가지 연구
- ▶ 정재부: 비선형 삼투문제의 수값풀이를 위한 여러그물법

1992년 폴란드 바나흐 센터 편미분방정식 특별년

- ▶ 한국: 김도한, 권길헌
- ▶ 일본: 가네코(도쿄대)
- ▶ 북한: 이재곤(과학원 원사), 최순봉(수학연구소 연구원), 고00

- ▶ 이재곤 교수는 경성사범 교수 재직 중 월북, 북한의 한글화 작업에 큰 역할, 가족은 남한에 있음

1994년 국제 순수 및 응용수학 학술회의

- ▶ 일시: 1994년 8월 23일-26일
- ▶ 장소: 중국 과학원(양로 주관)
- ▶ 참가자: 한국 36명, 미국 동포 수학자 3명, 중국 33명, 중국 동포수학자 3명, 필리핀 2명
- ▶ 북한: 방효숙(평성 수학연구소), 리봉희(유네스코 서기), 지도원

- ▶ 방효숙: 북한의 응용수학과 수학교육 및 마팅게일 이론
- ▶ 학술회의를 금강산과 제주도에서 개최하자고 제의

2002년 베이징 세계수학자대회

- ▶ 북한 수학자 20여명이 중국의 초청으로 참석
- ▶ 한국 수학자는 100여명 참석
- ▶ 연변 학술회의에 참가하였던 정재부 수학연구소장 참석, 또한 북한에서 가장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송창호 외 20명
- ▶ 동포수학자 한경청과 정재부를 통하여 남북한 수학자 모임을 가지려 했으나 실패하고 대회장 로비에서 간담회

2006년 마드리드 세계 수학자 대회

- ▶ 북한 정재부 수학연구소장과 발표자 수학연구소 연구원 김두진 참석
- ▶ 한국 100여명 참석
- ▶ 김두진 발표에 많은 남한 수학자 참석
- ▶ 중국수학회장 란웬과 국제수학연맹 부회장인 마지밍의 도움으로 남북수학자 모임을 가지려 했으나 역시 성사되지 않고 대화만 나눔
- ▶ 국제수학자 연맹에 한국보다 70년대 말 북한이 먼저 가입했으나 현재는 1등급 회비도 20년 가까이 내지 못해 자격 박탈

2007년 평양 민족화학학술회의

- ▶ 일시: 2007년 5월 7일-9일
- ▶ 장소: 양강도 호텔
- ▶ 2008년에는 과총에서 수학, IT, BT, 해양 분야 학술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 중이었으나 금강산 사건으로 무기 연기

2012년 일본 조선대학 방문

- ▶ 일시: 2012년 7월 31일
- ▶ 김희남 이공학부장 직접 e-mail로 접촉하여 방문
- ▶ 일본에서도 남북 교류는 3, 4년 끊김
- ▶ 2011년 조선대 55주년 기념식에 박찬모 교수가 참석 (미국 시민)
- ▶ 김희남 학부장이 최근에 한국인으로는 제가 참석한 것이 유일하다고 함

조선대 학술회의 및 간담회

- ▶ 송화헌: “의리만 공간에서의 고유 d라선과 외적구면에 관하여”
- ▶ 김도한: “Fourier analysis on hyperfunctions and applications”
- ▶ 간담회:
 - 조선대 교수들도 한국 정치에 굉장한 관심, 특히 대통령 선거
 - 모든 조선대 교수들이 2014년 서울 세계수학자대회에 관심이 많고 참석하기를 바람

북한 논문 분석

- ▶ 북한의 수학 분야 학술지는 “수학”과 “과학원통보”
- ▶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논문을 대상
- ▶ “수학” 756편, “과학원통보” 수학 분야 472편
- ▶ 수학 분류는 일반적으로 넓게
 - 1.대수학
 - 2.해석학
 - 3.기하학
 - 4.위상수학
 - 5.응용수학
 - 6.확률 및 통계 로 분류
- ▶ 미국수학회와 Zentralblatt에서는 MSC(Mathematics Subjects Classification)으로 더 세밀하게 분류.
- ▶ 또한 연도별 참고문헌을 북한, 구미,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 나누어 연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00 General	31 Potential theory	60 Probability theory and stochastic processes
01 History and biography	32 Several complex variables and analytic spaces	62 Statistics
03 Mathematical logic and foundations	33 Special functions	65 Numerical analysis
05 Combinatorics	34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68 Computer science
06 Order, lattices, ordered algebraic structures	35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70 Mechanics of particles and systems
08 General algebraic systems	37 Dynamical systems and ergodic theory	74 Mechanics of deformable solids
11 Number theory	39 Difference and functional equations	76 Fluid mechanics
12 Field theory and polynomials	40 Sequences, series, summability	78 Optics, electromagnetic theory
13 Commutative algebra	41 Approximations and expansions	80 Classical thermodynamics, heat transfer
14 Algebraic geometry	42 Harmonic analysis on Euclidean spaces	81 Quantum theory
15 Linear and multilinear algebra; matrix theory	43 Abstract harmonic analysis	82 Statistical mechanics, structure of matter
16 Associative rings and algebras	44 Integral transforms, operational calculus	83 Relativity and gravitational theory
17 Nonassociative rings and algebras	45 Integral equations	85 Astronomy and astrophysics
18 Category theory, homological algebra	46 Functional analysis	86 Geophysics
19 Ktheory	47 Operator theory	90 Operations research, mathematical programming
20 Group theory and generalizations	49 Calculus of variations and optimal control; optimization	91 Game theory, economic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 Topological groups, Lie groups	51 Geometry	92 Biology and other natural sciences
26 Real functions	52 Convex and discrete geometry	93 Systems theory, control
28 Measure and integration	53 Differential geometry	94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ircuits
30 Functions of a complex variable	54 General topology	97 Mathematical education
	55 Algebraic topology	
	57 Manifolds and cell complexes	
	58 Global analysis, analysis on manifolds	

한글 학술용어

- ▶ 북한의 학술 연구는 후진성을 탈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한글화 작업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와 남한의 수학 용어 한글화 작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 약간 생경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도입할 필요
- ▶ 지난 10년간 수학과 과학원통보에 게재된 논문에 나온 모든 용어를 정리

인상적인 예

- ▶ 소수-->씨수
 - ▶ 이산-->띠엄(띄엄띄엄)
 - ▶ 배반사건-->등진사건
 - ▶ 데이터 프로세스-->자료다루기
 - ▶ 다항식-->여러마디식
 - ▶ 단진동-->홀떨기
 - ▶ 지수-->어깨수
- ▶ 북한에서는 급수(series)를 합열이라고 함
- ▶ 급수라고 하면 학생들이 처음에 접했을 때 수열의 합이라는 개념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 반면, 합열이라고 하면 보는 즉시 수열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러시아의 영향

- ▶ 러시아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 미분작용소는 미분오빠라또르, 벡터는 벡또르 등
 - ▶ 수학의 가장 기본 용어인 compact를 80년대에는 러시아의 영향으로 콤팩뜨 라고 썼는데 최근에 이 용어를 포함하여 기본 용어들을 최근에 어떻게 한글화 하였나 연구하려고 함
- ▶ 이러한 작업은 남북한 수학용어집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남북한 수학용어 통일 작업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수학”

- ▶ 저자 목록(가나다 순서)
- ▶ 저자 (논문 수 순서)
- ▶ 저자 수

- ▶ 넓은 분류에 의한 분류
- ▶ MSC 분류에 의한 분류

- ▶ 연도별 논문 인용 현황

“과학원 통보”

- ▶ 저자 목록(가나다 순서)
- ▶ 저자 (논문 수 순서)
- ▶ 저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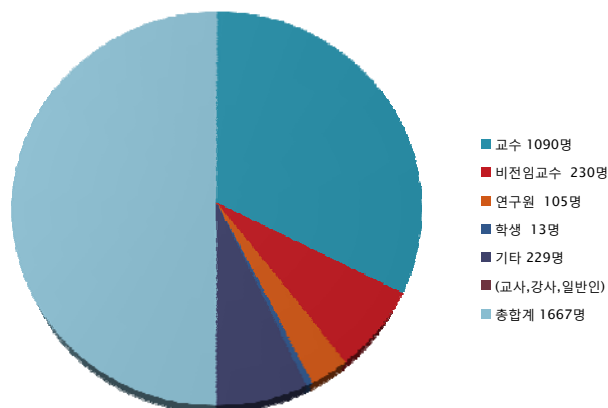
- ▶ 넓은 분류에 의한 분류
- ▶ MSC 분류에 의한 분류

- ▶ 연도별 논문 인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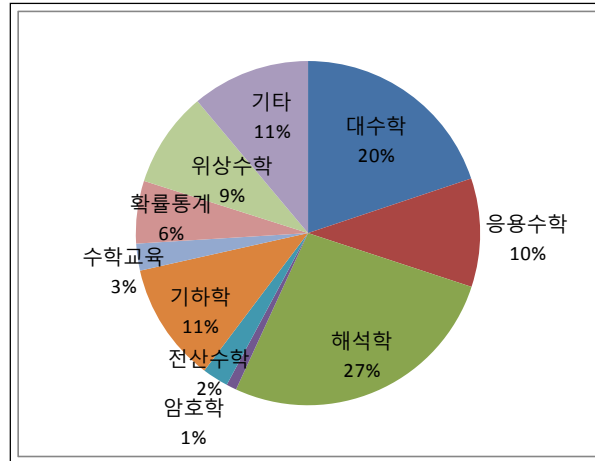
통합(수학 + 과학원통보)

- ▶ 저자 목록(가나다 순서)
- ▶ 저자 (논문 수 순서)
- ▶ 넓은 분류에 의한 분류
- ▶ MSC 분류에 의한 분류
- ▶ 연도별 논문 인용 현황

대한수학회 정회원 구성 비율



대한수학회 분과별 분포



한송철(김일성대학)

- ▶ 북한 수학자가 해방 후 처음으로 남한 학술지에 게재
- ▶ 신문 지상에 소개하려고 중국 공동 저자를 통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허사
- ▶ 게재 논문

북한 수학자가 국제학술지에 쓴 논문 I

- ▶ MR2851937 Khvan, Li Kukh The strong monotonicity condition for a piecewise-smooth function on solutions of a differential inclusion. (Russian) Dal'nevost. Mat. Zh. 10 (2010), no. 2, 185-191, 34A60
- ▶ MR2645462 (2011d:93016) Kim, Tujin; Cao, Daomin Local exact controllability of the Navier-Stokes equations with the condition on the pressure on parts of the boundary. SIAM J. Control Optim. 48 (2010), no. 6, 3805-3837. (Reviewer: Eduardo Cerpa), 93B05 (35Q30 76D05 76D55 93C20)
- ▶ MR2488695 (2010d:35356) Ri, Jinmyong; Huang, Feimin Vacuum solution and quasineutral limit of semiconductor drift-diffusion equation. J. Differential Equations 246 (2009), no. 4, 1523-1538, 35Q60 (35B25 35B40 76X05 82D37)
- ▶ MR2430805 (2009m:35380) Farwig, Reinhard; Myong-Hwan, Ri Resolvent estimates and maximal regularity in weighted L^q -spaces of the Stokes operator in an infinite cylinder. J. Math. Fluid Mech. 10 (2008), no. 3, 352-387. (Reviewer: Luigi Carlo Berselli), 35Q35 (35B65 76D03 76D07)
- ▶ MR2419365 (2009c:93015) Kim, Tujin; Chang, Qianshun; Xu, Jing Approximate controllability of the Stokes equations with boundary condition on the pressure. J.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21 (2008), no. 2, 97-111. (Reviewer: Louis Roder Tcheugoué Tébou), 93B05 (35Q35 76D07 76D55 93C20)

북한 수학자가 국제학술지에 쓴 논문 II

- ▶ MR2411500 (2009b:93017) Kim, Tujin; Chang, Qian-shun; Xu, Jing A global Carleman inequality and exact controllability of parabolic equations with mixed boundary conditions. Acta Math. Appl. Sin. Engl. Ser. 24 (2008), no. 2, 265-280. (Reviewer: Yuri V. Zaika), 93B05 (35K20 93C20)
- ▶ MR2289354 (2007j:35156) Farwig, Reinhard; Ri, Myong-Hwan An $L^q(L^2)$ -theory of the generalized Stokes resolvent system in infinite cylinders. Studia Math. 178 (2007), no. 3, 197-216. (Reviewer: Denis Serre), 35Q30 (76D03 76D07)
- ▶ MR2285120 (2008f:35290) Ri, Myong-Hwan; Farwig, Reinhard Existence and exponential stability in L^r -spaces of stationary Navier-Stokes flows with prescribed flux in infinite cylindrical domains. Math. Methods Appl. Sci. 30 (2007), no. 2, 171-199. (Reviewer: Christopher C. Hallstrom), 35Q30 (35A05 35B35 76D03 76D05)
- ▶ MR2175924 (2006f:35206) Jin, Kim Tu; Chang, Qianshun Remark on unique continuation of solutions to the Stokes and the Navier-Stokes equations. Acta Math. Sci. Ser. B Engl. Ed. 25 (2005), no. 4, 594-598, 35Q30 (35B60 76D03 76D05)
- ▶ MR2107733 Song, Chang-ho; Wu, Sheng-chang Numerical model of the gas flow through packed beds of the industrial furnaces. Gongcheng Shuxue Xuebao 21 (2004), no. 5, 803-806, 76S05 (35J60 76N15)

Kim, Tujin

- ▶ MR2989422 Prelim Kim, Tujin; Qianshun, Chang; Jing, Xu; Note on an Open Problem of Higher Order Nonlinear Evolution Equations. *Acta Math. Sci. Ser. B Engl. Ed.* 32 (2012), no. 6, 2369–2376.
- ▶ MR2645462 Reviewed Kim, Tujin; Cao, Daomin Local exact controllability of the Navier–Stokes equations with the condition on the pressure on parts of the boundary. *SIAM J. Control Optim.* 48 (2010), no. 6, 3805–3837. (Reviewer: Eduardo Cerpa) 93B05 (35Q30 76D05 76D55 93C20)
- ▶ MR2419365 Reviewed Kim, Tujin; Chang, Qianshun; Xu, Jing Approximate controllability of the Stokes equations with boundary condition on the pressure. *J.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21 (2008), no. 2, 97–111. (Reviewer: Louis Roder Tcheugoué Tébou) 93B05 (35Q35 76D07 76D55 93C20)
- ▶ MR2411500 Reviewed Kim, Tujin; Chang, Qian–shun; Xu, Jing A global Carleman inequality and exact controllability of parabolic equations with mixed boundary conditions. *Acta Math. Appl. Sin. Engl. Ser.* 24 (2008), no. 2, 265–280. (Reviewer: Yuri V. Zaika) 93B05 (35K20 93C20)

이명환

- ▶ MR2328936 Reviewed Farwig, Reinhard; Ri, Myong–Hwan The resolvent problem and H^∞ -calculus of the Stokes operator in unbounded cylinders with several exits to infinity. *J. Evol. Equ.* 7 (2007), no. 3, 497–528. (Reviewer: Helmut Abels) 35Q30 (47A60 47D06 47F05)
- ▶ MR2334660 Reviewed Farwig, Reinhard; Ri, Myong–Hwan Stokes resolvent systems in an infinite cylinder. *Math. Nachr.* 280 (2007), no. 9–10, 1061–1082. (Reviewer: Ana L. Silvestre) 35Q35 (35P15 47F05 76D03 76D07)
- ▶ MR2289354 Reviewed Farwig, Reinhard; Ri, Myong–Hwan An $L^q(L^2)$ -theory of the generalized Stokes resolvent system in infinite cylinders. *Studia Math.* 178 (2007), no. 3, 197–216. (Reviewer: Denis Serre) 35Q30 (76D03 76D07)
- ▶ MR2285120 Reviewed Ri, Myong–Hwan; Farwig, Reinhard Existence and exponential stability in L^r -spaces of stationary Navier–Stokes flows with prescribed flux in infinite cylindrical domains. *Math. Methods Appl. Sci.* 30 (2007), no. 2, 171–199. (Reviewer: Christopher C. Hallstrom) 35Q30 (35A05 35B35 76D03 76D05)

이극, 이진명, 송창호

- ▶ MR2851937 (2012j:34031) Khvan, Li Kukh(PRK-KIS)
The strong monotonicity condition for a piecewise-smooth function on solutions of a differential inclusion.(Russian. English, Russian summary) Dal'nevost. Mat. Zh. 10 (2010), no. 2, 185-191. 34A60
The main part of the paper is devoted to the study of autonomous differential inclusions in finite-dimensional spaces. The author considers conditions ensuring the decreasing of a given function along trajectories of the differential inclusions. This property has been well recognized as strong monotonicity, being largely motivated by applications to Lyapunov stability. In the case of smooth functions, sufficient conditions for strong monotonicity are obtained in several publications. In this paper the author derives new conditions for strong monotonicity in the case of piecewise smooth functions of min-max type by using generalized differential constructions of variational analysis.
Reviewed by B. Mordukhovich
- ▶ MR2488695 (2010d:35356) Ri, Jinmyong(PRK-AOS); Huang, Feimin(PRC-ASBJ-AMM)
Vacuum solution and quasineutral limit of semiconductor drift-diffusion equation.(English summary) J. Differential Equations 246 (2009), no. 4, 1523-1538. 35Q60 (35B25 35B40 76X05 82D37)
Summary: "The first half of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nonlinear drift-diffusion semiconductor model in $(d \leq 3)$ -dimensional space. A global estimate is achieved on the evolution of support of the solution and the finite speed of propagation. The proof is based on estimating the weighted norm with specially designed weight functions. In the second half, we prove the quasineutral limit locally for the 1-dimensional standard drift-diffusion model with a discontinuous, sign-changing doping profile."
- ▶ MR2107733 Song, Chang-ho(PRK-AOS); Wu, Sheng-chang(PRC-ASBJ-AMM)
Numerical model of the gas flow through packed beds of the industrial furnaces.(English, Chinese summary) Gongcheng Shuxue Xuebao 21 (2004), no. 5, 803-806. 76S05 (35J60 76N15)

수학용어

- ▶ [북한수학용어 보기](#)



감사합니다.



제2회의 통일학 · 평화학과 네트워크 분석

- 네트워크로 보는 동아시아 속의 북한
김상배 (서울대 사회과학대)
- 막힌 길 돌아서 가기:
네트워크 분석과 통일학 가능성 탐색
한신갑 (서울대 사회과학대)

네트워크로 보는 동아시아 속의 북한

연구책임자: 김상배(서울대)

공동연구원: 우승지(경희대), 신범식(서울대),
송태은(서울대), 배영자(건국대), 조동준(서울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3년 2월 7일

문제제기

- “동아시아 속의 북한” 문제
 - 국내 문제 → 남북한 관계 → 주변 4강 → 동아시아 → 세계 라는 다층적 맥락에서 보아야
 - 양자 관계를 넘어서 다자 관계를 보아야
 - 행위자 차원을 넘어서 구조 차원을 보아야
-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
- 기존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발상을 넘어서
 - 노드(node) 행위자 중심의 발상을 넘어서
 - 자원권력의 분포로서의 구조론을 넘어서
 -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구성론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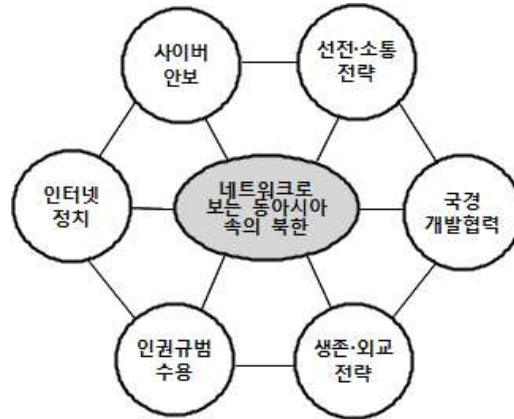
네트워크 시각의 원용

-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의 논의를 원용
 - 소셜 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
 - 네트워크 조직 이론(Network Organization Theory)
- 세 가지 네트워크 이론의 복합적 원용
 - 국제정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존의 노드 기반의 이론도 복합적으로 보아야
 - '네트워크'와 '국제정치'가 만나면?

네트워크로 보면?

-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해서 보면 무엇이 새로운가?
- '국(國)' 사이의 정치=국제정치(國際政治, Inter-national Politics)를 넘어서
 - 네트워크들 사이의 정치, 즉 Inter-network Politics 또는 망제정치(網際政治)
-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세 가지 테마
 - 네트워크 권력론
 - 네트워크 국가론
 - 네트워크 질서론
- 이론 개발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례 탐구의 과제

연구의 구성



여섯 주제

1. 네트워크로 보는 안보 세계정치와 북한
 - 사이버 안보의 사례
2. 네트워크로 보는 북한의 외교전략
 - 지대추구국가 북한과 의존 네트워크
3. 네트워크로 보는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북한
 - 북-중-러 접경지대 소지역 개발협력
4. 네트워크로 보는 북한의 커뮤니케이션과 북한 정권의 신호 전략
5. 네트워크로 보는 뉴미디어 정치사회변동
 -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북한 사례
6. 네트워크로 보는 북한의 인권 규범 수용

1. 사이버 안보와 북한

북한발 사이버 테러/공격?

- '사이버 테러'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 해커의 게임의 국가 간 분쟁으로 성격 변환?
- 기존의 국가안보의 발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 문제
 - 핵 안보 vs. 사이버 안보
- 네트워크로 보면?
 - 새로운 행위자? 새로운 형태의 전쟁=비대칭 전쟁?
 - 망제정치 → 국가 행위자와 초국적 비국가 행위자들의 복합 → 네트워크 국가의 세계정치

네트워크로 보는 사이버 안보

- 네트워크 구조 속의 사이버 안보 문제
 - 사이버 테러와 인터넷의 네트워크 환경 → 착취혈(exploit)의 존재
 - 다양한 컴퓨터 바이러스는 이러한 공백을 공략: 스텝스넷, 플레임, 샤문 등
- 비국가 네트워크 행위자의 위협
 - 주요 행위자는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비국가 행위자들 →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 디도스 공격의 사례 → ANT에서 말하는 비인간 행위자의 대표적 사례
 - 새로운 대항담론을 기반으로 활동?

국가 행위자의 사이버 창

- 사이버 공격과 국가 행위자의 역할 증대
 - 2007년 에스토니아, 2008년 그루지야의 사례
 - 2010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2012년의 이란
 - 국가 행위자들이 나서게 되면서 확전의 가능성 증대?
- 중국의 사이버 창
 - 중국: 일찌감치부터 해커 부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2003년 창설)
 - 해커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묵인? 흑객-홍객
 - 미-중 사이버 전쟁의 가능성?
- 북한의 사이버 테러전 수행 능력?
 - 약 3,000여명의 사이버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최근 한국의 주요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의 진원지로 북한을 지목
 - 특히 2011년 농협 인터넷 전산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례

네트워크 국가의 디지털 방패

- 미국과 한국의 디지털 방패
 - 미국은 정보 인프라 선진국인 동시에 사이버 공격의 취약국
 - 1990년대부터 대응전략 마련 → 최근 이란과의 사이버 공격을 주고받으며 경각심이 제고됨
 - 한국도 다양한 준비대책 마련 → 2011년 8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 사이버 안보의 글로벌 거버넌스
 - 사이버 안보 문제의 성격상 국제적 또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
 - 2001년 유럽사이버범죄협약
 - 2011년 런던, 2012년 부다페스트, 2013년 한국에서 사이버공간 총회

이론적-정책적 함의

- 사이버 안보 문제는 비대칭 망제정치(inter-network politics)의 대표적 사례
 - 비인간 행위자 vs. 인간 행위자의 망제정치
 - 초국적 테러 네트워크 vs. 국가 행위자의 망제정치
 - 국가들간에 벌어지는 사이버 창 vs. 디지털 방패의 망제정치
 - 일국 차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책 vs. 국제협력의 메커니즘 간의 망제정치
 - 정부 간 기구의 협력 틀 vs. 민간 해우이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망제정치
- 사이버 안보 문제를 단순한 남북한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이유

2. 북한의 외교전략

북한과 의존 네트워크

- **Structural hole or weak link:** 반(反)네트워크, 반(半)네트워크라는 인식 팽배
- 생존(선군)의 거미줄 치기 vs. 세계화의 거미줄 치기
- 의존 네트워크

의존 네트워크

- 국제사회의 지원 내용
- 주요 국가별 지원 내용
- 주요 특징
 - 시기별 지원 성격
 - 폐쇄형에서 反개방형으로 전환 유도
 - 정보, 인력, 물자의 교류 채널
 - 취사선택, 유연성 발휘

지대추구 행위

- 북한은 지대추구국가인가?
- 지대추구 전략: 긍정적? 부정적?
- 정상국가로의 전환을 더디게 하는가?
- 개형-개방 이전 단계 한시적 의미
- 가교국가, 지대국가 → 정상국가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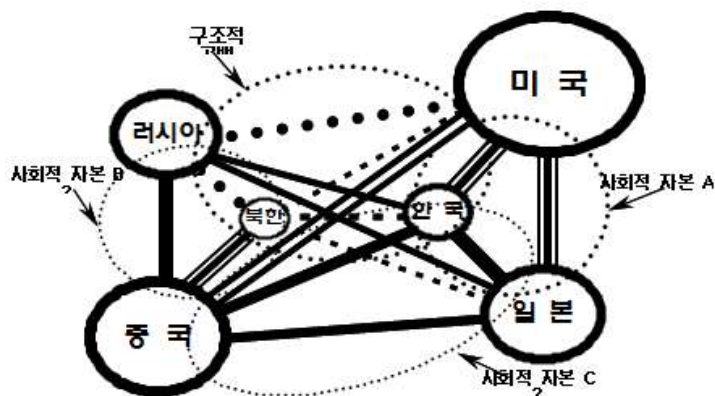
- 국가 기능 축소, 사회 기능 확대
- 수직적 의존 네트워크 → 수평적 상생 네트워크, 호혜적 네트워크 유도
- 지대추구 행위 장려?

3. 북-중-러 경제협력과 북한

동아시아 속의 소지역협력

- 북한 동북지방,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지방이 함께 만나는 두만강 하구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대되고 있음.
 - 이 소지역 개발협력은 참여국들의 어떤 개별 국가적 및 양자 관계적 이해를 동력으로 삼아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동북아 지역정치 일반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영향과 의미는 무엇인가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함.
- 해당 지역에서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에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이 동북아 소지역협력은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가 얽히면서 양자, 3자 그리고 다자의 협력 구도가 연관되어 작동하고 있음.
 - 중국의 창·지·투 개발 및 동북진흥전략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자바이칼 개발 및 블라디보스톡 메가시티 건설 그리고 북한의 나진·선봉 특구개발은 이 소지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음.
- 이 소지역협력이 단순히 북-중-러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협력 구도와 북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지역정치의 질서의 변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동북아시아 세력망의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



동북아 소지역협력과 세력망 구도

- 이 소지역협력의 지역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밝히기 위해 동북아 세력망구도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공백'을 네트워크론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작업이 유용함.
- 두만강 하구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소지역협력이 북한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조적 공백을 채우면서 동북아의 다양한 사회적 자본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이 소지역개발이 중국이 주도하는 경직적 사회자본을 형성되거나 미국에 의한 대중국 견제로 와해되기 보다는 균형적이고 유연한 사회적 자본으로 성장하는 것이 지역정치를 위해 필요함.
- 이를 위해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 사이의 협력이 동북아 세력망 구도를 균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소지역 경제협력 전개 시나리오별 남·북한의 손익과 동북아 질서에 대한 영향

	북한측	남한측	동북아 질서
시나리오I 중국 주도형	<p>장점: 중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안정적 인 투자의 확보 / 중국의 북한경관 보호정책 유지 / 일부 위험 감소</p> <p>단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예측 심화 및 장기화 가능성 / 이에 대한 리스크 반발에 따른 갈등구조 고조 / 북한 내 반(反) 중국 기류 강화 가능성</p>	<p>장점: 중국의 북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증대로 대북 경제건설을 위한 비용의 절감효과 예상</p> <p>단점: 북한의 동북 제4성원에 따른 통일외 구조적 장벽이 강화될 가능성 / 북의 대남 교류 필요성 약화에 따른 관계 남북관계 악화</p>	<p>-중 영향력 확대에 따른 중국 중심 지역경제 체질서 수렴</p> <p>-러시아의 대중 편승</p> <p>-미 역내 군사 영향력 약화</p> <p>-경직적 북-중-러 삼각협력관계 성립에 따른 북방삼각 대 남방삼각의 대립구조 강화 가능성</p>
시나리오II 균형화형	<p>장점: 러-중 간 양면외교를 통한 의존의 균형 유지 / 북한의 지경학적 자선의 장기·지속적 가치실현</p> <p>단점: 경험구조 안정화에 따른 한국의 참여 조건이 개선과 한국의 참여 및 그로 인한 남북교류 활성화로 인한 북한 사회 중요 심화 가능성</p>	<p>장점: 러시아의 위상 강화를 활용한 한반도의 안정화 /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음 / 남·북·러 3각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통일 기반 조성 가능성</p> <p>단점: 러 정책의 불안정성을 관리할 경제적 투입 규모의 증대 / 미국의 경제적 역할 모색과정에서의 분열화 등 관리 필요성</p>	<p>-중국의 역내 영향력 안정화</p> <p>-러시아의 전략적 행위자 지위 회복</p> <p>-동북아 다자협력 기재 활성화 가능성 높아짐</p> <p>-지역 경험과정에서 미국 위상은 다소 유동적이거나 안보적 역외균형자 역할을 지속할 가능성</p> <p>-유연한 북-중-러 삼각협력이 남북교 상 호작용 가능성</p>
시나리오III 미국 견제형	<p>장점: 중국의 개입 가능성 견제 / 미국과의 교류 소재 및 교류 가능성 증대 / 남한과의 교류 조건개선 및 활성화</p> <p>단점: 중국의 대북지원 축소 및 그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 / 러시아에 대북 영향력 강화에 따른 재약 / 남한으로부터의 통일 압력 증대</p>	<p>장점: 한국의 미국우선 정책의 유지에 따른 전환비용 절감 / 중국 부상에 따른 전환비용 절감 / 대북 영향력 강화 기회</p> <p>단점: 중국의 경제에 대한 편승효과 감소 / 미국의 높은 비용분담에 대한 강한 요구</p>	<p>-북방삼각 협력구조의 와해와 중국의 역내 영향력 제한</p> <p>-미·러협력 통한 중국견제 및 지역 경험 프로토타입의 국제화 가능성</p> <p>-미국 주도의 지역 다자협력 질서 모색 가능성 높아짐</p>

소지역협력의 전망과 북한의 역할

- 향후 소지역 협력은 세 시나리오 중 중국주도형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이는 중국이 장차 동북아 경제에 대한 독자적 통합 기반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을 의미함.
- 하지만 러시아의 동북아 및 대북 접근 전략이 내포하는 가능성을 주변국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접근 정책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두 변수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음. 다만 중국의 창지투 개발 계획의 추진속도를 두고 볼 때에 주변국에게 남겨진 기회의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 이외의 국가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균형화 발전전략이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러한 균형적 소지역협력 구도는 북한과 한국으로 하여금 다면적 복합외교 속에서 남-북한이 네트워크적 상호작용을 하게 하여 지역적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가능성을 높일 것임.
- 균형화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러 삼각협력의 활성화가 중요한데, 이는 북-러 간의 전략협력의 링크를 회복시키고 한-러 전략협력의 내실을 키워 러시아의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미-중-러 전략 삼각관계의 재형성을 통해 미-중 경쟁으로 인한 지역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지역 협력을 촉진할 수 있게 할 것임.

한국의 과제와 정책적 함의

- 외부적으로는 중국 압력에 대응하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전략을 조율하며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면적 외교를 수행하고, 국내적으로는 여론의 분열을 딛고 남-북-러 삼각 협력에 충분한 경제력을 투입할 정책 추진력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한국은 제한된 자산기반 권력을 넘어 네트워크론적인 관계 권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함. 왜냐하면 북-중-러 접경지역의 소지역 협력은 실상 북-러 및 북-중 양자관계에 따른 협력과 더불어 북-중-러 내지 남-북-러 등의 삼각협력 그리고 다른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주의 협력 등의 다양한 형태가 증첩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협력의 분야도 항만과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되는 지역 물류망의 구축, 에너지 운송망 구축이나 전력망 연결과 관련된 에너지안보 협력, 자본-노동-토지의 결합에 의한 농업협력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의 소재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동북아 협력체제를 네트워크론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은 관계 권력의 균형화 및 협력구도를 소지역에서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안을 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설득하는 지적 리더십과 설득의 리더십을 갖추으로써 물리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음.
- 결국 한국은 물질 권력의 대결보다는 관계적 권력의 조정을 지향하는 네트워크적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동북아 소지역협력이 동북아 지역단위의 형성과 연계될 수 있는 협력 가능성을 지향하여야 함을 본 연구는 결론으로 제시함.

4. 북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1) 문제제기 및 글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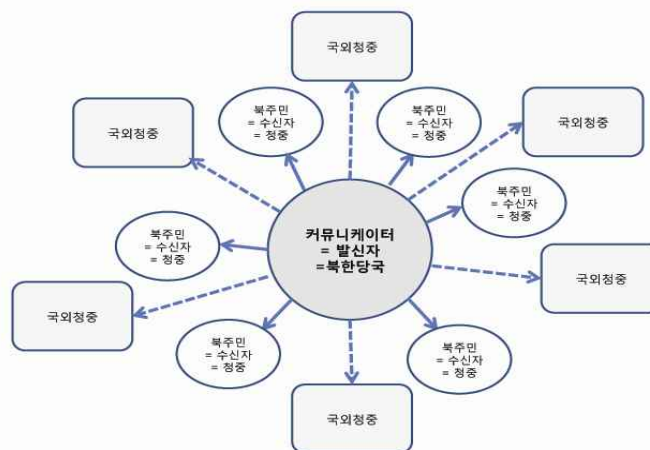
- 기존 북한연구는 북한의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선전선동, 벼랑끝협상, 남남갈등 유도의 '전술' 차원에서 묘사했고, 북한 레짐의 독특한 성격에 근거하여 북한행위를 설명함
- 북한정권의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이해하려면 북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전략에 일정한 조건을 가하는 국내외 커뮤니케이션 조건과 환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함
- 이 글에서는 2개의 이질적 북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즉 1) 북한 정권의 선전 커뮤니케이션(공식부문)과 2) 수평적 장마당 혹은 초국적 경로를 통한 메신저 커뮤니케이션(비공식 부문)을 살펴볼 것임.

- **Main argument:** 초국가 행위자에 의한 불안전하게 열린 북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북한의 국제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의 고립상황은 북한이 국제정중들에 대해 희소정보와 자기손실의 정보를 폭로하는 신호전략을 펼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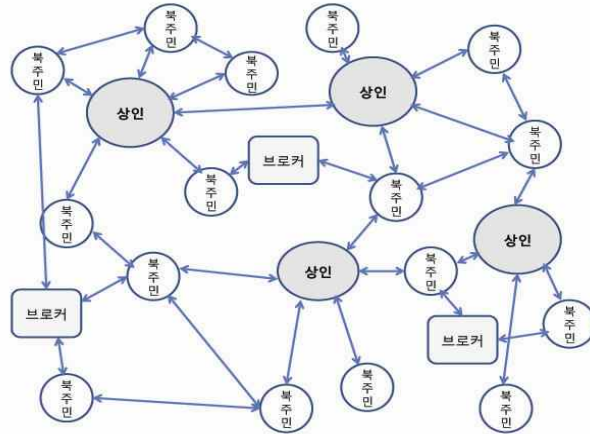
2) 북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네트워크 이론의 접근법

- 네트워크 이론은 행위자의 속성(권력, 자원)보다 관계성(구조 속에서 서의 위치)에 중점을 둠
- 북한의 선전 커뮤니케이션(공식부문) 네트워크에서는 '중앙에 있는 자'의 권력이 중요하나 비공식 부문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는 '사이에 있는 자'의 권력이 중요

북한의 선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민주모델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북한 커뮤니케이션의 비공식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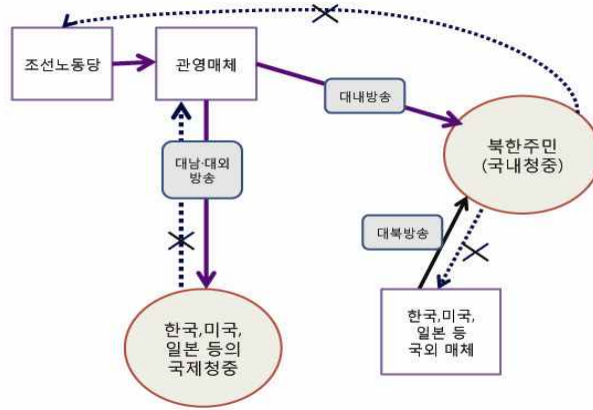
3) 북한의 선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 북한 커뮤니케이션의 공식부문으로서 국제적 수준에서는 링크가 끊긴 고립된 폐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임
- 대내, 대남, 대외선전에 복무하며 하나의 위계조직으로서 단일 행위자로서 작동한다. 발신자로부터 수신자를 향해 일방향으로 메시지가 주입되고 수신자로부터의 피드백이 부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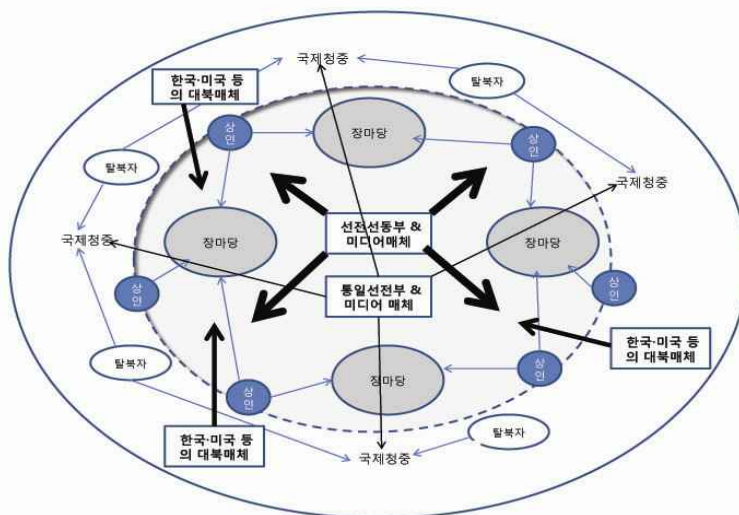
4) 북한의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 북한주민들의 정보획득의 대안경로 추구결과 북한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불완전하게 열림. 즉, 국경을 오가는 상인, 밀수업자, 무역간부, 탈북자, 탈북기획 브로커, 민간인권단체 등 초국가 메신저가 북한 안팎을 연결함. 그 결과 북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외연이 확장되고 행위자 수+종류가 증가하여 2개 커뮤니케이션 이질화가 심화되고 전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짐

북한의 선전커뮤니케이션 구조



불완전하게 열린 북한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5) 북한정권의 폭로전략과 자기손실 전략

- 핵,미사일 외의 하드파워나 소프트파워를 결여한 북한은 자국에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여 자국정보의 희소성을 커뮤니케이션 자원으로 사용함. 폭로전략과 자기손실 전략을 통해 역으로 북한정권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
- 독재국가로서의 북한 정권은 자신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책임질 제도를 결여함. 그러므로 한번 실추된 명성(강패국가, 거짓말쟁이)을 회복할 메커니즘을 결여하여 역설적으로 국제청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펼치게 되는 것임.
- 예) 광명성 발사실패 공식인정, 신숙자모녀 죽음 공식서한 유엔전달, 천안함사건에 대해 한국의 사과구걸 녹음폭로위협, 한국 집권여당 지도층의 중복발언 공개위협

6) 정책적 함의

- 북한주민의 이동통신이나 소셜미디어의 단순한 사용증가가 재스민 혁명처럼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정권의 통제력을 강화시킬 것이며, 북주민은 외부정보에 대한 노출로 인해 체제저항보다 오히려 퇴장전략(체제이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큼. 한국, 미국의 정치심리전 차원의 대북 방송은 북한 내 혁명보다 탈북으로의 유인을 더욱 증가시킬 것임.
- 북한을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끌어들여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다양화하여 국제청중을 의식하는 북한정권이 스스로 인권개선, 경제개혁을 추구하게끔 유도해야 함.

5. 북한의 정치사회 변동

뉴미디어와 북한 정치사회변동

- 이집트, 튀니지 등 중동지역 민주화 움직임에 인터넷과 휴대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주목되면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권위주의 국가의 정치사회변동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부상
- 유무선 IT인프라 및 컴퓨터와 휴대폰 등 다양한 IT기기에 토대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들은 가상의 공간에 소위 새로운 공공영역(public sphere)을 창출하여 사회적 담론의 주요 의제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벌여 옴. 인터넷에서 시작된 문제제기나 사회비판이 때로는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의 집단행동으로 연결되면서 현실 정치사회변동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기도 함.
- 북한의 경우 아직까지 IT인프라가 취약하며 IT기기의 보급이 저조하여, 소수의 북한주민만이 인터넷과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북한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강함. 하지만 최근 들어 IT인프라 개선이나 정보기기 활용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미디어들이 북한 정치사회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북한 뉴미디어 현황: 인터넷

- 북한은 'IT 기술발전을 통한 기술 강국으로의 단번도약'이라는 구호아래 IT 기술을 적극 도입. 1990년대 초반 인터넷 시작. 그러나 외부와의 정보교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터넷이 체제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폐쇄적인 인트라넷의 형태로 보급. '광명'인트라넷.
- 북한은 체제선전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30여 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운영. 조선중앙통신, 조선인포뱅크,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실리은행, 조선무역, 조선우호협회 등을 일본, 중국, 독일 서버를 빌려 개설하고 운영. 2007년 9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으로부터 북한의 국가도메인으로 '.kp'를 최종 승인 받았고 보안 솔루션 '능라88'을 개발하여 인터넷개방에 대비하여 옴. 현재 .kp 도메인은 태국 록슬리사와 관련된 Star Joint Venture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를 자체적인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직접 연결.
- 현재 전체인구의 5% 내외가 인트라넷인 광명을 활용하고 외부와의 인터넷 연결은 최고위층에 제한된 것으로 알려짐. '모기장식' 인터넷 활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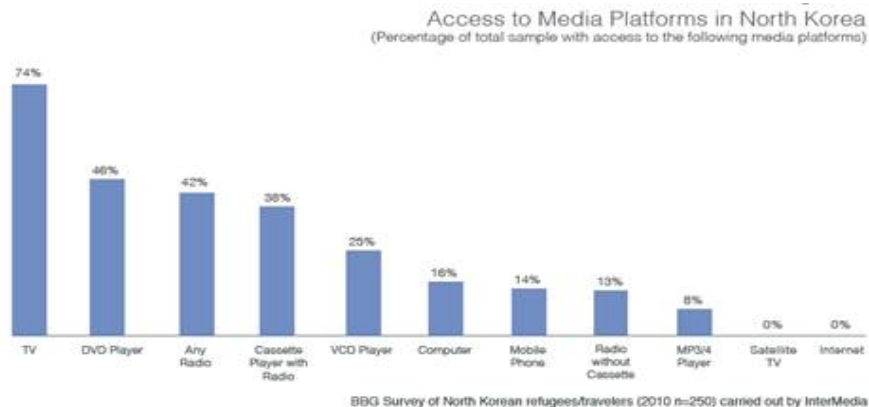
북한 뉴미디어 현황: 휴대폰

- 북한의 이동통신은 1998년 7월 최초로 개통. 이 사업은 태국, 핀란드, 대만의 합작자인 록슬리 퍼시픽(Loxley Pacific)과 북한의 조선체신회사가 설립한 동북아전기통신회사(Northeast Asia Telephone and Telecommunication; NEAT&T)가 주도
- 2004년 4월 중국 접경지역인 용천역에서 휴대폰으로 원격 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건이 발생한 후 특정계층과 외국인 일부를 제외한 휴대전화 일반서비스가 금지됨.
- 2008년 12월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OTH)에 의해 다시 북한내 이동통신서비스가 개통. 2012년 초반 현재 100만명 이상이 북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2012년 11월 오라스콤 사위리스(Sawiris) 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휴대폰가입자는 150만 명이라 함.
- 현재 북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인구의 5% 정도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북한 뉴미디어 현황: DVD, USB 등

- 인트라넷과 휴대폰에 접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이 소수임에 비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TV, DVD, 라디오, USB 등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하는 가장 보편화된 미디어는 DVD와 라디오. TV와 노트북컴퓨터는 2011년 7월 현재 평양 강동시장에서 미화 300불에 거래되는 고가품임에 비해, DVD 플레이어는 13불, DVD는 50센트로 경제적 장벽이 낮음.
- 북한에서 휴대전화 이외에 가장 선호되는 전자제품은 MP4, USB메모리 등임. 북한 당국이 허가받지 않은 USB메모리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PC 보급이 확대되면서 영화나 음악을 쉽게 저장하고 삭제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며 한국 드라마나 가요 등을 담은 CD, USB메모리 등이 확산되고 있음.

탈북자 미디어 접근 현황



자료: Ketchum and Kim (2012)

뉴미디어와 북한 정치사회변동

- 왜 북한 당국이 인터넷 개방을 고려하고 휴대폰을 확산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Nesbitt 2012).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을 고려하여 뉴미디어를 확산하고 있다거나 혹은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뉴미디어 확산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견해는 모두 현실적 설득력이 떨어짐. 북한에서 뉴미디어 도입과 확산은 당국의 통제 하에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첨단 IT 기기나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확대와 체제선전 효과가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동기임. 아울러 IT기기나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층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북한의 엘리트 계층과 신흥 상인들에 대한 통제가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도 언급 (Bruce 2012).

뉴미디어와 북한 정치사회변동

- 북한에서 뉴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은 단기적으로 중동지역에서와 같이 급격한 정치사회변동을 촉진할 가능성이 낮음에 비해, 장기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
- 휴대폰 등을 활용한 시장의 확대와 경제적 기회의 창출, 중국, 남한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북한내 정보교류 확산 등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으로 북한에 부분적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김일성에 대한 맹목적 숭배에 비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졌고 북한정치구조와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판적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며 부를 축적하고 동시에 외부 소식을 자주 접하는 북한의 신흥 부유층의 부상이 북한 정치사회변동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뉴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불편화되지 못하고 미디어에 대한 통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디어의 확산이나 활용만으로 자동적으로 반체제 운동이 발전하고 성공하기는 어려움. 뉴미디어의 활용이 확산되는 과정과 온오프라인에서 반체제운동의 중심점의 형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뉴미디어와 북한 정치사회변동

- 대북전략의 관점에서 잠재적으로 북한 정치사회변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의 확산을 지원하고 특히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인 개혁세력을 형성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이제까지 대북 공공외교는 일방적으로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선전의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음. 새로운 미디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공공외교는 우선적으로 북한내의 새로운 미디어 확산을 지원하고 일방적 선전과 비판보다는 북한 정치사회변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세력 형성과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함.
- 민주주의, 번영, 평화, 인권 등 21세기 문명표준의 가치를 내재한 다양한 문화컨텐츠들을 보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나아가 이를 토대로 북한의 민주화와 개방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들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6. 인권 네트워크와 북한

3세대로 구분되는 인권

- 역사적 맥락에서 성장한 인권
왕권과 자유민간 경쟁에서 자유민의 권리→인권
자유민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인권 주체의 확대
인권이 적용되는 영역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내포
- 인권의 세대 구분
 - 1세대 인권 자유, 사유권, 정치적 권리 포함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안정적 제도화
 - 2세대 인권 경제적, 사회적 권리 포함
노동계급의 성장과 양차대전 중 공인
 - 3세대 인권 집단의 자결권과 (문화적) 독자성 유지
반식민주의 운동과 연결됨

국제인권레짐과 네트워크

- 동류국가(like-minded countries)와 국제인권레짐
인권 영역에서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국가군의 등장
개별국가에서 인정된 인권을 국제사회로 투영→레짐
공유된 원칙, 규범 확인에서 시작하여 법적규제로 심화
- 인권 네트워크 (국가 수준)
동류국가군과 국제기구의 연결→네트워크 형성
동류국가군이 활동 영역을 넓힘 (예, ICC 창설)
인권조약 가입으로 인권 네트워크에 가입한 정도 파악

국제연합과 인권 네트워크

- 2차대전과 국제연합
블록 경제권간 경쟁과 갈등→2차대전 발생
2차대전 중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 유린
→경제적 복지와 인권 보호가 평화의 필요 조건
2차대전 승전국 전시동맹의 제도화→국제연합
인권이 평화의 조건으로서 자리매김
- 국제연합 중심의 인권 조약
국제연합에서 회합은 국가 수준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
인권 관심을 국제연합 결의안/선언으로 표현
15개 인권 협약/규약+12개 부속 의정서

북한의 인권 조약 가입

- 북한 인권 조약 가입의 두 물결
1980년 초반 인권규약 A, B 가입
 1970년대 후반 국제사회 진출을
 모색하던 북한 외교 반영
1990년대 초반 집단학살 방지, 여성과 아동 보호
 냉전 후 생존을 모색하던 북한 외
 교 반영
- 북한 인권 조약 가입의 특징
협약/규약처럼 상대적으로 모호한 조약에 집중 가입
구체성을 가지 의정서에는 거의 가입하지 않음

눈 속임 vs. 실질적 인권 향상

- 상충하는 현상
가입 숫자로 164위 (미국보다 많음)
북한 = “state as a big prison” (Muntarhorn 보고관)
- 제한적 성공
인권 조약 가입을 매개로 북한 압박 → 선별적 수용
예: 2009년 유엔인권이사회의 대북 정례검토
대북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보고관 부인
167개 권고사항 중 117개항 일부 수용
북한 법체계의 제한적 변화

정책적 함의

- 눈속임으로 가입한 인권 조약의 영향
외교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인권 조약 가입
전술적 용인 → 북한의 활동 제약/법 체계에 영향
2012년 대북 인권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음
- 북한을 가능한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기
조약기구(조약준수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통한 사회화
북한식 행동기준이 아닌 국제기준에 기반한 평가 지표
북한 고립보다는 북한 포용으로 북한 변화 모색 가능

'네트워크 보기'의 과제

-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의 망제정치
 - 국가라는 노드 행위자에 고정된 발상을 넘어서
 - 근대 국민국가 모델의 통일모델을 넘어서 → 네트워크 국가론
- 행위자와 구조의 복합
 - 특히 보이지 않는 구조의 가시화
 - 일종의 '중개자'로서의 전략 모색
-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복합 → 네트워크 권력의 분석과 실천의 잣대
 - 부국강병 게임을 넘어서

감사합니다

sangkim@snu.ac.kr

CONTACT | ENGLISH | SITEMAP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연구진 통일학 HK평화인문학 학습활동 사회기어 교류협력 출판 및 저널 소식과 알림

연구진
통일외사 조사
남북통합 지수
통일과 평화
AJP
뉴스레터
통일칼럼
TOP

통일학
통일외사조사
남북통합지수
북한연구
통일학연구 지원사업
통일학·평화학 연구보고서

HOME > 통일학 > 통일학연구 지원사업


통일학연구 지원사업

막힌 길 돌아서 가기:
통일학·평화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의
네트워크 분석과 그 가능성 탐색

사회학과
한신갑

타는 곳 **평양방면**
Tracks | 乘車場 To Pyeongyang 平壤方面

- 1 관계론적 시각
- 2 네트워크 분석
- 3 자리 매기기, 거리 재기
- 4 돌아서 가는 길



타는 곳
Tracks | 乘車場

평양방면
To Pyeongyang | 平壤方面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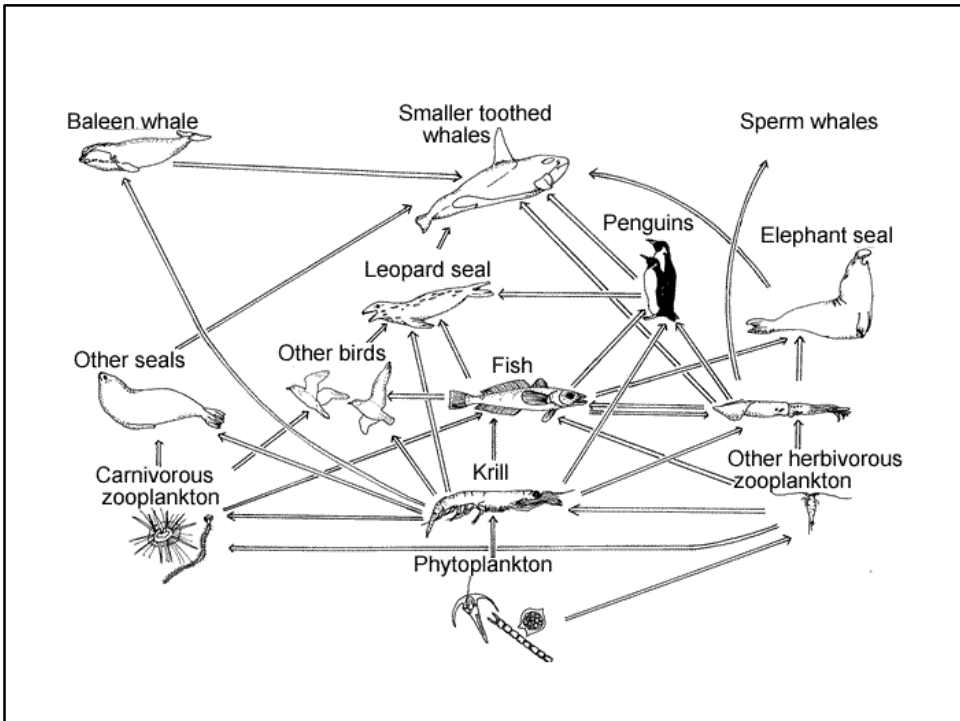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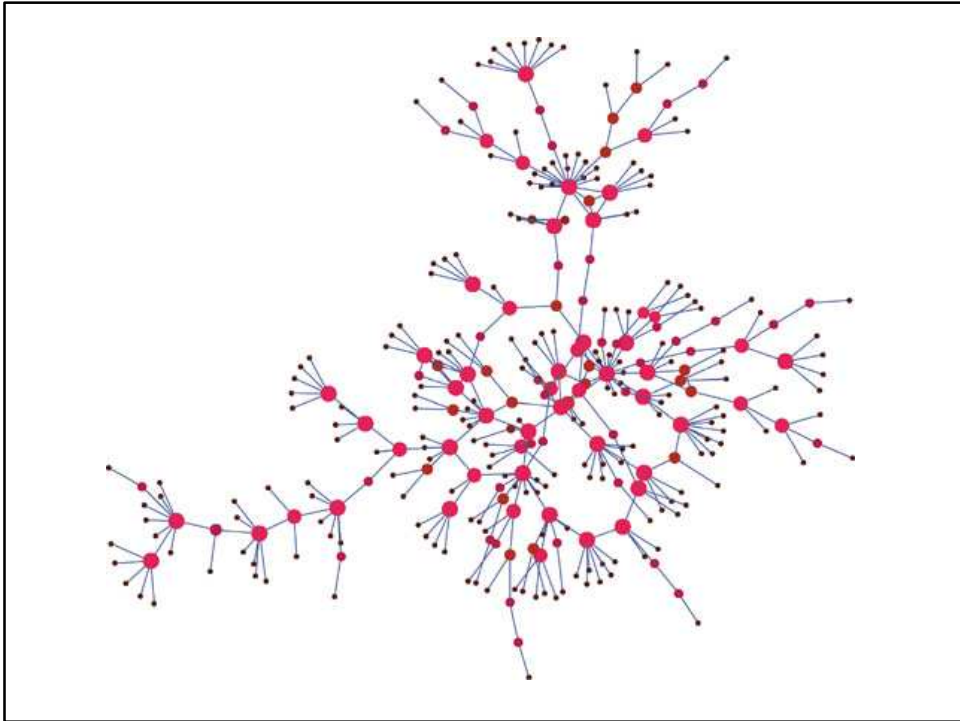
3

4

방향 잡기 관계론적 시각

바로 가기, 돌아서 가기

- Бешеной собаке семь вёрст не крюк.
- 以迂爲直.
- For every failure, there's an alternative course of action. You just have to find it. When you come to a roadblock, take a de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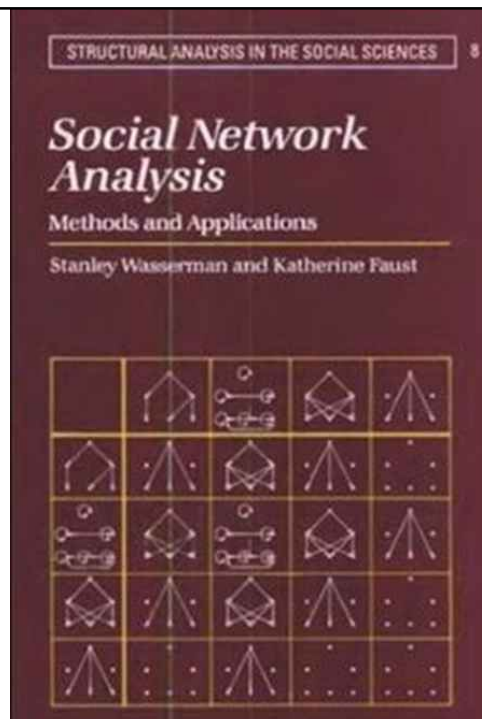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에 간접적으로 관여된 '제삼자'들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관계구조로서의 국제사회

관계론적 시각

첩경과 우회로

- 관계성 (연관성)
- 간접성 (이차성)
- 복합성 (중층성)



통일평화연구원 지원 연구 주제의 연도별 추세

	북한연구	통일정책	남북관계	남북비교	해외사태	국제관계	탈북자	의식조사	전체
2004	7 11.5%	6 20.7%	3 10.0%	2 22.2%	0 0.0%	0 0.0%	0 0.0%	0 0.0%	18 8.9%
2005	4 6.6%	3 10.3%	1 3.3%	1 11.1%	0 0.0%	0 0.0%	2 6.7%	0 0.0%	11 5.4%
2006	4	5	1	2	1	1	3	0	17



2010	6 9.8%	1 3.4%	5 16.7%	0 0.0%	1 11.1%	1 4.8%	6 20.0%	3 21.4%	23 11.3%
2011	5 8.2%	2 6.9%	0 0.0%	0 0.0%	3 33.3%	4 19.0%	6 20.0%	4 28.6%	24 11.8%
2012	6 9.8%	3 10.3%	1 3.3%	0 0.0%	0 0.0%	6 28.6%	2 6.7%	3 21.4%	21 10.3%
전체	61 100.0%	29 100.0%	30 100.0%	9 100.0%	9 100.0%	21 100.0%	30 100.0%	14 100.0%	203 100.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국제관계

- 기존의 이론들에서 보이는 국민국가 중심적, 정치-군사-안보 중심적 시각을 넘어서면 '관계', 또는 '관계를 통한 통합'에 주목하는 시각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 (신)자유주의와 (신)기능주의의 시각에서는 시장, 민주주의와 제도를 협력의 3대 요소로 보고, 국가 간의 복합적 상호의존과 다차원적 협력, 국제기구에 의한 제도화에서 국가간 통합의 근거를 찾는다.
- 관여가 체제 간 동질성의 증가를 가져오고, 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이 정치·군사적 협력으로 확산되어 평화 정착과 공존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Golden Arches Theory of Conflict Prevention



NATIONAL BESTSELLER
THOMAS L.
FRIEDMAN

NATIONAL BOOK AWARD-WINNING AUTHOR OF
FROM BEIRUT TO JERUSALEM

UNDERSTANDING GLOBALIZATION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NEWLY UPDATED AND EXPANDED EDITION

‘분석적 통일학’

관계론적 경험연구의 한 전형을 제시하고, 이 전형의 통일·평화연구에의 적합성을 다양한 실제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면서, 그 적용과 확장의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타는 곳
Tracks | 乘車場

평양방면
To Pyeongyang | 平壤方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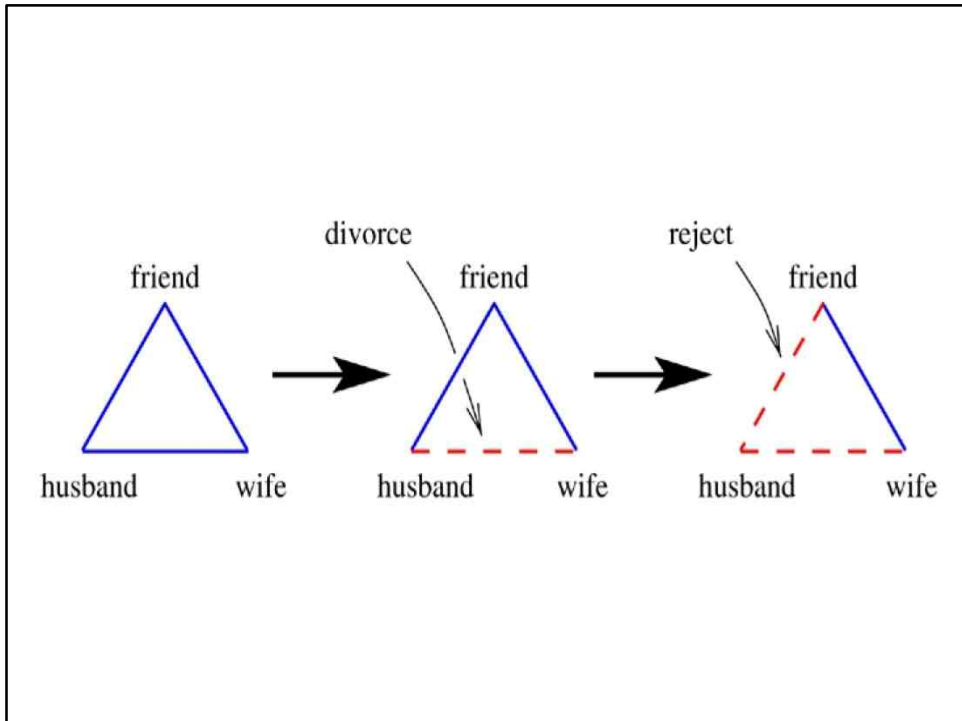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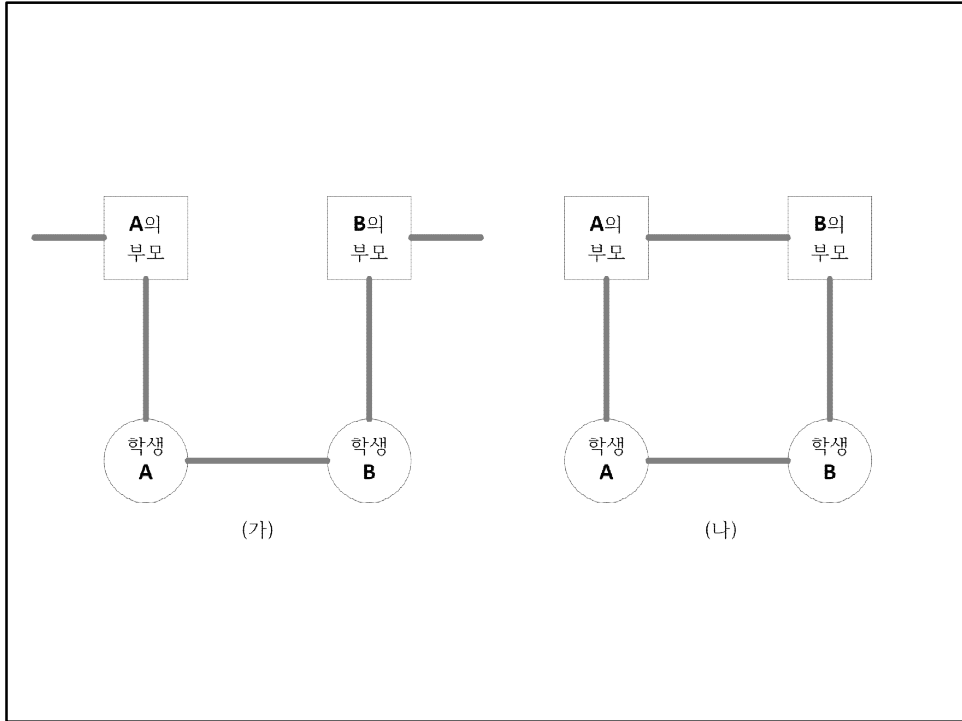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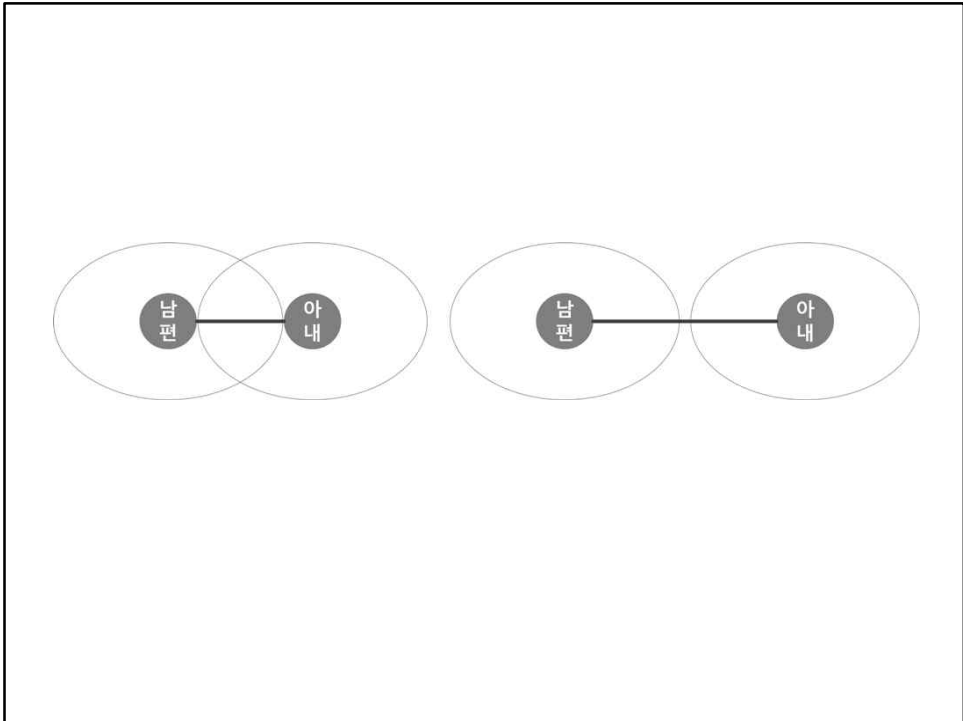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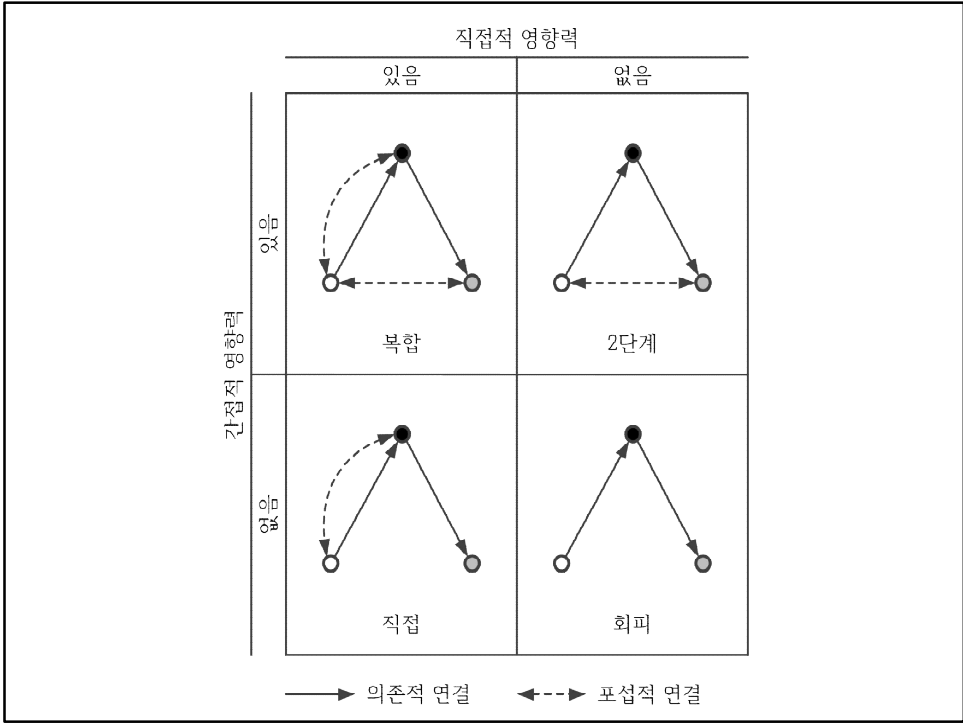
2

3

4

초점 맞추기
네트워크 분석





거리

개념적 정의 국가 간의 거리 $\propto \frac{1}{\text{국가 간의 관계중첩 정도}}$

조작적 정의 $d(m_i, m_j) = k \left(\frac{n(m_i \cap m_j)^{-1}}{n(m_i) \times n(m_j)} \right)$



타는 곳
Tracks | 乘車場

평양방면
To Pyeongyang | 平壤方面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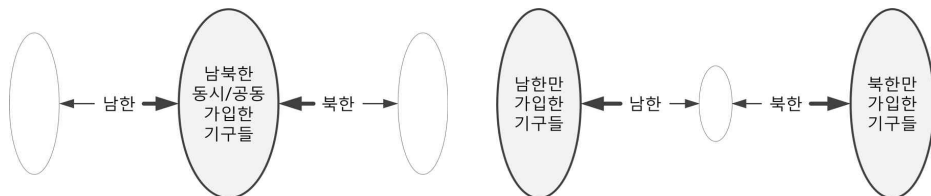
지도 그리기

자리 매기기, 거리 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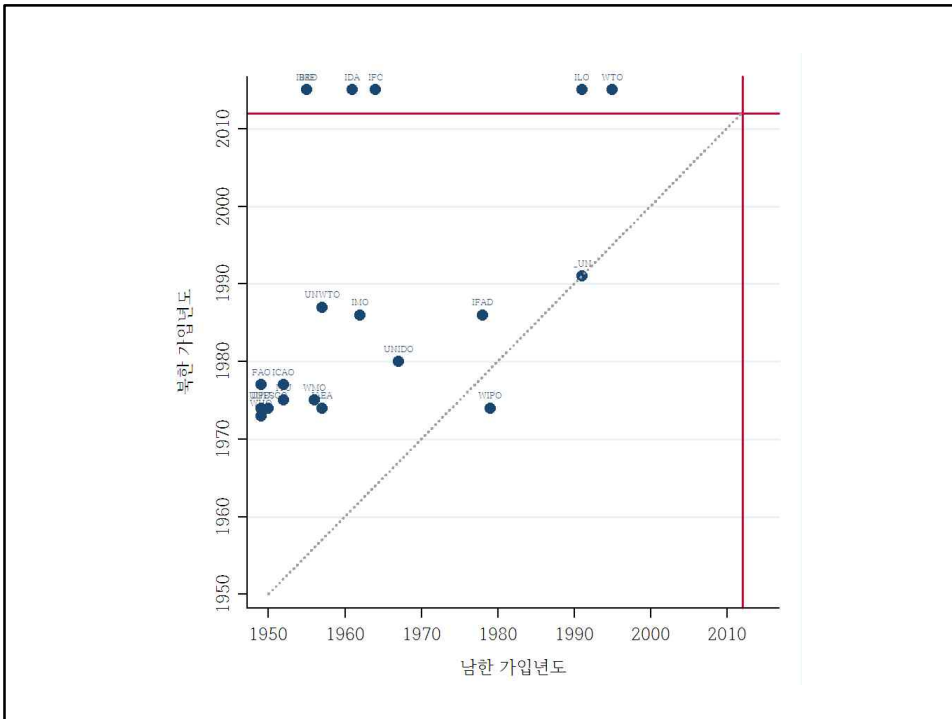
두 나라가 동시에,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 국가의 규범과 이해의 일치정도가(또는 일치의 '개연성'이) 그만큼 커지고 그들의 행위양식에 있어서 동질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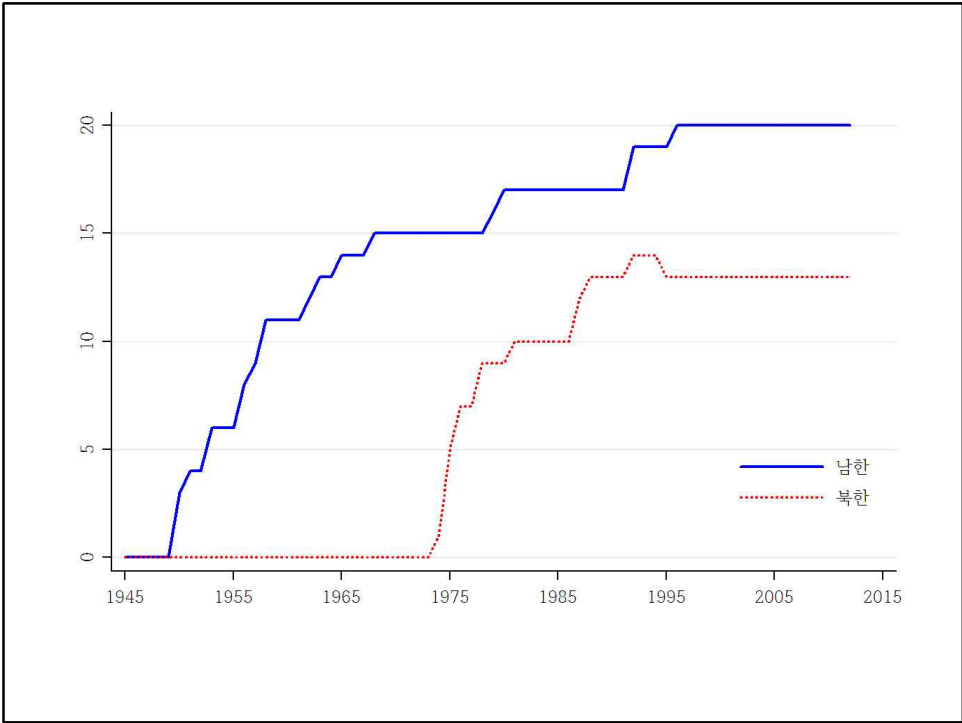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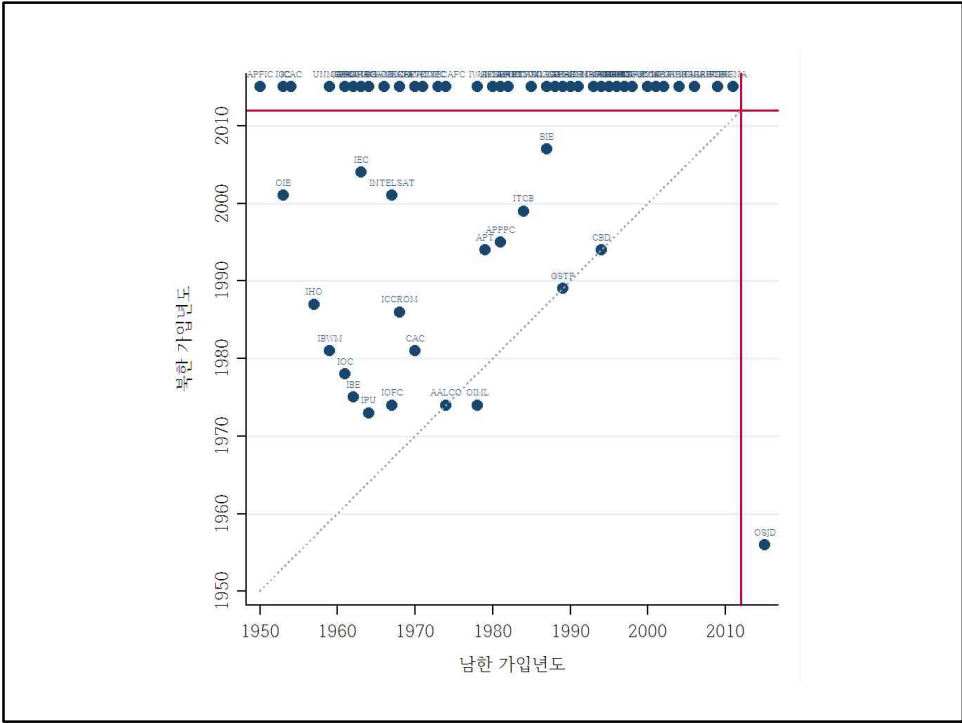
국제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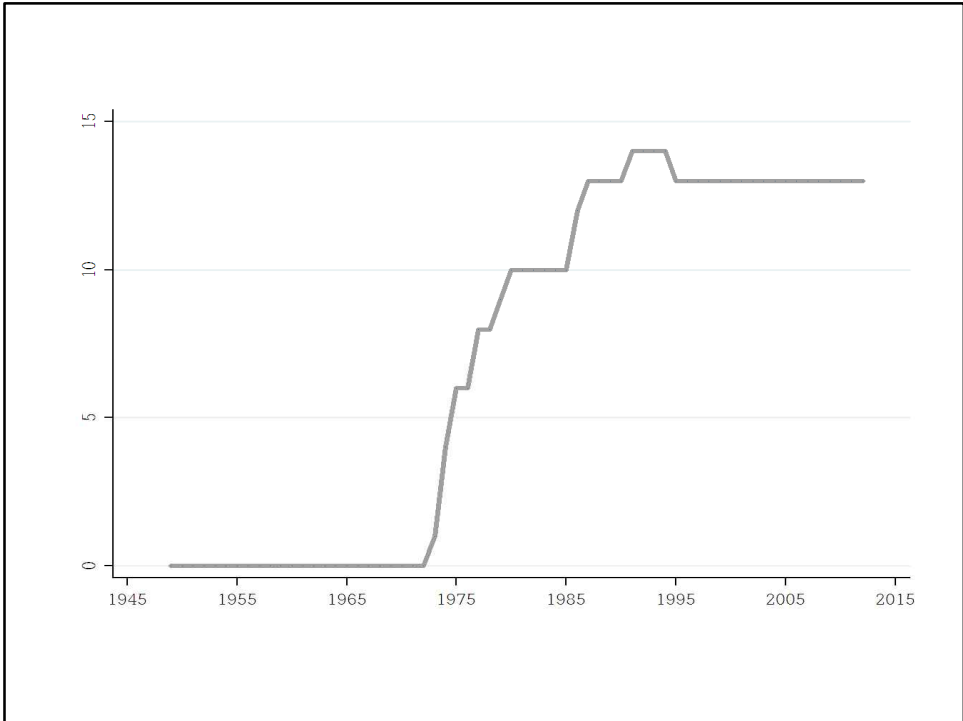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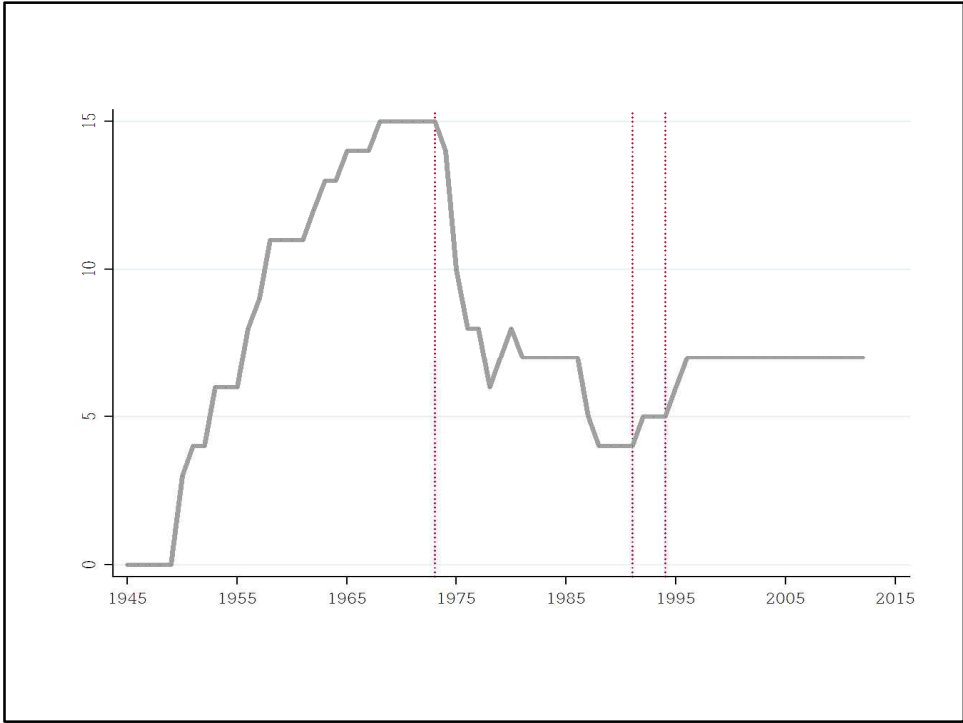
구심력/원심력



기구명	영문약자	기구종류	기구 설립년도	남한 가입년도	북한 가입년도	비고
국제연합	UN	국제기구	1945	1991	199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유엔전문기구	1945	1949	1977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유엔전문기구	1946	1955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유엔전문기구	1944	1952	1977	
국제개발협회	IDA	유엔전문기구	1960	1961	-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유엔전문기구	1977	1978	1986	
국제금융공사	IFC	유엔전문기구	1956	1964	-	
국제노동기구	ILO	유엔전문기구	1919	1991	-	
국제통화기금	IMF	유엔전문기구	1944	1955	-	
국제해사기구	IMO	유엔전문기구	1959	1962	1986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유엔전문기구	1865	1952	1975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유엔전문기구	1945	1950	1974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유엔전문기구	1966	1967	1980	
만국우편연합	UPU	유엔전문기구	1874	1949	1974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전문기구	1948	1949	1973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유엔전문기구	1967	1979	1974	
세계기상기구	WMO	유엔전문기구	1950	1956	1975	
세계관광기구	UNWTO	유엔전문기구	1974	1957	1987	KOTT (1925) - IUOTPO (1934)*
국제원자력기구	IAEA	유엔독립기구	1957	1957	1974	1994 탈퇴
세계무역기구	WTO	유엔독립기구	1995	1995	-	







유엔관련 국제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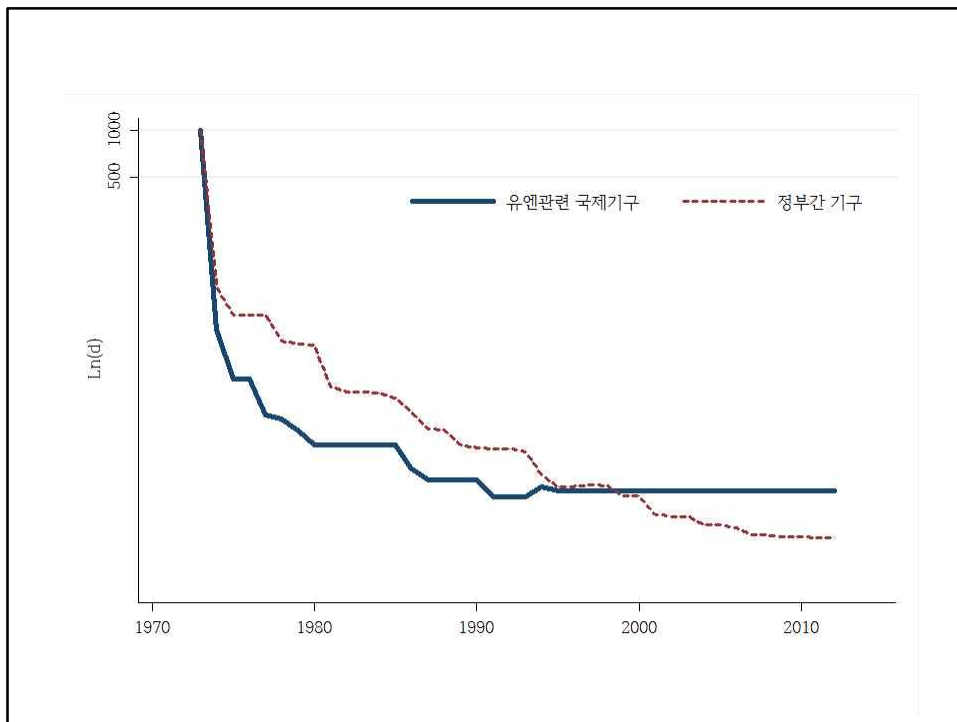
1975년	남한이 가입한 기구	북한이 가입한 기구
남한이 가입한 기구	15	6
북한이 가입한 기구	6	7

1995년	남한이 가입한 기구	북한이 가입한 기구
남한이 가입한 기구	20	13
북한이 가입한 기구	13	13

정부간 기구

1975년	남한이 가입한 기구	북한이 가입한 기구
남한이 가입한 기구	31	5
북한이 가입한 기구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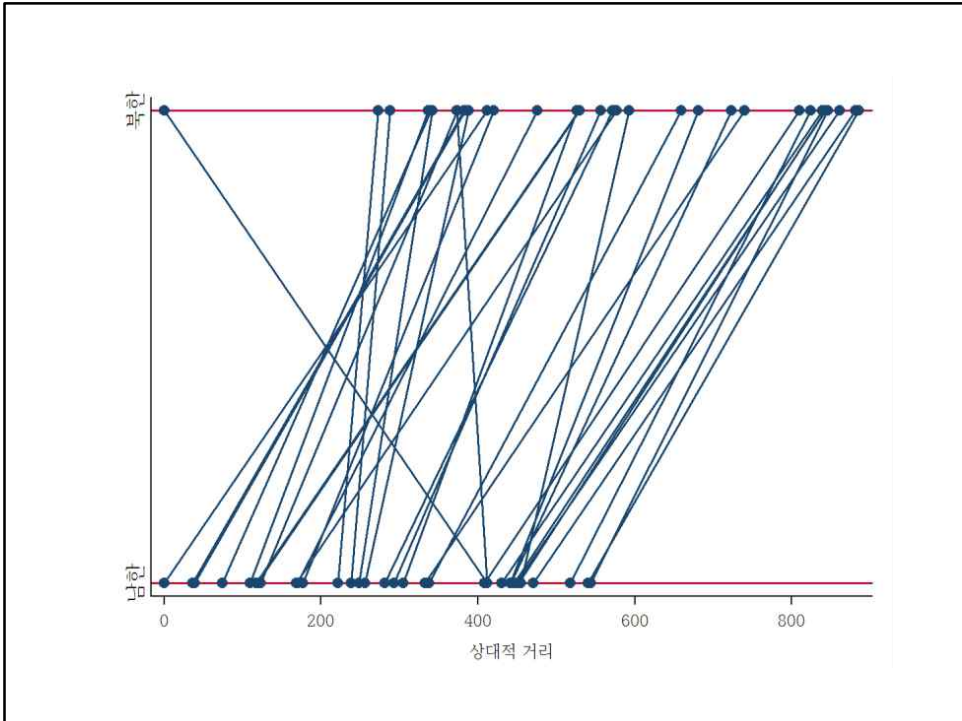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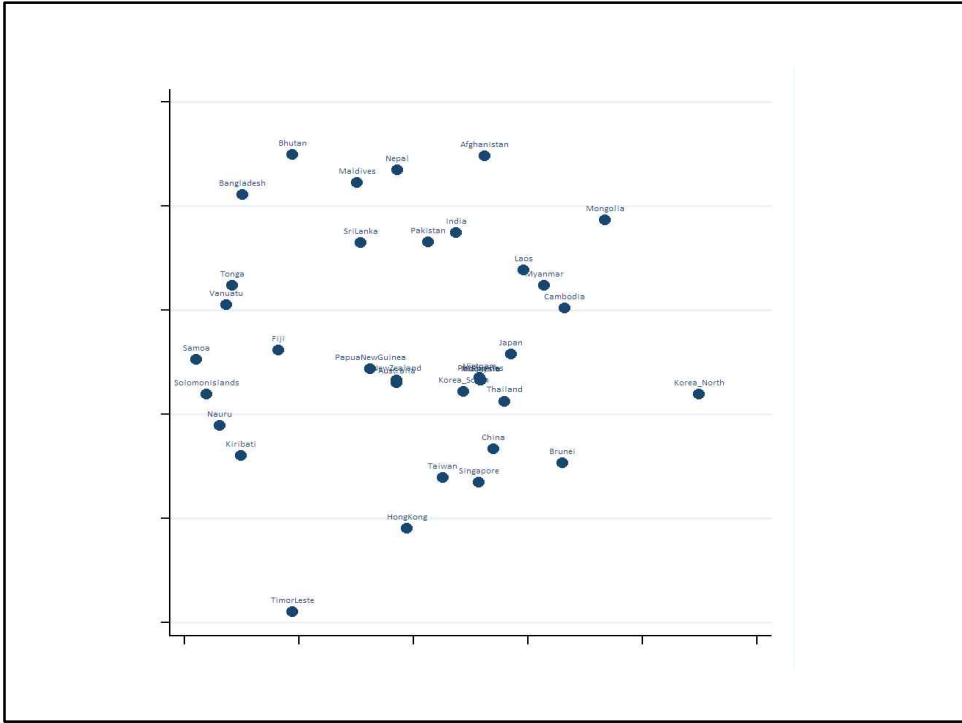
1995년	남한이 가입한 기구	북한이 가입한 기구
남한이 가입한 기구	59	14
북한이 가입한 기구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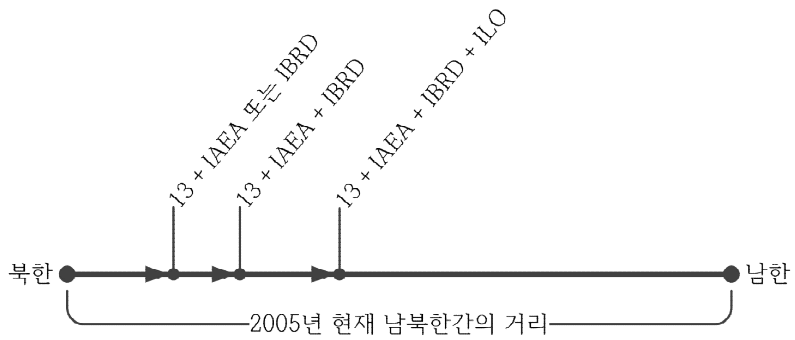
	APEC	ARF	AiDB	ASEAN	ASEM	Colombo Plan	Pacific Community	Pacific Islands Forum	PECC	SAARC	
Alghanistan	0	0	1	0	0	1	0	0	0	0	2
Australia	1	1	1	0	0	1	1	1	1	0	7
Bangladesh	0	0	1	0	0	0	0	0	0	1	2
Bhutan	0	0	1	0	0	0	0	0	0	1	2
Brunei	1	1	0	1	1	0	0	0	1	0	5
Cambodia	0	1	1	1	0	1	0	0	0	0	4
China	1	1	1	0	1	0	0	0	1	0	5
Fiji	0	0	1	0	0	1	1	1	0	0	4
Hong Kong	1	0	1	0	0	0	0	0	1	0	3
India	0	1	1	0	0	1	0	0	0	1	4
Indonesia	1	1	1	1	1	1	0	0	1	0	7
Japan	1	1	1	0	1	1	0	0	0	0	5
Kiribati	0	0	1	0	0	0	1	1	0	0	3
Korea, North	0	1	0	0	0	0	0	0	0	0	1
	1	1	1	0	1	1	0	0	1	0	6
	0	1	1	1	0	1	0	0	0	0	4
	1	1	1	1	1	1	0	0	1	0	7
	0	0	1	0	0	1	0	0	0	1	3
	0	1	1	0	0	0	0	0	0	0	2
	0	1	1	1	0	1	0	0	0	0	4
	0	0	1	0	0	0	1	1	0	0	3
	0	0	1	0	0	1	0	0	0	1	3
	1	1	1	0	0	1	1	1	1	0	7
	0	1	1	0	0	1	0	0	0	1	4
	1	1	1	0	0	1	1	1	0	0	6
	1	1	1	1	1	1	0	0	1	0	7
	0	0	1	0	0	0	1	1	0	0	3
	1	1	1	0	0	0	0	0	1	0	4
	0	0	1	0	0	0	1	1	0	0	3
	0	0	1	0	0	1	0	0	1	1	4
	1	1	1	0	0	0	0	0	1	0	4
	1	0	1	1	1	1	0	0	1	0	6
Thailand	1	0	1	1	1	1	0	0	1	0	6
Timor-Leste	0	0	0	0	0	0	0	0	0	0	0
Tonga	0	0	1	0	0	0	1	1	0	1	4
Vanuatu	0	0	1	0	0	0	1	1	0	1	4
Vietnam	1	1	1	1	1	1	0	0	1	0	7
	15	20	33	9	9	20	10	10	14	9	

가입연결망
 준연결망
 이원연결망

	1	2	3	4	5	6	7	8	9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3	3	3	3	3	3					
1 Alghanistan	2	2	1	1	0	2	1	2	1	2	2	2	1	0	2	2	2	1	2	1	2	2	2	2	2	1	1	1	2	1	2	0	1	1	2		
2 Australia	2	7	1	1	3	3	4	4	3	3	5	4	3	1	5	3	5	2	2	3	3	2	7	3	6	5	3	4	3	4	4	0	3	3	5		
3 Bangladesh	1	1	2	2	0	1	1	1	2	1	1	1	0	1	1	1	2	1	1	1	2	1	2	1	1	1	1	1	2	1	1	0	2	2	1		
4 Bhutan	1	1	2	2	0	1	1	1	2	1	1	1	0	1	1	1	2	1	1	1	2	1	1	1	1	1	1	1	2	1	1	0	2	2	1		
5 Brunei	0	3	0	0	5	2	4	0	2	1	5	3	0	1	4	2	5	0	1	2	0	0	3	1	2	5	0	3	0	1	3	4	0	0	5		
6 Cambodia	2	3	1	1	2	4	2	2	1	3	4	3	1	1	3	4	4	2	2	4	1	2	3	3	3	4	1	2	1	2	2	3	0	1	1	4	
7 China	1	4	1	1	4	2	5	1	3	2	5	4	1	1	5	2	5	1	2	2	1	1	4	2	3	5	1	4	1	2	4	4	0	1	1	5	
8 Fiji	2	4	1	1	0	2	1	4	1	2	2	2	3	0	2	2	2	2	1	2	3	2	4	2	4	2	3	1	3	2	1	2	0	3	3	2	
9 HongKong	1	3	1	1	2	1	3	1	3	1	3	2	1	0	3	1	3	1	1	1	1	1	1	3	1	2	3	1	3	1	2	3	3	0	1	1	3
10 India	2	3	2	2	1	3	2	1	4	3	3	1	1	3	3	3	3	2	3	1	3	3	4	3	3	1	2	1	3	2	2	0	2	2	3		
11 Indonesia	2	5	1	1	5	4	5	2	3	3	7	5	1	1	6	4	7	2	2	4	1	2	5	3	4	7	1	4	1	3	4	6	0	1	1	7	
12 Japan	2	4	1	1	3	3	4	2	2	3	5	5	1	1	5	3	5	2	2	3	1	2	4	3	4	5	1	3	1	2	3	4	0	1	1	5	
13 Kiribati	1	3	1	1	0	1	1	3	1	1	1	1	3	0	1	1	1	1	1	1	1	3	1	3	1	3	1	3	1	1	1	0	3	3	1	1	
14 Korea_North	0	1	0	0	1	1	1	0	0	1	1	1	0	1	1	1	0	1	1	0	0	1	1	1	1	0	1	0	0	1	0	0	0	0	0	1	
15 Korea_South	2	5	1	1	4	3	5	2	3	3	6	5	1	1	6	3	6	2	2	3	1	2	5	3	4	6	1	4	1	3	4	5	0	1	1	6	
16 Laos	2	3	1	1	2	4	2	2	1	3	4	3	1	1	3	4	4	2	2	4	1	2	3	3	3	4	1	2	1	2	2	3	0	1	1	4	
17 Malaysia	2	5	1	1	5	4	5	2	3	3	7	5	1	1	6	4	7	2	2	4	1	2	5	3	4	7	1	4	1	3	4	6	0	1	1	7	
18 Maldives	2	2	2	2	0	2	1	2	1	3	2	2	1	0	2	2	2	3	1	2	1	3	2	3	2	2	1	1	1	3	1	2	0	2	2	2	
19 Mongolia	1	2	1	1	1	2	2	1	1	2	2	1	1	2	2	2	1	2	2	1	1	2	2	2	2	1	2	1	1	2	1	0	1	1	2		
20 Myanmar	2	3	1	1	2	4	2	2	1	3	4	3	1	1	3	4	4	2	2	4	1	2	3	3	3	4	1	2	1	2	2	3	0	1	1	4	
21 Nauru	1	3	1	1	0	1	1	3	1	1	1	1	3	0	1	1	1	1	1	1	1	3	1	3	1	3	1	3	1	1	1	0	3	3	1	1	
22 Nepal	2	2	2	0	2	1	2	1	3	2	2	1	0	2	2	2	3	1	2	1	3	2	3	2	2	1	1	1	3	1	2	0	2	2	2	2	
23 NewZealand	2	7	1	1	3	3	4	4	3	3	5	4	3	1	5	3	5	2	2	3	3	2	7	3	6	5	3	4	3	3	4	4	0	3	3	5	
24 Pakistan	2	3	2	2	1	3	2	2	1	4	3	3	1	1	3	3	3	2	3	1	3	3	4	3	3	1	2	1	3	2	2	0	2	2	3	3	
25 PapuaNewGuinea	2	6	1	1	2	3	3	4	2	3	4	4	3	1	4	3	4	2	2	3	3	2	6	3	6	4	3	3	3	2	3	3	0	3	3	4	
26 Philippines	2	5	1	1	5	4	5	2	3	3	7	5	1	1	6	4	7	2	2	4	1	2	5	3	4	7	1	4	1	3	4	6	0	1	1	7	
27 Samoa	1	3	1	1	0	1	1	3	1	1	1	3	0	1	1	1	1	1	1	1	1	3	1	3	1	3	1	3	1	1	1	0	3	3	1	1	
28 Singapore	1	4	1	1	3	2	4	1	3	2	4	3	1	1	4	2	4	1	2	2	1	1	4	2	3	4	1	4	1	2	4	3	0	1	1	4	
29 SolomonIslands	1	3	1	1	0	1	1	3	1	1	1	3	0	1	1	1	1	1	1	1	1	3	1	3	1	3	1	3	1	1	1	0	3	3	1	1	
30 SriLanka	2	3	2	2	1	2	2	2	2	3	3	2	1	0	3	2	3	3	1	2	1	3	3	3	2	3	1	2	1	4	2	3	0	2	2	3	
31 Taiwan	1	4	1	1	3	2	4	1	3	2	4	3	1	1	4	2	4	1	2	2	1	4	2	3	4	1	4	1	2	4	3	0	1	1	1	4	
32 Thailand	2	4	1	1	4	3	4	2	3	2	6	4	1	0	5	3	6	2	1	3	1	2	4	2	3	6	1	3	1	3	3	6	0	1	1	6	
33 TimorLest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4 Tonga	1	3	2	2	0	1	1	3	1	2	1	1	3	0	1	1	1	2	1	1	3	2	3	2	3	1	3	1	3	2	1	1	0	4	4	1	
35 Vanuatu	1	3	2	2	0	1	1	3	1	2	1	1	3	0	1	1	1	2	1	1	3	2	3	2	3	1	3	1	3	2	1	1	0	4	4	1	
36 Vietnam	2	5	1	1	5	4	5	2	3	3	7	5	1	1	6	4	7	2	2	4	1	2	5	3	4	7	1	4	1	3	4	6	0	1	1	7	



국가	x좌표	y좌표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남한	미국
			(○행)과 (○열)간의 상대적 거리*					
북한	261	237	0.0	172.2	235.3	235.3	235.3	290.8
러시아	433	246	172.2	0.0	118.4	118.4	118.4	145.7
중국	461	361	235.3	118.4	0.0	0.0	0.0	64.0
일본	461	361	235.3	118.4	0.0	0.0	0.0	64.0
남한	461	361	235.3	118.4	0.0	0.0	0.0	64.0
미국	525	359	290.8	145.7	64.0	64.0	64.0	0.0



타는 곳
Tracks | 乗車場

평양방면
To Pyeongyang | 平壤方面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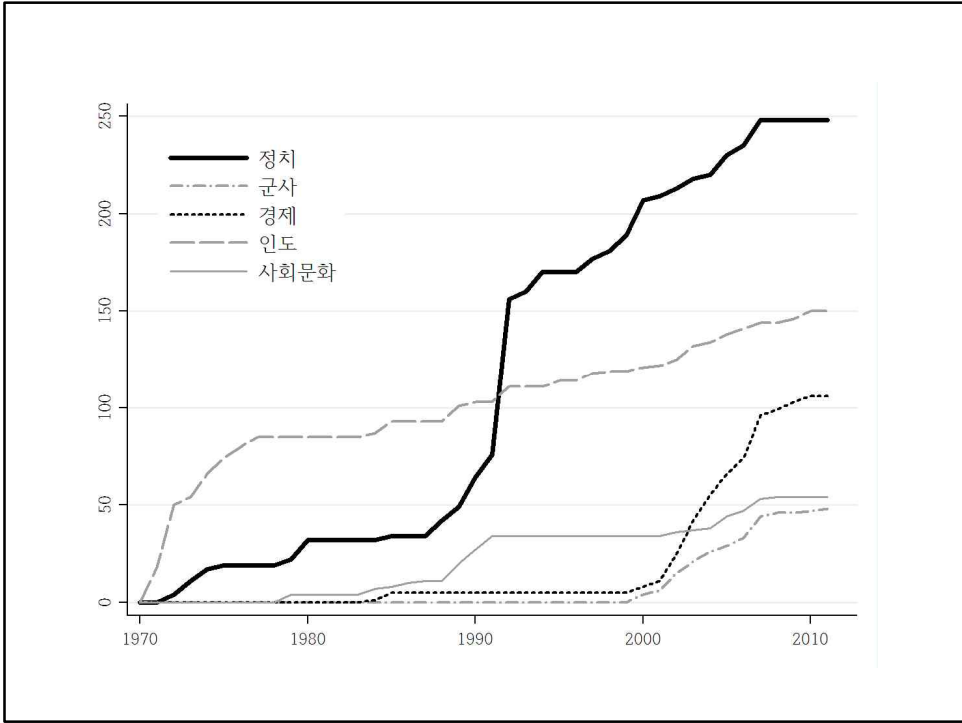
4

길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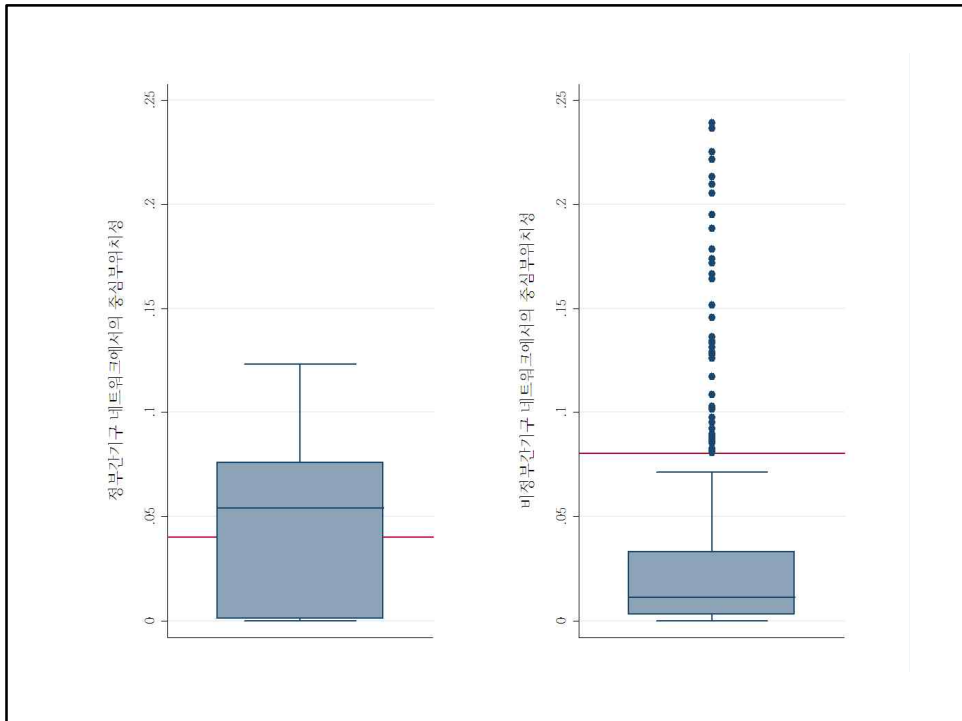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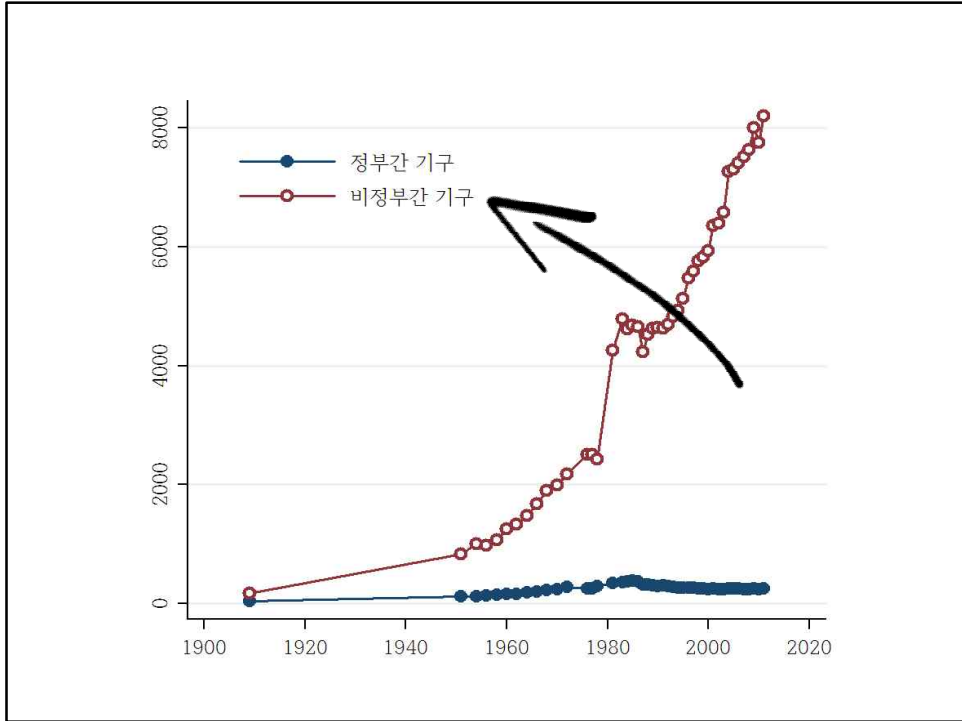
돌아서 가는 길

		4장	5장	6장	7장
분석대상	국가	남북한	아시아 국가; 유럽 국가; 유엔가입 국가	293개국	남북한
	시기	2011	2005	2011-2012	2011; 2011-2012
	국제기구	유엔관련 국제기구; 정부간 기구	역내 주요 국제기구; 유엔관련 국제기구	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기구 (유형별)	유엔관련 국제기구; 정부간 기구
분석내용	자료변수	국제기구 누적가입; 국제기구 공동가입	좌표	유형별 가입빈도	
	설명변수	중첩도: 거리*	거리	좌표: 중심부위치성	거리*
	준거변수				남북한간 (분야별) 대화수





	남북한 간 누적대화 수					
	정치 분야	군사 분야	경제 분야	인도 분야	사회문화 분야	합계
유엔관련국제기구를 통한 거리	-.504**	-.253	-.277	-.601**	-.566**	-.484**
정부간 기구를 통한 거리	-.689**	-.387*	-.414**	-.752**	-.750**	-.660**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Databases Activities Members Job Board Shop News Support us About Contact Log in

Search this site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line

Print | Online



66053 detail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profiles online, IGOs and INGOs in all forms and disciplines

15th edition, 2013

Annual subscription
 Price € 2220,-
 Maintained by the UIA since 2000
 Published by Brill since 2011 (13th ed)
 All prices listed are without VAT. Please note that for customers in Belgium and for EU customers that do not have a valid VAT number, the price will be increased by VAT according to Belgian law.

Guide to global civil society networks

- Classification of organizations
- Contents of descriptions
- User Guide
- Search examples

The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line* is a database accessible via online browsers. Being free of space constraints, it contains more information than the book version of the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instance, the book contains descriptions of 34995 act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le the online database covers 66053 by including profiles of dormant or inactive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Yearbook* online is updated continually and therefore contains the most recent information - the print edition is only published once a year.


Online database last update: 15. January 2013

feedback

IQSS Dataverse Network >

POWERED BY THE **Dataverse Network** PROJECT v. 3.3

Gary King Dataverse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  [View Previous Study Listing](#)

hdl:1902.1/FYXLAWZRIAUNF:3:dSE0bsQK2o6xXlxeaDEhcg==
 Version: 3 - Released: Fri Mar 11 16:43:28 EST 2011

CATALOGING INFORMATION [Data & Analysis](#) [Comments \(5\)](#) [Version](#)

Data Citation

i If you use these data, please add the following citation to your scholarly references. Why cite?

Gary King; Will Lowe, 2003,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 <http://hdl.handle.net/1902.1/FYXLAWZRIAUNF:3:dSE0bsQK2o6xXlxeaDEhcg==>
 IQSS Dataverse Network [Distributor] V3 [V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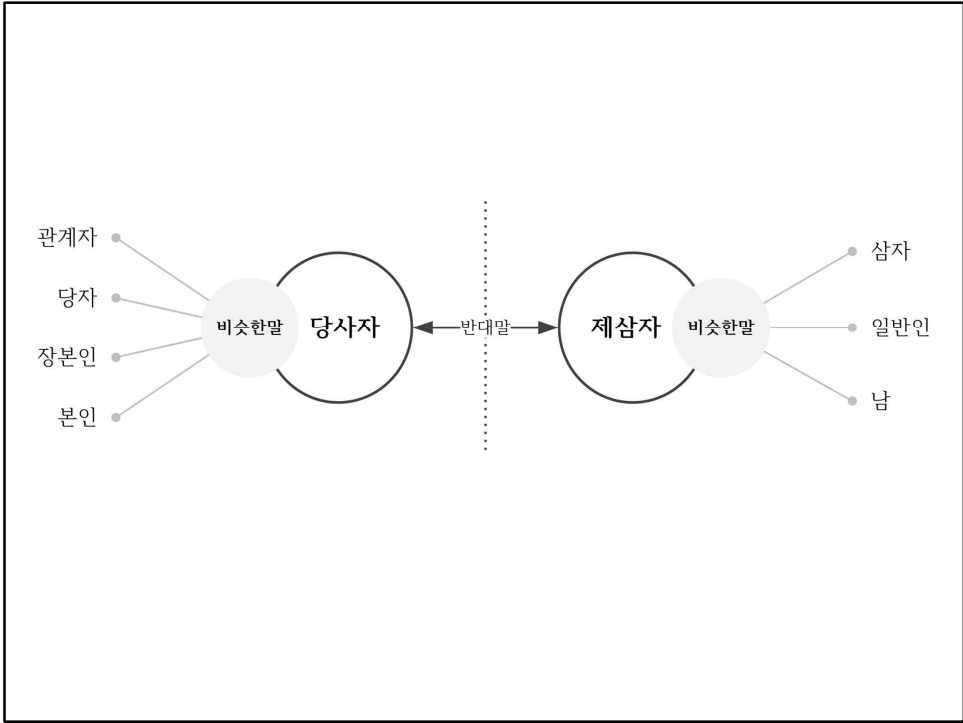
Citation Format [Print](#)

Publications

King, Gary; Lowe, Will, 2003, "An Automated Information Extraction Tool For International Conflict Data with Performance as Good as Human Coders: A Rare Events Evaluation Desig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7, No. 03, pp. 617-642. <http://gking.harvard.edu/files/abs/infoex-abs.shtml> (article available here).

Data Citation Details

Title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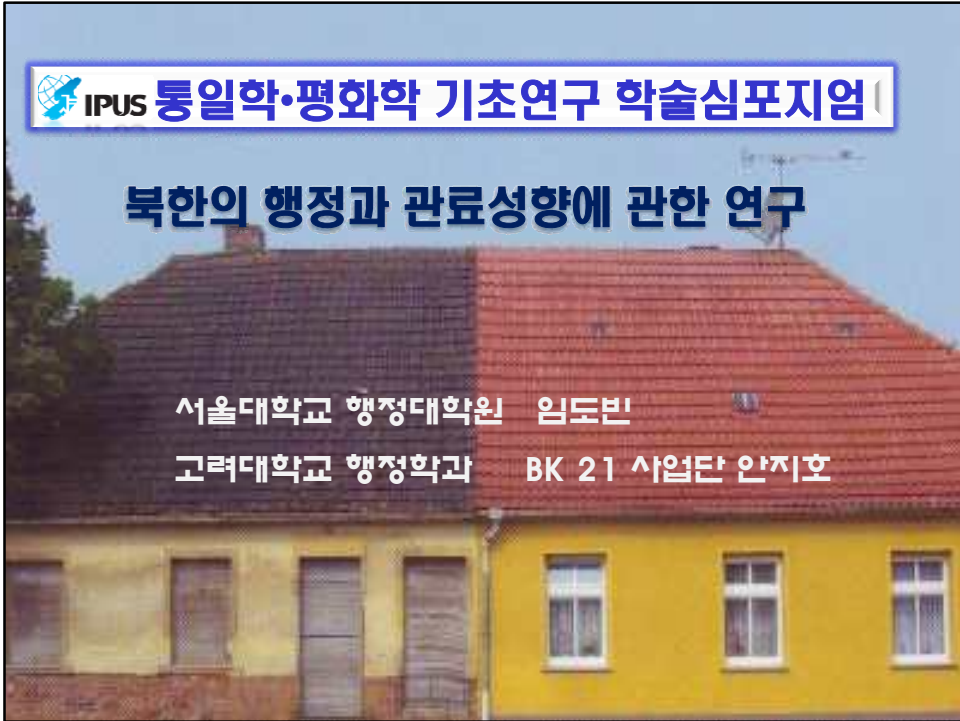
제3회의 북한의 행정, 보건과 남북 학술 공동연구

- 북한의 행정과 관료 성향에 관한 연구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현황조사 및 균형적 질 평가
박상민 (서울대 의과대학)
- 야생동물 계통분류 남북공동연구
이 항 (서울대 수의과대학)

북한의 행정과 관료성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임도빈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BK 21 사업단 안지호



목차

I. 연구방법론

II. 동독의 행정과 관료성향

III. 북한의 행정과 관료성향

IV. 독일의 행정통합

V. 결론



목차



I. 연구방법론

II. 동독의 행정과 관료성향

III. 북한의 행정과 관료성향

IV. 독일의 행정통합

V. 결론



동독행정 장의 형성과 발전

동독행정 장의 형성과 발전

맑스 → 프로이센 관료제 비판과 대안으로 코뮌행정 제시
부르주아가 아닌 프롤레타리아가 행정의 주체
코뮌 = 전체인민의 의사를 통해 권력을 행사
집행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가짐

레닌

맑스의 국가·행정개념을 이어받음
행정의 전문화 지양하고 이를 단순화함

그러나 레닌이 처한 당시 러시아의 현실

→ 맑스의 이론으로부터 탈피

러시아의 후진적인 산업구조

→ 프롤레타리아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지도하는가?

당의 전위적 역할 강조 = 프롤레타리아의 지도 조직화

레닌의 행정 = 군대



동독 행정과 관료 성향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당의 전위적 역할

삼권일치, 중앙집권이고 위계적인 행정체제

모든 직책은 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간부들은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간부의 당에 대한 충성은 항상 당에 의해 확인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실수를 하게 되었다면당신은 당에 의해 항상 평가되고
당신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람들은항상 당의 코르셋을 입고 있습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당의 전위적 역할

당의 전위적 역할 ⇒ 인치를 가능케 한다

국가간부는 정치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국가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 경우에는 국방부(Ministerium für nationale Verteidigung)에서 한 번 더 심사를 받습니다

● 법의 기능 약화

(...) 동독은 달랐습니다. 동독에서는 늘 상관이 있었습니다. 상관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상관의 동의 없이 저는 수사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은 절대적이니까요.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당의 전위적 역할

당과 국가보위부에 대한 행정의 이중 통제

예를 들면 모든 관할구역(Ratsbereich)에는 국가보위부에서 파견된 통제간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담당 행정조직의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국가보위부에 보고합니다

모든 경찰조직에 국가보위부가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조직의 내부 상황을 그 부서(경찰조직 내부에 있는 국가보위부의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동독경찰조직에는 조직의 장을 보좌하는 막료조직이 있었습니다. 막료조직의 장은 국가장(Staatschef)이라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관(Polit-Offizier)이 있었습니다. 정치관은 경찰조직의 정치적 책임과 국가간부들의 정치교육을 맡았습니다. 경찰행정 그 자체가 정치적이었습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민주주의 집중제

행정조직의 원리 = 민주주의 집중제

내무부장관이 경찰을 총지휘합니다.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이 칼 마론(Karl Maron)이었습니다.

경찰조직 역시 군대조직체계를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즉 계급제 말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 밑에 도(Bezirk)의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독은 14개의 도로 이루어집니다. 포츠담(Potsdam), 베를린(Berlin),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드레스덴(Dresden), 코트부스(Cottbus) 등등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군(Kreise) 그리고 읍.면(Gemeinde)까지 조직됩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민주주의 집중제

행정조직의 동형화

한번 예를 들어 막데부르크 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도청이 있습니다.

이 도조직은 도의 정치조직을 따라 조직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의 조직이

군.경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정 조직은 이와 같이 조직됩니다.

경찰 역시 다른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당조직을 따라 조직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민주주의 집중제

민주주의 집중제의 내면화

여기(통일이후 독일)에는 모든 경찰이 주마다 다른 경찰법을 가지고 있어요. 동독에서는 모든 행정이 중앙집권적이어서 이러한 현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앙집권제가 연방제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독에서 중앙집권제를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집권제도가 훨씬 우수합니다. 전체 사회의 안전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에서도 그렇습니다. 통일 후 독일은 경찰법이 베를린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에서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동독은 하나의 경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연방제가 더 우수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민주주의 집중제

행정조직의 군대화, 경직화, 단순화

동독에서 경찰은 군사화 되었습니다. 청년조직들 역시 군사화 되었습니다. 나찌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동독의 인민군대가 창건된 이후 동독의 경찰은 서독과 다른 계급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중대장(Hauptmann)을 거쳐서 통일 이전 경정(Hauptkommissar)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급은 모두 군대식 명칭입니다. 대위(Hauptmann), 소위(Leutnant), 중위(Oberleutnant) 등 모두가 군대식 명칭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독 사회 전체가 일종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독은 요새화된 사회주의 국가가 되길 원했습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계획경제(Staatliche Pläne)

계획경제의 의미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원이 부족한 상황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동독은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매달, 매년 작업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당은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의 지휘는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왜 당신은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습니까? 당신이 관리하는 부서는 왜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 보고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간부로서 저는 목표달성에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계획경제(Staatliche Pläne)

계획경제의 의미

저는 1971년부터 통일 전까지 경정(Kommissariatsleiter)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동베를린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경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정들은 그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정은 연말에 자신의 계획달성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부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연히 당으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항상 목표를 1등으로 달성한 것은 트렙토어(Treptow)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트렙토어는 항상 계획의 93%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90%로 항상 3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제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3등이라는 것에 대해 제 상관은 기뻐했습니다. 동독에서 1등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꼴찌 역시 나쁘죠. 중간이 좋아요 우리는 상관으로부터 질책 받지 않았습니. 제 상관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계획경제(Staatliche Pläne)

관료의 통제수단으로서의 계획경제

그러니까 자원문제 예를 들면 경찰차의 이용에 상당히 제한을 받았습니다. 특히 속도제한을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제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거기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료공급 또한 제한적이었어요.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계획경제(Staatliche Pläne)

행정전문화의 어려움

동독의 상황은 많이 달랐어요. 연료는 아껴야 했어요. 우리부서에는 차가 2대 있었는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니다. 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다른 부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부서는 항상 한 대는 고장이고 한 대는 부서로 돌아오고 있어서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업무는 항상 급박한 것이 많은데(...) 통일 이후는 많이 달라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차가 필요하면 열쇠를 가지고 차를 이용하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현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통일 이후에 수사관이 현장에서 현장 지문, 범행흔적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증거수집반이 도착해서 현장증거물을 수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사진사가 와서 현장사진을 찍습니다. 동독은 다릅니다. 동독에서는 서독에서 분화된 전문업무를 한 사람이 다 합니다. 동독경찰은 현상스케치를 스스로 그립니다. 그리고 측정도구들을 가지고 직접 측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일 이후 경찰행정은 이러한 면에서 장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이 훨씬 수월했으니까요.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카더교육(Kaderpolitik)

정치교육

경찰에도 카더정책은 중요합니다. 즉 경찰은 좋은 계급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쁜 제국주의자가 있고 어디에 우리의 동지가 있는 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당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당은 항상 당신을 주목합니다. 매달 4시간의 정치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집회가 있습니다. 대집회에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단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단회의의 정점인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치적인 신뢰를 가진 국가간부라면 이것 말고도 많은 일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카더교육(Kaderpolitik)

동독교육의 문제점

금전적인 지원은 동독에서는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자기발전을 위한 보상 지원체계가 동독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집에 있기를 선호했습니다.

동독시절 제 부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지식을 가진 국가간부로 일했습니다. 제 부인은 단지 미용사였습니다. 저는 대학교육을 마쳤습니다. 제 부인은 항상 저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8시간 일하고 당신과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고요. 이것이 바로 동독의 문제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기발전의 기회가 있어야 했는데 말이지요.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카더교육(Kaderpolitik)

동독교육의 특징

동독의 교육은 서독하고 완전히 달라요. 통일 이후 교육은 덜 규율적 입니다. 예를 들면 서독의 학생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70년대부터 동독에서 전문교육 없이는 더 이상 간부가 될 수 없었어요. 저는 경찰로 임용된 후 4년간의 일반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4년간의 방송통신교육 그러니까 총 8년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년 동안 동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다시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경찰로 일을 하면서 총 9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독 경찰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카더교육(Kaderpolitik)

동독교육의 기능 ⇒ 통제

당신이 대학에 가고 싶다면 인민기업의 추천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업노조지도소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가서 당신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서장과 기업의 당서기, 청소년단 등이 당신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합니다. 그 심사에 합격하면 예를 들면 당신을 라이프치히 대학에 파견합니까라고 적힌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집단문화(Kollektive Arbeitskultur)

집단문화에서의 상사의 역할

매주 월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저는 상담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간부로서 조직의 업무성과와 직원들의 문제는 제 책임이니까요. 제가 모셨던 상사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날 여성 동지가 찾아와서 셋째 아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좁아서 방이 3개인 집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는 그녀를 위해 새 집을 구해주었습니다.

당신의 부하가 갑자기 당신과 서먹서먹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인이 당신에게 와서 제 남편이 요즘 제게 거짓말을 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부하를 불러서 부인에게 거짓말을 그만두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한다면 당신의 부하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간부의 의무입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집단문화(Kollektive Arbeitskultur)

자아의 약화

동독사회에 저는 상사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 통일 후에는 각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직장동료들의 가족들 모두와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또는 연극공연을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동독이 더 나은 사회라고 합니다. 이는 국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인들의 향유했던 자유시간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들이 동독의 정치체제가 오늘날 보다 더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독주민들은 모두 직업과 집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았던 과거의 안정된 삶을 말합니다. (...) 동독 주민들은 안정되고 편안한 사회에 살았으니까요.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집단문화(Kollektive Arbeitskultur)

동독 관료의 탈정치화

동독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하였습니다. (...) 모든 작업에서는 15명 정도로 구성된 사회주의 작업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업반원들 모두와 함께 주말에 소풍을 갔습니다. 예를 들면 슈프레발트(Spreewald)에 가서 배를 타고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업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 동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전체 사회적 관계는 통일 전이 통일 이후 보다 좋았습니다.



인터뷰 분석(동독 관료)

● 집단문화(Kollektive Arbeitskultur)

국가보위부에 대한 공포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보위부 요원이 있었는지 아세요? 포츠담은 하나의 도입니다. 천명 정도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포츠담에는 3,000명의 국가보위부 요원과 9,000명의 비공식 요원이 있었습니다.

비밀경찰은 모든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독의 국가보위부는 주로 국내를 사찰했습니다.

교육수료증(통일 전)

EINZELLEISTUNGEN

Marxistisch-leninistische Philosophie	3
Marxistisch-leninistische politische Ökonomie	3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2
Wissenschaftlicher Sozialismus	3
Theorie des Staates und des Rechts/Staatsrecht	2
Grundzüge der Führungs- und Leitungstätigkeit in der DVP	2
Polizeidienstkunde	2
Kriminaltechnik	3
Allgemeine Kriminaltaktik	2
Methodik der Straftatenbekämpfung	2
Strafrecht	2
Strafprozessrecht	2
Allgemeine und kriminalistische Psychologie	2
Aufgaben der K im Ordnung- und Kampfeinsatz	2
Fachschulabschlussarbeit	2

Thema: Die Besonderheiten des Einsatzes und die Einsatzgrundsätze der Kriminalpolizei bei Katastrophen oder Schadensfällen mit folgenschweren Auswirkungen.

Ag 1001/00771, B02, S. 73, 10/19/17, 302

교육수료증(통일 후)

Folgende Leistungen wurden erbracht:

Staat und Verfassung	80 Stunden	befriedigend
Verwaltungsrecht	150 Stunden	befriedigend
Grundzüge des Bürgerlichen Rechts	60 Stunden	gut
Grundzüge des öffentlichen Dienstes	60 Stunden	befriedigend
Grundzüge der Sozialverwaltung	60 Stunden	befriedigend
Finanzwirtschaftliche Grundlagen des Verwaltungshandels	80 Stunden	befriedigend
Grundlage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80 Stunden	teilgenommen

Hier: Gannar Schulte hat am Unterricht in dem Fach "Kommunikation und soziale Beziehungen" (90 Stunden) teilgenommen.
Leistungsnachweise müssen in diesen Fächern nicht erbracht werden.

Brandenburg, 25.08.1993
Der Studienleiter

Sehr gut (1) eine den Anforderungen in besonderem Maße entsprechende Leistung;
gut (2) eine den Anforderungen voll entsprechende Leistung;
befriedigend (3) eine im allgemeinen den Anforderungen entsprechende Leistung;
ausreichend (4) eine Leistung, die zwar Mängel aufweist, aber im ganzen den Anforderungen noch entspricht;
mangelhaft (5) eine den Anforderungen nicht entsprechende Leistung, die jedoch erkennen läßt, daß die notwendigen Voraussetzungen vorhanden sind und die Mängel in absehbarer Zeit beseitigt werden können;
ungenügend (6) eine den Anforderungen nicht entsprechende Leistung, bei der selbst die Grundvoraussetzungen zu erkennen sind, daß die Mängel in absehbarer Zeit nicht beseitigt werden können;

목차

- I. 연구방법론
- II. 동독의 행정과 관료성향
- III. 북한 of 행정과 관료성향
- IV. 독일의 행정통합
- V. 결론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 지방행정의 기능

경제기능

당 신발이 회사에서 만 켈레 생산했다. 그러면 읍에 있는 종합상점에서 삼천 켈레 시골에 있는 상점에 30켈레 보내라. 이게 다 시 인민위원회 양정부와 상업부가 배정하고 받아오는 숫자 주는 거예요. 가격을 회사에서 얼마 받아 왔지만 실제 가격에다 도매가격 거품 씌우는 것도 이 사람들이 가격 유도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의 생활 필수품을 주고 받고 교환하고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 지방행정의 기능

경제기능

남이 어떻게 받았던지 간에 자기 수완이고 능력이지. 서로 가까우면 도움 받는 거고, 사업이 중요한 거지.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지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 지방행정의 기능

동원기능

사회적 과제라는게 일을 무보수로 하지. 무조건 일이 있으면 호출 나가고, 가을철이면 산열매를 과제로 막 하라. 봄철이면 산나무 과제가 나와요. 그럼 1월1일부터 전투라고

회사 일 나가는 사람 때서 매번 공사동원 할 수 없잖아. 제일 만만한게 동사무소 인민반 가두라고 만만한 동네 아줌마들 동원해가지고 양어장 짓는다고 돌 주워 올려쌓고 광산을 짓는데 동원했어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 지방행정의 변화

지방행정 변화의 의미

사람들 간의 호상관계가 담배한대 줘. 이게 돈 달라는 거나 같아. 이런 식이 된 거야. 너 하나면 나 하나. 이제 공짜가 없다는 거지

경제가 어려워 질 때는 크게 (당 간부와 관료의) 권력차가 나지 않았어. 그때 사람들은 양반들이고 어른들이었는데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권력에 더 집착하고 뇌물을 더 받기 위해서 다들 당 간부가 되려고 하지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 지방행정의 변화

계획경제의 축소

양정부가 해당농장들에 공문을 내려 보낸다 말이야. 당신네 군량미 이번에 얼마다. 군량미를 최우선적으로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양곡을 얼마 수매해라. 그래야 노동자들 배급 주잖아. 그러나 그게 없어졌어. 군량미 뽑고 나니까 나머지 농장원들 분배할 수 없거든. 북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내가 있을 때 할 일이 없었어. 그래도 출근해서 우리부서는 어떻게 시장에서 사다가지고 하라. 산에 가서 나무 끌어다가 장마당에 팔아서 운영하게끔. 먹고살기 힘들니까 너 한 달간 장사해서 너 먹고 살고 이 만한 돈을 들여나라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 지방행정의 변화

동원에 대한 저항

노동부가 골치 아프지. 해당회사에서는 집에서 밥 먹을려고 하지. 여기서 말하면 실미도 같은데서 국가에서 동원하는 그런 공사를 가겠어. 그러나 위에서 xx시 500명 보내라. 그러면 xx시는 아무개 회사에서 너네. 10명 너네 20명 이렇게 하는데, 안가겠다고 하지. 그것 때문에 사람 내라고 싸우고 시끄럽지. 기업소 지배인하고 밤낮 싸워

이제 동네아줌마들은 말을 잘 안 듣지. 지까짓거 떨어져도 전업주부고 내가 승진할 것도 없고 네농새끼들 자꾸 와서 귀찮게 구냐. 그러니까 동사무장들은 머리 아프지. 내가 동사무장들 앞에 나가서 말하기가 얼굴이 얼마나 간지러웠는지 몰라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 지방행정의 변화

행정기능의 축소

탁아소 보내는 게 없습니다. 탁아소 가려면 내라는 게 많고 그러니까 안보내지요. 그러니까 교원들이 돌아가면서 아기를 봐준다든가. 친정엄마 있는 교원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동사무소라는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봐요. 할당되고 수행하라는 임무를 주는 기관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1세기 인데, 북한은 20세기 보다 더 전으로 후퇴했거든요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 지방행정의 변화

행정기능의 사유화

우리 같은 경우는 가정교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부업인거죠. 나는 교원을 하면서 가정교사 하니까 좀 이익이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하죠. 근데 뭐. 살아야 되겠으니까

특히 고난의 행군 들어 무역부분이 좀 낫지. 외화벌이 사업소 같은 데 나가면 달러가 들어오니까 직원들은 한 달에 보름치 혹은 이십 일치 씩 배급을 나눠 준거야. 그래서 외화벌이 사업소 가서 어떻게 빌어 보려고 지배인이 되거나 그런 것이 많아졌지



인터뷰 분석(북한 관료)

● 지방행정의 변화

지방당의 반격

어려워지기 전에는 뇌물이라고 하지도 않았지. 힘들어 지기 시작하니까 이놈들이 내 주머니 챙겨야 내가 살겠구나 하는 인식이 들어서면서부터 서로 챙기기 하니까 위에서부터 신호가 내려온 거야. 당 간부들이 뇌물행위, 부정행위를 없애기 위해 난리쳤어

2007년도에 외화벌이 사장을 하던 사람을 총살했는데 한 사람한테 총알을 90발을 쏘어요. 총살할 때 학생이고 뭐고 다 모아놓고 했는데. 총을 쏘니까. 사람들이 너무 끔찍해서 고개 돌리고 했는데

목차



I. 연구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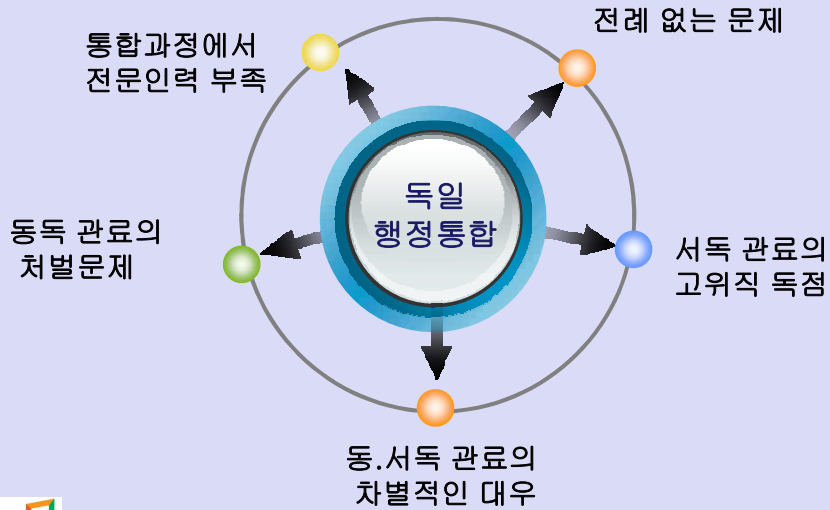
II. 동독의 행정과 관료성향

III. 북한의 행정과 관료성향

IV. 독일의 행정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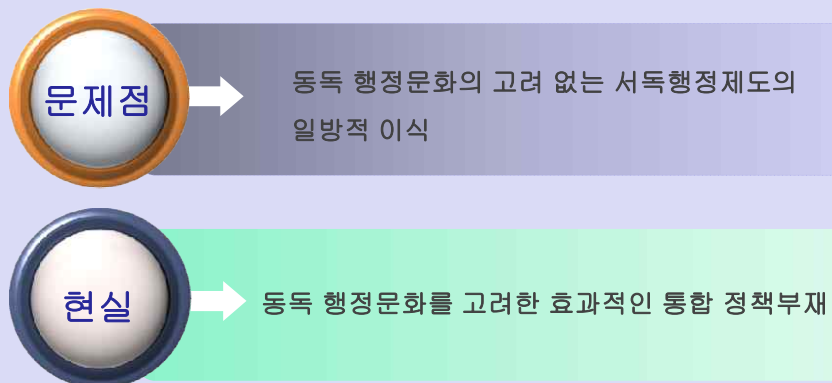
V. 결론

독일의 행정 통합의 문제점



독일 행정 통합의 핵심

어떻게 하면 이질적인 동서독의 행정문화의 충돌을 줄일 것인가?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 실패요인

동.서독인의 서로 다른 관점

하르츠 IV와 같은 복지제도는 동독에 없었어요. 그리고 동독인들은 과거에 트라반트(Trabant)라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 12년에서 14년 기다려야 했어요. 오늘날 동독인들 대부분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합니다. 그들의 집은 새 지붕으로 바뀌었는데 말이지요. 보세요. (통일이후에 동독 지역에 건설된) 고속도로며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을요

바이에른 주와 같은 구서독지역에 가 보세요. 거기서 학생들에게 장벽에 대해 물어 보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동독인들은 서독인들이 동독에 대해 아는 것보다 서독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오늘날 여기에(브란덴부르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 실패요인

업무와 재교육 업무의 폭증

동베를린은 현재 서베를린과 합쳐졌습니다. 이것은 서독경찰이 담당해야 할 몫이 두 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제 관할 구역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서베를린의 제 관할 구역과 새롭게 편입된 동베를린의 관할구역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가적인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전에는 단지 베를린의 현재 업무의 반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동베를린에서 온 경찰 역시 제 부하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 재교육 담당자 역시 이들의 업무가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서독 경찰뿐만 아니라 동베를린 경찰들은 재교육하는 일이 이들의 몫이 되었으니까요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 실패요인

고위직 진출의 불가능과 심사 절차의 불공정성

통일 전 고위직에 있었던 동독경찰간부는 통일 후에는 한명도 직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막료로서 인민경찰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통일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사람들을 심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 해고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누구를 해고하고의 문제는 일괄적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닙니다.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 실패요인

관료성향 변화의 어려움

행정통합은 어떻게 보면 관료성향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동독관료와 서독관료의 성향체계는 다릅니다. 동독에서 국가는 사람들을 조정하고 모든 것을 떠맡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집니다. 동독의 국가처럼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국가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독의 주민은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부터 직업생활에 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도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독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통일의 부정적인 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생활기반을 잃어 버렸습니다. 실업이 없었더라면 통일은 잘 진행되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분하고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제한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독인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 성공요인

일방적인 서독제도 강요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행정지원을 위해 많은 수의 공무원이 파견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들이 최악의 서독공무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의 고위공무원이라면 통일 후에 당신의 부하를 북한행정의 재건을 위해 파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부하 중 최고를 북한에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일류들을 북한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류들 역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삼류를 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기(구동독)에서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시청의 과장이 이러한 상황을 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의 부하 중에서 누군가를 동독으로 보내야 했고, 보내진 부하는 멍청한 놈들이었습니다.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 실패요인

동독 관료들의 좌절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통일을 해서 한국에 북한제도를 도입하는 것일요. 제가 한국의 사정에 잘 모르지만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대학교육은 여성을 위해 배려한 것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아이들을 탁아소에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이에 강의가 8시에 시작하지 않고 9시에 시작해서 16시 전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으니까요.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 성공요인

통합에 대한 의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새롭게 배워서 일하는 것에 흥미를 가졌고, 기뻐했고 열망했습니다. 그들이 동독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물론 그것이 동독출신 경찰들에게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동독경찰은 훌륭하게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였습니다.

당신이 곧 인터뷰 하게 될 M2는 통일 후 제 부하로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는 매우 열려 있는 사람이었고 자유롭고 너무나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그는 저에게 단 한번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 성공요인

높은 교육수준

동독경찰은 모두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좋은 사회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독에서 비교적 상위계층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동독에서 잘 사는 계층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확실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필요한 것을 스스로 체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대되었던 데로 그들 모두가 우리와 잘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 성공요인

유능한 상사

통일 후 어느날 베를린 경찰청에 연락이 와서 경찰청이 있는 베를린 쇠네베르크(Schöneberg)로 갔습니다. 거기에 나중의 제 상사인 M씨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가 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는 항상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 성공요인

유사한 업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조직적인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동독에서 경찰이었고 통일 후에도 경찰로 근무했으니까요. 동독출신 경찰은 경찰업무에 문외한이 아니라 그들 역시 저와 같은 직업을 가졌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통합에 있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분석(동서독 행정통합)

● 성공요인

Learning by doing

한 달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이들은 실습위주의 교육 그리고 3일은 이론 교육말이죠. 경찰서에서 그들의 파트너와 팀을 이루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학습성취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 재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동독출신의 경찰을 통합시키기가 어려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더 이들을 재교육시키고 무엇을 더 교육시킬 것인가가 핵심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월 재교육프로그램을 시키고 부족하면 다시 3개월씩 이렇게 재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바뀌어서 95년, 96년에는 재교육프로그램이 잘 조직되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듯 재교육프로그램은 약간은 임시변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빨리 수행되고 그리고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방식으로 말이죠. 결국 재교육프로그램은 우리 경찰서에서도 팀으로 수행되었고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learning by doing은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목차



I. 연구방법론

II. 동독의 행정과 관료성향

III. 북한의 행정과 관료성향

IV. 독일의 행정통합

V. 결론

독일의 행정통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관료의 북한 파견

재교육프로그램에서 북한행정 문화 고려

북한 행정의 직제 분석

능력 있는 북한 중.하급관리의 고위직 채용확대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현황조사 및 균형적 질 평가

연구책임자 : 의과대학	의학과	성명 박 상 민
공동연구원 : 의과대학	의학과	성명 이 혜 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성명 김 희 숙
메디피스		성명 차 지 호
보조연구원 : 사회과학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과	성명 박 영 수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배경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공산주의국가들의 붕괴, 연이은 자연 재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지속된 정치외교적 갈등상황으로 인해 급속도로 사회 다방면으로의 침체와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보건의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90년대 이후부터는 북한이 내세우고 추구하던 보건의료체제의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시점에 봉착하게 된다. 반복되는 기근과 홍수 그리고 그로 인한 극심한 아사 사태와 감염질환의 발생은 북한의 많은 보건의료 지표들을 변화시켰으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의료지원을 촉발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원조에 힘입어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의 회복을 한시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균형 잡힌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지속적이고 정확한 치료를 요하는 결핵과 같은 질환의 경우, 의료물품이나 약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환 발생률이나 약제내성률과 같은 특정 지표는 개선되지 못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중앙으로부터의 일정한 배급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생계형 시장체제가(장마당)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보건의료체계 중앙 통제권 밖에 존재하는 새로운 약품공급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통제권 밖에 존재하는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파급효과의 범위를 측정하는 노력은 북한의 현재 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하는 국가보건의료체계 분석틀을 통해 평가하고, 탈북의사 심층 면접 및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행하며, 북한과 유사한 변화를 겪었던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국들의 보건의료시스템 변환 사례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북한의 모자보건 현황을 살펴보고,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정신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및 탈사회주의 변화 과정 속에서 북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개요 및 방법

1) 연구목적

○ 문헌고찰 및 남한에 정착한 탈북의사,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의료체계 분석방법을 토대로 하여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하여 균형적인 질 평가를 시행하며, 북한과 유사한 변화를 겪었던 후기 사회주의 체제 전환국들의 보건의료시스템 변환 사례를 고찰한다.

또한, 북한의 모자보건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주의 및 탈사회주의 변화 과정 속에서 북한 정신보건의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북한 보건의료체계 및 균형적 질평가에 대한 문헌 고찰

- 북한의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현재에 이르는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의 변화에 대한 문헌 고찰
- 체제전환국들의 탈사회주의체제변환(Post-socialist Transition)시 보건 체계와 현 북한의 보건체계 비교를 위한 문헌고찰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가보건의료체계 분석방법들에 대한 문헌 고찰

(2) 북한의 최근 보건의료체계 이해를 위한 심층 면접 및 설문 조사

- 탈북의사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In Depths Interview) 시행.
- 북한에서 의료경험이 있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의 의료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200명 시행

(3)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균형적 질평가 수행 및 자문회의

- WHO에서 제시되고 있는 의료체계 분석방법을 토대로 각 분야에 따라서 북한의 보건 의료체계에 대한 균형적 질평가 수행
- 사회주의 및 탈사회주의 시대 구 공산권 국가의 정신보건의료 변화 과정 고찰
- 통일학, 의학교육, 보건학, 실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의견 수렴

3. 연구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하는 국가보건의료 분석틀을 통해 평가하고, 탈북의사 심층 면접 및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북한과 유사한 변화를 겪었던 후기 사회주의 체제 전환국들의 보건의료시스템 변환 사례를 고찰하여 향후 북한 보건의료의 가능한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북한의 모자보건 현황을 살펴보고,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정신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및 탈사회주의 변화 과정 속에서 북한의 현황을 문헌고찰 및 탈북의사 심층면접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분석틀(framework)을 사용하여 재정관리체계 (Financing), 의료물품과 기술 (Medical Products & Technologies), 의료정보체계(Health Information System), 보건의료인력(Health Workforce), 의료서비스 전달(Health Services Delivery)의 각 분야에 걸쳐 전체적인 북한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과거 사회주의

의료제도는 전 인민에 대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건의료 정책들은 중앙에서 계획되고 집행되며, 국가 재정을 통해 국영시설에서 일하는 국가 공무원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하지만 소비에트 경제블록이 약화되는 1980년대 이후 북한 정부의 보건의료 재정능력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감소해 왔고, 1990년 대 극심한 경제 위기 후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지탱할 만한 재정은 유지될 수 없었다. 게다가 2002년 7.1 조치와 함께 경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후,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최소한으로 줄면서 보건의료 및 다른 사회안전망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그 책임은 개인이나 지역 공동체로 전이되었다. 이러한 보건의료재정의 부족은 무상의료를 표방하는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약품과 의료물품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의료인에게도 배급과 수당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보건의료재정의 부족은 상대적으로 국내외 대북 보건의료원조에 의지하는 비율을 높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원조는 정치적 국제관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체계적인 원조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진행되던 원조도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들도 있다. 대북 보건의료원조의 공급량과 기간의 예측이 어렵게 되면,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보건성에서는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없고, 의료기관들은 중요한 물품부터 비축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의 의료물품과 기술 분야에서는 북한 내 자체 생산 의약품 및 의료물품의 공급이 제약되면서, 병원에서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약은 동의약이 대부분이며, 모든 의사들은 매년 2회 약 초채취에 동원되었다. 의료물품에 대해서 대외 보건의료 원조에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의약품의 공급이 제한적이고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품적 가치가 높고, 실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약품이 공급되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상당부분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배급과 수당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인과 약품공급과정에 연관된 중간 매개자들에게 의약품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이로 인해 의약품과 의료물품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의료인에게도 비공식적인 의료시장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보건의료인력은 제도적으로 충분한 인력이 가능하도록 양적으로 일정수준의 의사의 수를 유지하는 것을 고급의 의료 질을 제공하는 것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북한의 의사에 대한 범위 또한 중급의료인력 중 일부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당 의사의 수가 남한에

비해서 많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의료인력의 질적 저하를 함께 가져왔다. 1990년 이후에 의과대학을 다닌 젊은 의사들은 일정수준의 의학교육을 받기 어려워서 고난의 행군 전 의학교육을 받은 세대와 지식수준, 임상진료 경험,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자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질 낮은 의학교육과 임상경험 부족으로 의료의 질적 수준은 하락하였고 의사직을 통한 수입증대를 염두한 진료가 증가하였다. 의료인력에 대한 감독체계에서도 6.24 검열 등을 통한 정기적인 평가와 보고체계를 통한 의사의 진료 행위를 감독하는 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감독체계는 행정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독체계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에서 의료정보관리의 체계는 감독과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보고체계가 존재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록체계 또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계획된 구조적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황분석에 중요한 일부 항목들이 제외되어 정보가 없거나 필요한 정보가 부분적으로만 있다는 지적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가단위의 주요 보건의료 통계 지표를 신뢰할만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인력교육 및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의 보건의료 접근성 문제에서 병원의 수, 병원까지의 거리, 의사의 수에 있어서는 수적인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1,2차 병원들까지의 이동시간은 한 시간 이내로 비슷하게 소요되어 지리적 접근성이 의료서비스이용의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경제적 지불능력이었다. 이는 무상진료체제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과 진료 뿐 아니라 식량을 포함한 임금미지급까지 포함하여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구조로 인해 환자의 지불능력이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가장 중요한 의료서비스 가용의 결정요인이 되었다. 정부소유의 의료기관들이 충분한 예산 없이, 의료서비스 유지에 대한 책임지게 되었고, 이미 시장기능과 연계되어 복합적인 후기 사회주의 의료체계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 주민들은 사적, 공적인 제도가 혼합된 보건의료서비스로부터 쉽게 소외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균등한 의료서비스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각 구성요소별 기능을 평가했을 때, 북한의 보건의료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국가의 감소한 국민총의료비와 보건의료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무상진료체계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이는 진료, 시술, 수술을 위한 기반 시설의 부족과 낙후 및 의료인의 임금 지급기능 마비를 유발하였다. 그리고 보건의료 감독체계 약화로 인해 의약품 공급 배급과 수당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약품 및 의료행위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탈북의사의 심층면접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북한 보건의료의 탈사회주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의료문화의 변화 속에서 출현한 비공식적 경제와 사회안전망의 약화로 인해 의료접근의 불평등을 유발하였다.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장기간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은 북한의료사회의 환자-의사 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 의료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의료인들은 장마당에서 약품을 팔고 환자에게 선물을 받는 비공식적 활동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공식적 의료비용의 장벽은 북한의 인구집단 내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불평등을 낳게 되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까지 나쁜 영향을 주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모자보건관리 현황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여성들은 산전진찰-출산-산후관리 흐름의 전 영역에 걸쳐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교육이나 산후관리 영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전진찰의 경우에도 국제기구에서 보고한 수치에 비해 실제 지표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GAVI나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규모 예방접종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2000년 이전에 출생한 12세 이상의 북한청소년의 경우 체계적인 신생아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은 이미 구 공산권 국가에서 탈사회주의 체제 변환 시에 발생했던 여러 보건의료 문제들을 보이고 있거나 유사한 경과를 거칠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1989년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 이후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급격한 전환을 거치면서 보건의료체계도 급격한 변화 과정을 거쳤다. 체제 변환 초기 극심해진 정치, 경제 및 행정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체제전환국들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체제전환국에서 보건의료의 비공식

경제의 확대와 보건의료 사회안전망의 취약이 나타났다. 체제 변환 후 각 국가들의 보건의료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 결과들을 고찰해 보면 북한의 후기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공산권 국가가 정부재정 감소와 불안정한 의료체제 변화로 급격히 늘어난 빈곤층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독재정권이 가진 정치적 폐쇄성이 기존 경제적 취약성에 더해져 체제 변환 시기 극심한 보건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북한과 유사한 면이 많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적극적인 보건시스템 개혁이 시도되지 않았고, 보건문제의 예방과 해결 보다는 문제를 감추는데 우선점을 두었으며, 보건영역은 독재정권의 임시적인 정책들과 일방적인 보건의료 재정축소 발표에 따라 문제가 악화되었다.

체제변환국 중 대안적인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체제 개혁을 이룬 슬로베니아의 사례는 북한의 보건의료체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데 도움이 된다.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 후 슬로베니아 신생 정부는 시장중심의 체제 전환과 함께 붕괴된 보건의료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전국민의료보험(compulsory social health insurance)와 민간의료보험(voluntary health insurance), 그리고 민영 의료(private practice) 체계가 복합된 의료보장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이는 독립직후 극도로 빈곤해진 보건재정 상태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무상의료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트남의 경우 탈사회주의 시기에 비공식적인 비용과 불법적인 뇌물이 공공연히 요구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현재 북한의 탈사회주의 보건의료 현황과 유사한 면이 많았다. 개혁개방 하의 베트남 정부는 과거처럼 의료서비스 공급 체제 전반을 담당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민간에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탁하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며 의료의 효율성과 의료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유도하였다. 또한, 약품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의료시장에는 약품이 과잉공급, 소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증가하는 보건의료 재정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992년부터 사회보험, 자발적 가입보험, 의료급여기금, 아동무상의료기금의 4가지 형태의 의료보험을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해외 양자간 원조를 통해 저개발 지방의 일차의료의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확대 강화하였고, 주요 질병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였다. 베트남은 시장중심의 개혁개방을

진행하면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여타 구 공산권 국가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이는 향후 북한의 보건의료 체제변환 과정에서 보건의료 재정 안정화와 일차의료 공급체계 및 공공의료 안정화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다른 체제전환국의 탈사회주의 시기 보건의료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 유지라는 정치적 필요 때문에 시장 기능과 연계되어 작동하는 의료체계에 대응 하는 개혁 정책들을 공식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기존의 탈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추가적인 보건의료문제들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비공식 의료경제의 활성화와 보건의료 사회안전망의 취약은 현재 북한 주민이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중요한 장벽이 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한 환자 부담의 증가는 의료 인프라의 지역적 차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의료 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이차시장 경제를 통한 규제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약품의 유통은 암시장에서 불균형적인 지역 배분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다자간/상호원조로부터 원조 약품의 상업적 유통로 이어졌다. 의료시설에 대한 불충분하고 불평등한 정부지원은 지역간 혹은 병원간 보건 서비스의 격차를 크게 하였고, 보건 감시 체계와 예방적 통제는 약화되었다. 시장의 의존한 의료제도에서 구급시설이나 다른 정부 시설내의 보건 서비스는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시설은 정부의 공적 지출에만 의존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현행의 시장 기능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한 의료체제의 ‘탈사회주의 전환’은 정부 규제의 외곽에서 이차 경제의 매우 복잡한 체계를 양산했다. 이미 보건의료 영역에서 상당부분 비공식경제의 영향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보건의료 재정 안정화,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일차의료 안정화 및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보건의료 개혁정책들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전략을 구상할 때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보건의료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원조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

다양한 문헌고찰 및 심층면접,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얻은 자료들은 국제사회에서 제시되는 의료체계분석 기준에 따라 균형적으로 평가가 될 것이므로, 현재 북한의 제한된 의료재원이 가장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줄 것이다.

하나의 질환이나 단편적 보건사업이 국민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서,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균형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내 구체적인 취약점들을 찾아낼 수 있으며, 남북 보건의료 통합 및 대북 보건의료 지원방안 전략을 수립할 때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심층면접, 표적집단 면접등을 이용한 질적연구를 기반으로 한 자료 수집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북한 내부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체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만 제공될 수 있는 북한의 탈사회주의 보건의료 변화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의 통합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 뿐 아니라 고난의 행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야생동물 계통분류 남북공동연구



2013. 2. 7.

이무영, 민미숙, 이 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CGRB)



보전유전학 (Conservation Genetics)



- 유전학을 생물다양성 보전에 응용
-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 유전적 다양성(Genetic diversity)
 -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
 - 생태군집 다양성(Biological community diversity)



보전유전학 (Conservation genetics)



evolutionary
biology

population
genetics

molecular
ecology

phylogeny

phylogeography

systematics

bi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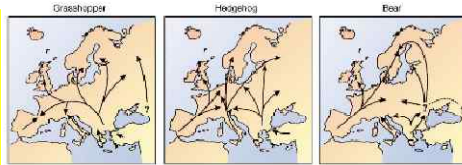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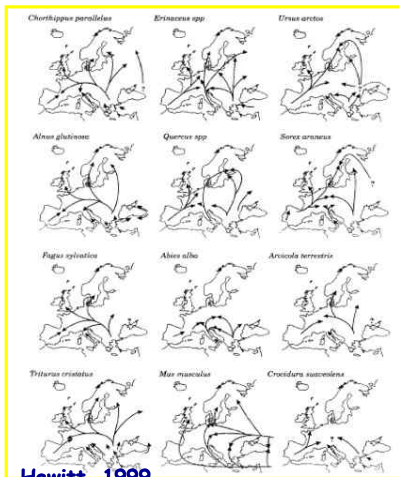
계통지리 Phylogeography



- 현재 개체군의 지리적 분포가 과거의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아 형성이 되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개체군 진화 역사를 재구성
- **Gene genealogy**를 이해하여 현재 연구대상종의 집단 구조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
- **Phylogeny + Population gene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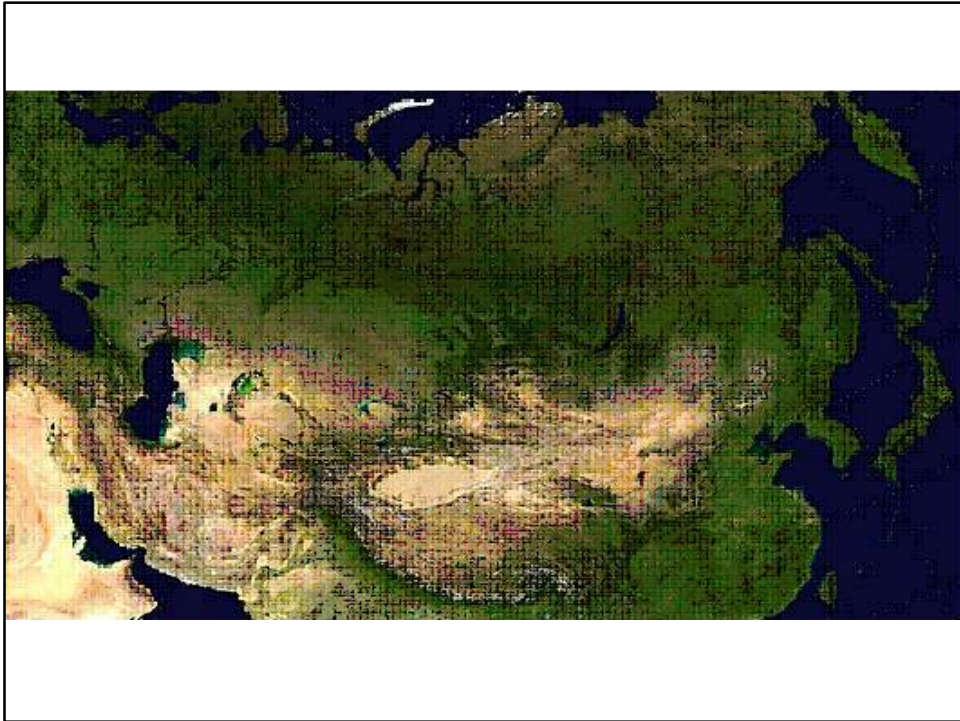


계통지리 Phylogeography



•Iberia, Italy, the Balkans and Caucasus

Hewitt, 1999
Biol. J. Linn. Soc. L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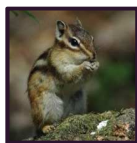
보전유전학 연구



하늘다람쥐
Pteromys volans



청설모
Sciurus vulgaris



다람쥐
Tamias sibiricus



산양
Naemorhedus caudatus



호랑이
Panthera tigris



멧돼지
Sus scrofa



삼
Prionailurus bengalensis



족제비
Mustela sibirica



너구리
Nyctereutes procyonoides

노루
고라니
설치류와 식충목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연구의 필요성



- 남북한 야생동물 연구네트워크 구축
 - 생물주권 확보 및 보호-남북 양쪽의 공동자산
- 계통분류 및 계통지리
 - 남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계통지리 연구 부족
 - 진화역사를 밝히는데 기여
- 남북한 야생동물 이해 증대를 위한 초석
 - 효율적인 보호/관리
 - 남북간 이질감 해소/지속 가능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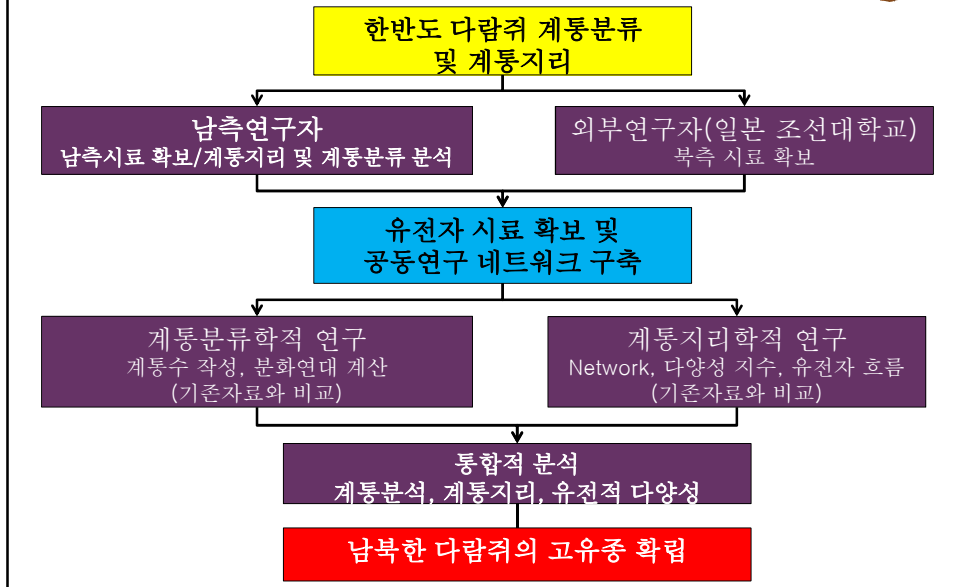
연구 목표



1. 기초 생물학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 네트워크 형성, 다양하고 폭 넓은 연구 위한 협력모델 제시
2. 한반도 다람쥐의 계통분류학적 관계 및 계통지리 연구
3. 한반도 내 다람쥐의 분류체계를 명확하게 하여 고유종 확인 및 생물자원 확보, 보호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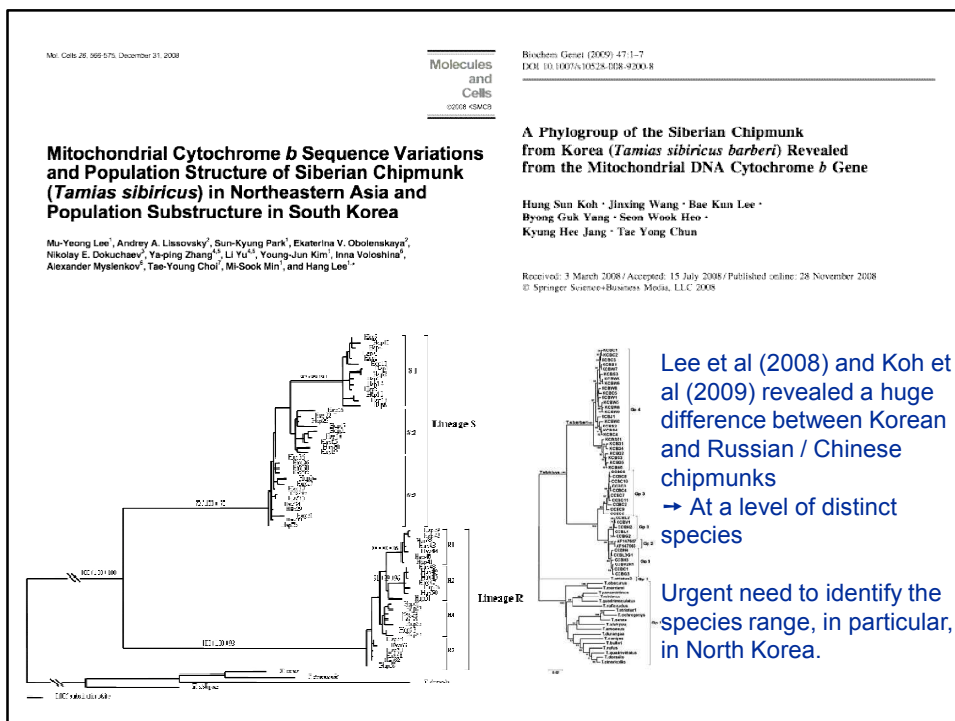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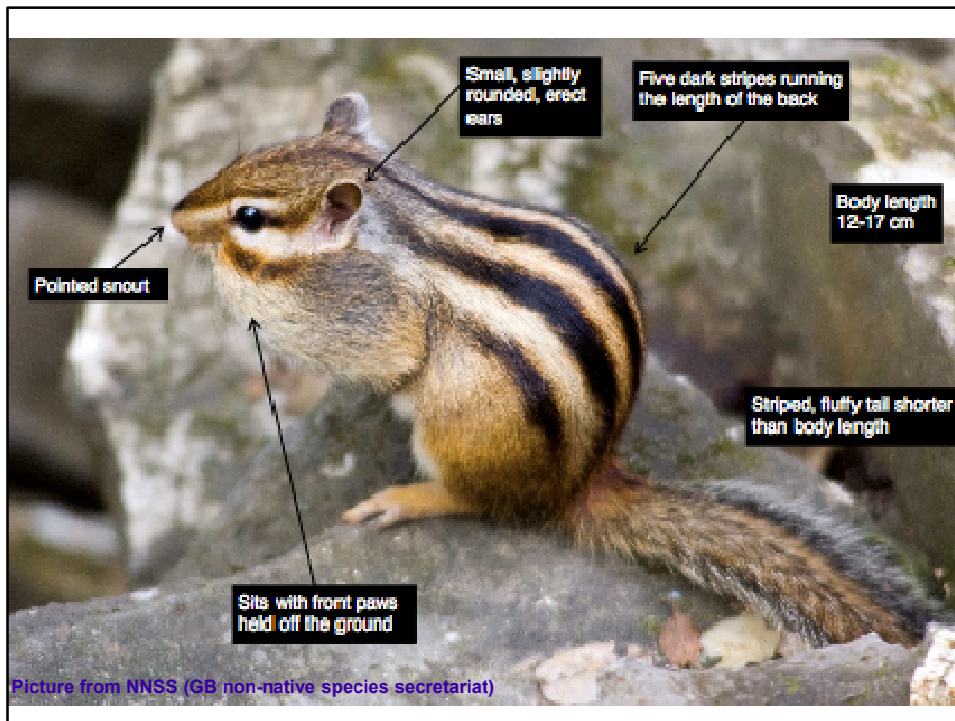


다람쥐, *Siberian chipmunks* *Tamias sibiri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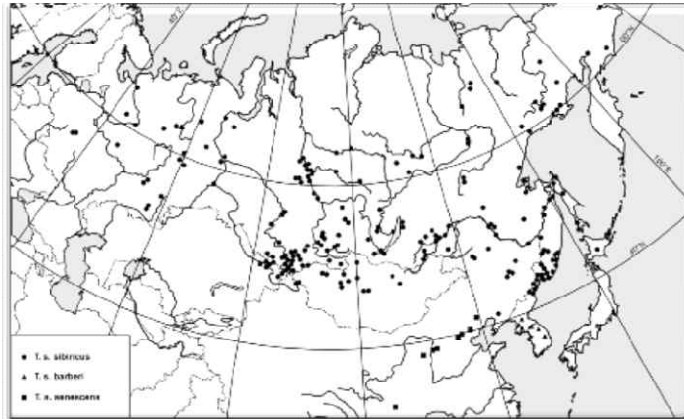


- 25 recognized species in genus *Tamias*
- Only Siberian chipmunk occurs in Eurasia including Korea, Russia, China, Mongolia, and Japan from Hokkaido
- Introduced to some European countries
- One of popular pet animals
- Excellent tree climbers but usually live in under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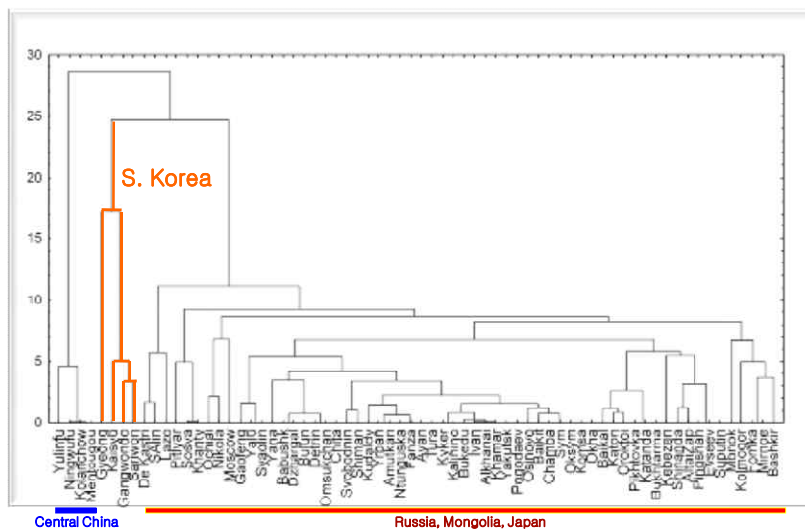




Morphometric study



- 705 intact skulls from 223 localities
- 17 measurements from each sku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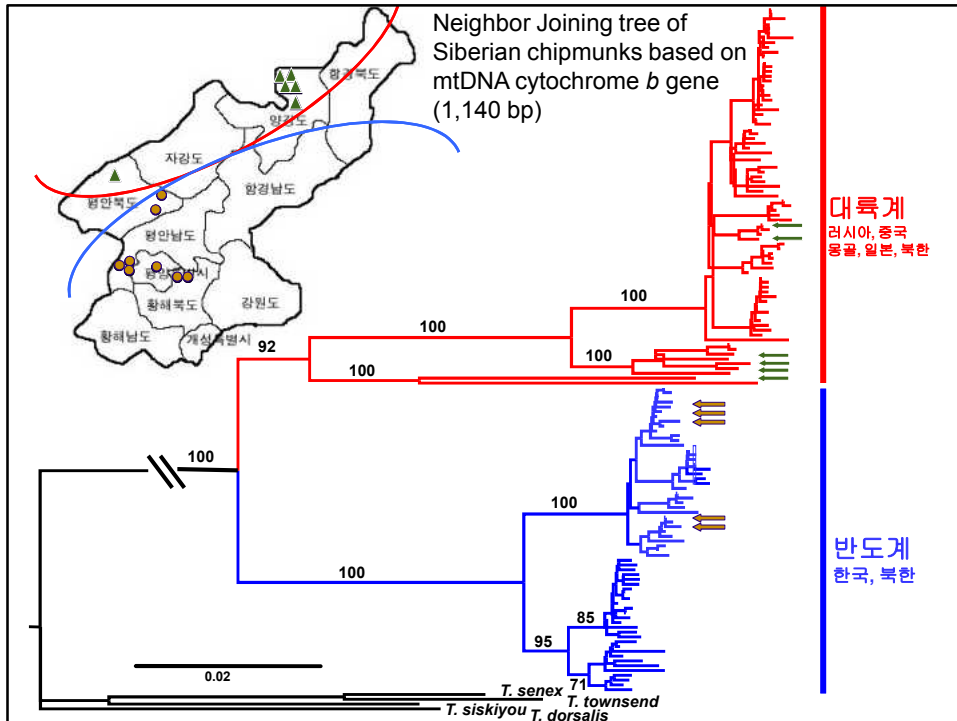
- Dendrogram of results of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of Craniometric features (Obolenskaya & Lee et al, 2009)



시료 수집



225 개체
:25 (북한), 71 (한국), 97 (러시아), 29 (중국/대만), 1 (일본), 2 (몽골)



Hypotheses

- Palearctic ecozone
 - East Asia region
 - Siberia subregion,
 - Manchuria subregion
- Physical barriers like Mountains
- Climate change



결론



-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두 계열(반도계열/대륙계열)로 나누어지는 경계가 북한 내 존재한다는 사실 확인: 고유종 가능성 매우 높음
- 다람쥐의 종경계 및 잡종화 지역이 평안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내에 위치할 가능성
- 이들 지역에서의 집중적인 시료 확보와 추후 연구를 통해 정확한 계통지리적 경계 및 진화 역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

National Cancer Institute NIH US

Stephen J. O' brien
Warren E. Johnson
Polina Perelman

Nicole Crumpler
Victor David



Special thanks to everyone who contributed the collection of samples for this study and I would like to thank all my lab members for helping to finish the project

Russia

Andrey A. Lissovsky
Kartavtseva Irina
Inna Voloshina

KIZ China

Ya-Ping Zhang
Li Yu
Junfeng Pang

CGRB Korea

Mu-Yeong Lee
Mi Sook Min
Young Jun Kim
Sun Kyung Park

Tae Young Choi
Chang Yung Choi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문화관 73동, 151-742
Bldg. 73,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 +82 (0)2-880-4052~4 F +82 (0)2-874-7305 <http://tongil.snu.ac.kr>